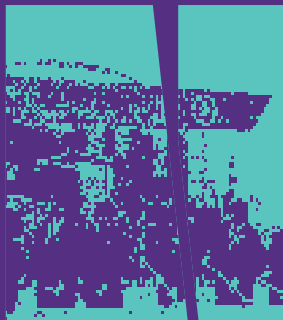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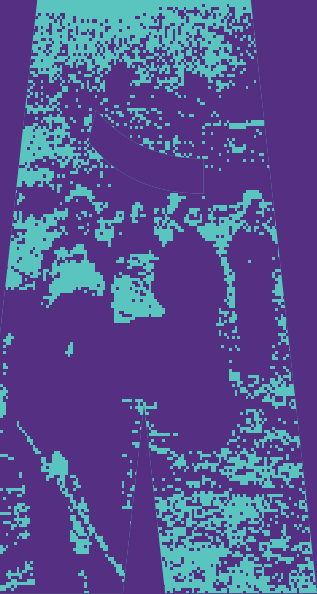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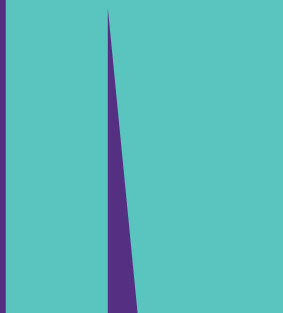




간 등록 번호
3830000-100011-14



THE HISTORY OF ANYANG CITY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 전체에서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나,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며 2차산업 중심의 공업화 과정으로 나아갔다. 안양 역시 1960년대 이후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하여 제조업 기반의 공장들이 다수 입지함에 따라 주요 산업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제06권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 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교육·행정·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문과 첨삭을 하였다.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안양 산업의 형성과 변화

제1장 안양의 경제구조와 산업화 /008

1. 시 승격 이전의 1차 산업구조 /009
2. 공업단지의 형성과 제조업의 성장 /023
3. 연도별 제조업, 지역내총생산 변화 추이 /032

제2장 안양의 섬유산업과 제지산업 /038

1. 조선직물 /039
2. 금성방직 /040
3. 태평방직 /042
4. 동양나이론 /044
5. 삼풍섬유 /046
6. 삼영하드보드 /047
7. 삼덕제지 /049
8. 한국제지 /051
9. 오성제지 /054
10. 동일방직 /055
11. 유한킴벌리 /057

제3장 안양의 제약산업과 식품산업 /060

1. 유유제약 /061
2. 동아제약 /063
3. 동화약품 /066
4. 오뚜기 /069
5. 크라운제과 /071

제4장 안양의 중화학공업과 전기·전자산업 /074

1. 락희화학공업사 /075
2. 노루표페인트 /077
3. 금성통신과 금성전선 /081
4. 현대양행(만도) /083
5. 대한전선 /085
6. 동남전기 /087
7. (주)휴비딕 /088
8. (주)코텍에너지 /089

제5장 안양상의보를 통해 본 1970~1980년대 안양 산업계의 모습 /090

1. 1973~1975년의 안양산업계 /095
2. 1976~1978년의 안양 산업계 /104
3. 1979~1981년의 안양 산업계 /114
4. 1982~1984년의 안양 산업계 /120
5. 1985~1987년의 안양 산업계 /126
6. 1988~1989년의 안양 산업계 /130



2 안양 산업환경과 공업지역의 공간분포

제1장 산업대분류별 현황과 특성 /142

1. 안양시 산업 현황 /143
2. 안양시 공장 현황 /147
3. 산업대분류별 일반 현황 /152

제2장 산업의 안양 공업지역 내 공간분포 /166

1. 안양 공업지역 기본 현황 /167
2. 안양 공업지역의 분포와 특성 /170

제3장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현황과 운영 /184

1.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185
2.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현황 /187
3.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운영 실태 /204



3 안양 산업생태계의 변화와 산업육성 정책

제1장 신도시 개발과 산업구조의 변화 /212

1. 안양시 산업구조 변화 양상 /213
2. 안양시 이전 공장 추이 및 대형 공장의 활용 /226
3. 안양시의 산업구조 고도화 /234

제2장 안양 산업의 진흥을 위한 육성 정책 /242

1. 산업진흥 육성 정책 /243
2. 산학연계 방안 /259
3. 산업육성 지원시설 /264

제3장 벤처기업의 지역 정착과 유형별 경영환경 /268

1. 안양시 벤처기업 유형 분류 /269
2. ICT 산업 지원정책과 현황 /276



01 안양 산업의 형성과 변화

제1장 안양의 경제구조와 산업화

제2장 안양의 섬유산업과 제지산업

제3장 안양의 제약산업과 식품산업

제4장 안양의 중화학공업과 전기·전자산업

제5장 안양상의보를 통해 본 1970~1980년대 안양 산업계의 모습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 전체에서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으나, 이후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며 2차산업 중심의 공업화 과정으로 나아갔다. 안양읍 역시 농업에 기반을 둔 지역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하여 제조업 기반의 공장들이 다수 입지함에 따라 경기도의 주요 산업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1장

안양의 경제구조와 산업화



박천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1. 시 승격 이전¹의 1차 산업구조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0년대 초반, 당시의 안양읍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에서 농업과 임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1953년 당시 전체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7%였으며, 이후 1960년까지 41.9% 수준을 유지했다. 1960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의 비율은 56.9%로 나타났으며, 당시 경기도의 농업인구 비율도 이와 유사한 56.8%를 기록했다. 안양읍 역시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기반을 둔 지역이었는데, 주로 벼농사와 과수 재배가 중심을 이루었다. 안양은 지리적·기후적으로 농업 생산에 매우 유리했는데, 1950년대 미곡 생산량은 약 1000여 톤에 달했으며, 1970년대 초반에는 2214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벼농사와 함께 무, 배추, 오이는 안양읍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잉여생산물은 지역 시장을 통해 안양읍에서 거래되었다. 안양시의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 안양읍은 한국전쟁의 여파로 농업 생산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에는 섬유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했으며, 점점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안양읍 내부에서의 거래뿐만 아니라 서울로의 유통도 시작되었다.

1973년 시승격 이전의 자료는 시흥군 통계연보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1972년 시흥군 통계연보 기준 안양읍은 인구 10만 1749명에 가구 수는 2만 494로 그 중 농가는 1380가구에 비농가는 1만 9114가구로 전형적인 농업형에서 산업형 도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특히 1961년부터 1971년까지 인구증가율은 무려 3.35% 이상으로 한국전쟁 이후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시 승격 이전의 안양읍 산업은 매우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안양읍은 당



한국재건단의 방직산업지원(1954, 국가기록원 제공)



한국재건단의 민간인 축산 지원사업(1952, 국가기록원 제공)

시의 주된 산업이던 농업을 시작으로 축산업, 임업, 상업, 관광·숙박업, 영화산업, 금융업, 의료업, 광업, 공업 등 여러 산업이 복합적으로 혼재된 지역이었다. 본 장에서는 농업, 축산업, 상업을 중심으로 시 승격 이전 안양의 산업구조를 살펴보고, 그 외의 업종(특히 경공업)은 이후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³

농업부터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의 안양은 대부분이 논이었고, 일부만 밭으로 되어 있었다. 명학역과 명학육교 인근 동쪽은 농가주택을 제외하면 대부분 논(밭농사)이었으며, 안양천은 고운 모래와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었다. 농업용수는 의왕면 청계리의 저수지 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 지금의 경수 1번 국도 인접 귀인마을의 방죽 물을 이용해 모내기를 했다. 한편 밭농사는 산자락 아래에서 주로 지었으며, 보리·수수·콩과 좁쌀 등 여러 잡곡과 채소가 재배되었다. 당시 밭작물은 안양지역의 수요를 충족시켰고, 남은 농산물은 인근 도시에서 거래되었다. 이 시기 안양읍의 대표적인 농산물은 포도였다. 안양읍은 분지 형태로 바람이 적고 온도 차가 크며, 석회 성분이 풍부한 토질로 인해 당도 높은 포도가 생산되었다. 현재의 안양7동 동화약품과 덕천초등학교 일대 1만여 평이 모두 포도밭이었으며, 안양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포도를 꼭 맛보고 간다고 전해진다.



보리밭 밝기와 벼베기(1970, 이정범 제공)

1960년대 이전의 안양읍은 축산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부 부농만이 농우를 기르고 있었고, 돼지는 동네에서 겨우 한두 마리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닭 역시 몇몇 집에서만 사육했으며, 달걀을 장에 내다 팔아 등잔불 석유값에 보태는 수준이었다. 1956년 무렵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부화한 병아리가 농가로 일부 분양되면서, 산란계 중심의 양계 산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0년대 안양의 도시화 과정에서 가축위생연구소 인근 양계장은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났고, 평촌 벌말지역의 약 1000여 마리 규모의 양계장도 1989년 신도시 개발로 사라졌다.

상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의 안양은 동네마다 구멍가게도 없었고, 현재 안양1동의 안양시장(구시장)이 유일한 장터였다. 이 안양시장은 1925년 홍수로 사라진 군포장의 상권을 흡수해 1926년 정기시장으로 개장했다. 이후 1961년 현 안양4동으로 시장이 이전된 이후 ‘구시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구시장 인근 상권은 점차 쇠락하여 1960년대 말에 사라졌고, 1997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1961년 현 안양4동으로 이전한 시장은 ‘중앙시장’으로 불렸는데, 당시 농산물을 비롯하여 공산품, 포목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안양 최대의 시장이었다. 한편 1960년 무렵 ‘남부시장’이 등장했는데, 당시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안산 등의 농산물을 도소매하는 규모가 큰 시장이었다. 현 평촌동 일대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기 전까지 남부시장은 청과물도매시장 역할을 했으며, 현재도 농수산물과 식자재, 농자재 등의 도소매 점포가 상당수 입주해 있다.

세부 업종에 관한 논의에 이어 안양지역 전체의 1차산업 성장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안양지역의 1차산업은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⁴. 1965년 당시 1차산업 인구율은 26.4%였는데, 이는 이미 2차산업 인구 비율인 31.2%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반면 1차산업 인구의 감소는 2차 및 3차산업 종사자가 그 자리를 대체해갔다. 2차산업 종사자 비율의 경우 1970년대 중반 64.0%까지 급성장하다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규제에 의해 1990년대에는 32.8%까지 하락했다. 한편 3차산업 종사자는 1985년 약 6만여 명에서 1995년에는 10만여 명, 그리고 2022년 기준 24만여 명(전체 종사자의 86.9%)으로 증가했다.⁵ 이러한 경향은 경기도의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을 통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다. 농림·어업의 경우 1961~1970년대에 4.4%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성장률은 감소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반면 제조업은 이미 1953~1960년부터 12.1%의 높은 성장률을 1990년대까지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경기도의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

단위 : %

부문	1953~1960	1961~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09
농림·어업	2.3	4.4	1.6	3.5	1.9	1.8
광업·제조업	12.1	15.7	14.1	11.4	8.2	5.3
전기·가스·수도·건설	9.3	19.2	10.3	10.3	2.7	3.3
서비스업	3.8	8.6	6.8	8.4	6.1	3.6
국내총생산	3.8	8.4	9.0	9.7	6.5	3.9

자료: 경기문화재단(2011)

시 승격 이전 안양읍의 1차산업 구조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산업구조 및 업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1973년 12월부터 존재한다. 해당 시점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당시 1차산업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⁶

1차 산업은 농업·임업·어업·축산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안양지역의 경우 대부



1970년대 호계2동 마을

분 농업 및 축산업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73년 당시의 농가는 1173호, 농가인구는 7147명이며, 평촌동이 가장 많은 농가수·농가인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호당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안양2동이 7.1명, 안양3동이 6.9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예: 안양1동 4.8명)에 비해 밀집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양동이 313.2ha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평촌동 209.2ha, 박달동 151.1ha 순으로 나타났다. 호당 경지면적은 관양동이 1.48ha로 가장 넓었고, 박달동(1.31ha), 안양5동(1.25ha) 순이었다. 호당 경지면적이 넓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한 호당 농업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한 지역은 향후 2차 산업의 발달에 따라 기업들이 주목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1980년대 이후 주택·산업단지센터 등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재개발되었다.

〈표 2〉 농가수 및 경지면적(1973년 12월 기준)

단위 : 호, 명, ha

지역	농가수	농가인구	호당 농가인구	경지면적	호당 경지면적
안양1동	14	67	4.8	-	-
안양2동	14	99	7.1	16.4	0.51
안양3동	65	451	6.9	28.8	0.44
안양4동	4	27	6.8	-	-
안양5동	20	122	6.1	24.9	1.25
안양6동	105	565	5.4	70.7	0.67
비산동	168	1,023	6.1	146.5	0.87
관양동	211	1,266	6.0	313.2	1.48
평촌동	225	1,451	6.4	209.2	0.93
호계동	133	801	6.0	149.3	1.12
석수동	99	558	5.6	150.2	1.52
박달동	115	717	6.2	151.1	1.31
계	1,173	7,147	6.1	1,260.3	1.01

자료: 안양시, 『1973년 통계연보』, 1974.

다음은 안양시 내 농가의 세부 업태를 확인하기 위해 업태별 농가 호수 자료를 분석해보았다. 전체 1173호 중 평촌동이 225호(19.2%), 관양동 211호(18.0%), 비산동 168호





1980년대 평촌 부림동 일대

(14.3%) 순으로 확인되며, 이들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하여 농업인들이 다수 모여 살았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안양1동, 2동, 4동은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 수가 적어 농업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특히 안양1동과 안양2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채소 재배 비중이 각각 35.7%, 50.0%로 높게 나타나 각 동별로 특정 작물에 대한 재배 현상을 보였다.

한편 안양4동은 비록 그 수는 적지만(전체 4호) 모두 답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안양2동(28.6%)을 제외하고는 답작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이었다. 안양2동의 경우 답작 뿐만 아니라 과수(21.4%)와 채소(50.0%)를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양3동, 안양6동, 석수동, 박달동에는 축산에 종사하는 농가가 각각 16.9%, 17.1%, 12.1%, 16.5%로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농업 형태가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업태별 농가 호수(1973년 12월 기준)

단위: 호

지역	계	경종						축산	기타
		답작	전작	과수	채소	특용	원예		
안양1동	14	9	-	-	5	-	-	-	-
안양2동	14	4	-	3	7	-	-	-	-
안양3동	65	38	1	5	10	-	-	11	-
안양4동	4	4	-	-	-	-	-	-	-
안양5동	20	17	-	3	-	-	-	-	-
안양6동	105	65	-	4	7	1	-	18	10
비산동	168	121	16	2	4	2	5	10	8
관양동	211	174	31	1	2	1	1	1	-
평촌동	225	189	3	2	1	-	-	9	21
호계동	133	99	29	4	1	-	-	-	-
석수동	99	54	2	7	15	-	7	12	2
박달동	115	78	-	1	16	1	-	19	-
계	1,173	852	82	32	68	5	13	80	41

출처: 안양시, 『1973년 통계연보』, 1974.

다음으로 안양시의 미곡(쌀) 및 채소 생산량을 각 동별로 비교해 살펴보았다. 작물별 생산량 분포를 보면 미곡은 관양동 688.3톤, 평촌동 466.5톤으로 인근 다른 지역 대비



평촌에서 모내기 작업·민백마을 공동방제작업(1979, 안양농협 제공)

벼농사에 특화된 곳임을 알 수 있다. 무와 배추는 비산동(496톤, 559톤), 관양동(438톤, 510톤), 평촌동(423톤, 511톤), 박달동(402톤, 410톤)에서 주로 생산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오이는 석수동(249톤)과 박달동(285톤), 호박과 참외는 비산동(73톤, 40톤)과 석수동(61톤, 42톤), 박달동(61톤, 48톤)이 주된 생산지였다. 한편 안양1동, 2동, 4동, 5동은 미곡 및 채소 생산량이 없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은 당시 2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토지 용도가 이미 변경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미곡 및 채소 생산량(1973년 12월 기준)

단위 : 톤

지역	미곡 ⁷	무	배추	오이	호박	참외	가지	토마토	기타
안양1동	-	-	-	-	-	-	-	-	-
안양2동	2.8	61	44	30	12	17	-	29	15
안양3동	29.2	40	38	24	10	10	-	-	15
안양4동	-	-	-	-	-	-	-	-	-
안양5동	0.7	-	-	-	-	-	-	-	-
안양6동	73.8	83	107	40	24	27	13	15	11
비산동	290.3	496	559	120	73	40	13	70	45
관양동	688.3	438	510	125	58	40	26	57	63
평촌동	466.5	423	511	157	50	29	13	44	76
호계동	296.2	154	199	157	24	10	7	59	71
석수동	109.6	148	155	249	61	42	27	118	79
박달동	196.3	402	410	285	61	48	27	71	87
계	2,153.7	2,245	2,533	1,187	373	263	126	463	462

자료: 안양시, 『1973년 통계연보』, 1974.



안양 농가의 황소(1979, 안양농협 제공)

이어서 축산농가의 가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닭이 4만 1606마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돼지 2405마리, 오리 1532마리, 토끼 619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축산농가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았지만 일부 농가는 상당한 규모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박달동과 비산동, 관양동에서는 닭을 8000~1만

1000여 마리를 사육했다. 특히 비산동은 닭 사육에 특화된 지역으로 전체 9701마리 중 닭이 9165마리로 그 비중은 약 94.5%에 이른다. 반면 박달동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축산물(소, 돼지, 닭, 오리, 산양, 토끼)을 사육했던 것으로 나타나 안양지역의 축산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축산농가 가축 현황(1973년 12월 기준)

단위 : 마리 수

지역	계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산양	토끼	기타
안양1동	-	-	-	-	-	-	-	-	-
안양2동	118	6	5	107	-	-	-	-	-
안양3동	2,186	14	84	180	1,894	-	-	12	2
안양4동	-	-	-	-	-	-	-	-	-
안양5동	-	-	-	-	-	-	-	-	-
안양6동	5,558	12	12	184	5,350	-	-	-	-
비산동	9,701	61	38	306	9,165	-	-	53	78
관양동	9,692	60	56	436	8,594	500	-	45	1
평촌동	765	52	57	402	254	-	-	-	-
호계동	3,887	40	-	180	3,641	2	3	20	1
석수동	2,181	6	177	381	1,570	-	-	47	-
박달동	13,186	25	60	229	11,138	1,030	258	442	4
계	47,274	276	489	2,405	41,606	1,532	261	619	86

자료: 안양시, 『1973년 통계연보』, 1974.

형태별 농가수 및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안양시 내 각 동별로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양1동, 2동, 4동, 5동의 경우 전업인 농가수는 극히 적으며, 특히 안양5동의 경우 전업인 농가수 및 인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양6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석수동, 박달동은 전업인 농가수의 비율이 최소 82.7%에서 최대 97.4%까지 나타나 해당 지역이 1차 산업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1973년 당시 안양은 시 승격으로 인해 행정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도 재편되는 시점에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 동 간의 산업구조에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 형태별 농업가구(1973년 12월 기준)

단위: 호, 명

지역	농가수				농가인구			
	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안양1동	14	1	3	10	67	6	21	40
안양2동	14	3	11	-	99	24	75	-
안양3동	65	40	11	14	451	267	77	107
안양4동	4	1	-	3	27	5	-	22
안양5동	20	-	3	17	122	-	14	108
안양6동	105	100	5	-	565	531	34	-
비산동	168	139	29	-	1,023	856	167	-
관양동	211	172	20	19	1,266	1,068	86	112
평촌동	225	219	4	2	1,451	1,256	191	4
호계동	133	111	8	14	801	659	51	91
석수동	99	60	19	20	558	333	129	96
박달동	115	112	1	2	717	698	8	11
계	1,173	958	114	101	7,147	5,703	853	591

자료: 안양시, 『1973년 통계연보』, 1974.

연령별 농가인구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농가의 인구학적 분포를 예상해볼 수 있다. 당시 통계에 사용된 연령대 구분의 한계(등간척도가 아님)로 인하여 정밀한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0~14세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대략적으로 20~30% 내외였음을 알 수 있다. 근로 가능 연령대인 20~49세는 최소 31.9%에서 최대 41.8%로 전체 가구 구성원의 1/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60세 이상은 안양4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 내외의 낮은 비율이었다.

〈표 7〉 연령별 농가인구(1973년 12월 기준)

단위: 명

지역	계	0~14세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 이상
안양1동	67	17	10	26	9	5
안양2동	99	28	23	34	9	5
안양3동	451	137	78	173	34	29
안양4동	27	8	2	10	3	4
안양5동	122	23	24	40	26	9

지역	계	0~14세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 이상
안양6동	565	129	85	210	82	59
비산동	873	292	16	402	93	70
관양동	1,266	356	222	434	161	93
평촌동	1,451	425	327	463	138	98
호계동	801	214	172	293	62	60
석수동	558	164	65	233	39	57
박달동	717	241	128	252	60	36
계	6,997	2,034	1,302	2,570	716	525

자료: 안양시, 『1973년 통계연보』, 1974.

2. 공업단지의 형성과 제조업의 성장

안양지역 공업단지의 형성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20년대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자국의 경쟁에서 뒤처진 소규모 자본에 불과하였으나, 1930년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독점자본의 진입이 시작되었다. 특히 세계공황과 더불어 일본 내부의 산업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당시 조선으로 일본의 자본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식민지였던 조선과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으며, 특히 조선을 대상으로는 섬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자 면과 인견을 비롯한 섬유 제조기업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시흥군이었던 현 안양지역으로도 이러한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현재의 안양동에는 조선직물주식회사가, 석수동 인근에는 조선견직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조선직물주식회사는 다카이 효자부로(高井兵三郎)와 두산그룹 창업자인 박승진 등이 합작해 설립되었다. 1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조선직물은 1940년 자본금 전체를 모두 불입할 정도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만 주 의 주식과 133명의 주주가 참여했다. 이들 방직회사는 1950년대 안양지역이 방직 부문으로 특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1945년 해방 이후 일제가 철수하고 투자에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의 공업에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안양지역 내 기업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기술력 부족이라는 제약



1960년대 금성방직

조건 아래서 안양지역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성장⁸하게 되었다. 광복 직후 설립된 안양 직물공장(351여 평의 면적에 종업원 36명으로 출발), 1946년 설립되어 1949년 안양공장을 준공한 제일방직(당시 1만여 평의 면적에 종업원 87명으로 출발, 이후 금성방직에 인수), 조선직물주식회사를 일부 인수하여 1948년 설립된 금성방직(5600여 평의 면적에 종업원 138명으로 출발), 그리고 1950년대에는 방직회사 간 합병에 의하여 태평방직이 등장했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안양지역의 섬유산업은 1960년대 들어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1970년대를 끝으로 안양의 섬유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전문성을 특화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안양지역의 섬유산업은 대구 지역으로 옮겨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패션산업 등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당시의 안양지역은 본격적으로 2차산업 중심의 공업화 과정으로 나아갔다. 한국 정부는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국가 시책은 당시의 산업계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쳤다. 업종별로 생산수준을 살펴보면 1949년대비 섬유공업은 18.6%, 제지공업은 20.9%, 화학공업은 52.2%, 금속공업은 60.3%, 전기기기공업은 20.9% 등 가파른 상승세로 회복했다. 특히 안양읍은 서울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의 공장이 다수 입지함에 따라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한 수혜를 받은 지역이었다.⁹ 당시 안양은 일제강점기 및 광복 이후부터 특화산업으로 이어오던 직물과 섬유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했으며, 특히 전후 피해를 입은 공장부지를 재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존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안양읍의 산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던 시기¹⁰이다. 서울과 안양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들이 확충되었으며, 이는 농산물의 유통은 물론 제조업 부문의 생산품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특히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맞물려 안양읍은 경기도의 주요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54년부터 1961년까지 대한민국 제조업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이 11.5%에 달했음에도 제조업의 73.7%가 경공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고도화된 산업구조의 개편을 요구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고자 안양지역에는 제약산업, 식품산업, 중화학공업, 전기·전자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 기반 기업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¹¹ 대표적으로 1966년 4월에는 금성사가 안양읍 호계리 일대에 4100평 면적의 공장을 건립하는 등 본격적인 전기·전자 부문 업종이 발달하게 된다. 물론 동 시기에는 여전히 수입대체산업으로 경공업인 섬유 및 제지 산업도 활발하게 성장했는데, 앞서 언급했던 금성방직이나 태평방직은 물론 한국특수제지(1960년) 같은 부문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안양은 제약 및 식품산업이 급성장했던 시기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0%에 가까운 고도성장의 시기였는데, 이는 수입대체산업(섬유, 시멘트, 정유 등)과 경공업 제품의 수출로 인한 증가세였다. 특히 안양이 속해 있는 경기도는 서울은 물론 인천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제조업 기반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척되었다. 1963년 경기도의 제조업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8.8%였으나, 1971년에는 9.9%까지 성장했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0.2%에서 13.3%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섬유·의복·가죽, 조립금속·기계 및 장비, 가구·목재·인쇄, 음식료품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문화재단, 2011) 당시 안양읍에 입지해 있던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서 안양지역의 역할이 실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양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수입대체산업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수입에 의존해오던 원재료 생산까지 하는 노력을 꾀했다. 대표적으로 제약 부문과 전기·전자 산업의 발달은



1970년대 안양4동 고려석면 일대(현 2001아울렛 부지)

안양읍의 경제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했는데, 이후 현재의 안양시가 되기까지 기반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의 유유산업, 동아제약, 동화약품, 금성통신을 비롯한 다수의 전기·전자 기업들의 활동은 전통적인 1차산업 기반의 경제구조로부터 탈피하게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안양지역은 섬유산업의 쇠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반면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었다. 1970년 당시 한국은 제1차 석유파동과 이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한국의 전체 경제성장률이 10.2%라는 엄청난 급성장을 했으며, 제조업 역시 연평균 18.8% 성장하는 등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후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당시에도 고물가와 임금 상승이라는 악조건에서도 제조업이 12.7% 성장했으며, 특히 기존의 경공업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졌다. 1981년에는 전체 공산품 수출 중 중화학공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3%에 달했다. 안양지역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을 살펴보면 대한오브세트잉크(현

노루포페인트), 락희화학공업사가 있다. 창립 당시의 기업은 중화학 기반의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화장품이나 인쇄용 잉크를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1960~1970년대에 안양에 공장을 준공하며 본격적인 화학 기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락희화학공업사 전경(안양상업보, 1974)



노루포페인트 일대(1976)

한편 1970년대의 안양은 식품산업도 크게 발달했다. 1969년 한국야쿠르트 창업 및 1971년 안양공장 준공, 1972년에는 오뚜기의 안양공장 준공, 1973년에는 현 동아오츠카의 전신인 동아식품이, 1976년에는 농심(1983년에 안양 라면공장 증축), 1975년에는 해태제과 생산시설이 준공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의 한국은 정부의 제조업 집중화 정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산업지역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서울로의 인구 집중 및 환경문제로 인해 인근의 안양이 산업거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지리적으로도 1974년에 개통된 1호선 전철과 인근 인프라(경부선 철도 등)는 안양의 물류 접근성 역시 향상시키는 데 큰 몫을 했으며, 사회적으로도 당시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농촌인구의 상당수가 도시로 유입된 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또한 1973년에 안양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본격적인 도시개발이 시작되었고, 이는 공장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었다.

이어지는 다음의 표는 197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안양읍 내 기업체 명단이다.¹² 1972년 6월 당시의 안양읍 내 기업체 수는 총 64개로 확인되나, 당시 안양읍을 기반으로 한 모든 기업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사일인 1972년 이전에 이미 폐업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된 조선직물, 조선견직 등과 같은 정



안양 방직공장 여성 근로자(1970년대)

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조사일 이전 안양이 아닌 타 지역에서 기업을 설립한 후 조사일 이후 안양으로 공장 등을 이전한 기업 역시 원천적으로 포함될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해태제과는 1945년 설립하여 1975년 안양에 공장을 준공했으며, 제일모직 역시 1954년 설립, 1977년 안양공장을 준공했다. 이 외에도 쌍용제지(1976년 안양공장 준공), 오투기(1972년 안양공장 준공), 동화약품(1972년 안양공장 준공), 농심(1976년 안양공장 준공), 동아식품(1973년 안양공장 준공)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당시의 안양읍 내 기업체의 분포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업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지와 화학업종이 각각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섬유업종이 11개로 나타났다. 반면 금속, 제약, 위생용품 업종은 5개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1970년대는 섬유업이 쇠퇴하고 식품 및 전기·전자 업종이 부흥하는 전환의 시기였는데, 안양읍 역시 상당한 격변을 맞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가장 많은 종업원을 고용한 곳은 1948년 창립한 금성방직(주)이었다. 남성 305명, 여성 1481명으로 전체 1786명으로 확인된다. 금성방직(주)은 면사를 주 생산품으로 하는 기업으로 당시 안양읍 안양리 872에 위치해 있었다. 이어서 금성통신(주)이 1480명, 태평방직(주)이 1388

명, 태흥무역(주)이 718명, 현대양행(주) 615명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업별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당시 안양읍은 공업도시로 발전함에 따라 매우 많은 수의 여공이 유입되었는데, 대부분 섬유업종에 종사했다.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종업원이 가장 많았던 금성방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4.86배나 많았다. 태평방직 역시 여성의 비율이 3.74배 높았다. 남녀 성비 격차가 가장 높았던 기업은 블라우스 등을 제작하는 태흥무역으로 남성이 64명, 여성이 654명으로 무려 여성의 비율이 10.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약으로 성공한 동아제약(주)의 성비는 여성이 남성보다 8.8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9〉 안양읍 내 기업체 명부(설립일 순, 1972년 6월 기준)

업종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주 생산품	종업원 (전체)	남성	여성	성비
제지	삼덕제지(주)	전재준	안양읍 안양리 782	1941.5	마니라지	262	141	121	1 : 0.86
제지	삼영하드보드공업(주)	김현갑	안양읍 안양리 774	1946.10	하드보드	276	242	34	1 : 0.14
섬유	금성방직(주)	박용학	안양읍 안양리 872	1948.10	면사, 면포	1786	305	1481	1 : 4.85
섬유	태평방직(주)	박용학	안양읍 안양리 872	1953.11	아마사	1388	293	1095	1 : 3.74
제지	경남제지(주)	이극로	안양읍 호계리 615	1956.1	크라프트지	165	139	26	1 : 0.19
제지	한국제지(주)	서원영	안양읍 안양리 90-1	1958.2	백상지	474	354	120	1 : 0.34
섬유	삼아제면공업사	김오현	안양읍 박달리 614-9	1958.11	이불솜	60	17	43	1 : 2.53
제약	유유산업(주)	유희한	안양읍 신안양리 212	1959.5	제약(비타엠)	229	80	149	1 : 1.86
축산	시흥군축산협동조합	윤재풍	안양읍 안양리 432	1959.8	배합사료	12	11	1	1 : 0.09
섬유	동국실업(주)	박재을	안양읍 신안양리 165-6	1959.12	스트레치, 나이론사	94	28	66	1 : 2.36
위생	동국물산(주)	임명근	안양읍 박달리 158	1960.8	콘돔	196	35	161	1 : 4.60
화학	대륙석면고무공업(주)	이상대	안양읍 안양리 826	1962.1	박킹, 고무호수	159	109	50	1 : 0.46
금속	삼진알미늄(주)	박태원	안양읍 안양리 762-5	1962.6	은박지	98	85	13	1 : 0.15
제지	삼양팔프(주)	양치익	안양읍 안양리 26	1963.3	마니라보드지	173	103	70	1 : 0.68
제지	대원기업사	장경환	안양읍 비산리 478	1963.11	방직각종지	56	15	41	1 : 2.73
화학	삼흥유지공업(주)	정경태	안양읍 신안양리 477	1963.12	고형세탁비누	200	171	29	1 : 0.17
섬유	동양나이론(주)	조석래	안양읍 호계리 183	1964.7	나이론사	600	389	211	1 : 0.54
화학	성신농약(주)	신동일	안양읍 박달리 157	1964.12	농약(지오탄)	136	34	102	1 : 3.00
제지	공화휠터공업	조성근	안양읍 안양리 603	1965.1	화장지	37	25	12	1 : 0.48
기계	현대양행(주)	정인영	안양읍 박달리 120	1965.4	자동차 부속	615	561	54	1 : 0.10

업종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주 생산품	종업원 (전체)	남성	여성	성비
전자	동공업(주)	김경애	안양읍 안양리 32-1	1965.9	X-마스전구	55	35	20	1 : 0.57
제지	삼진팔프(주)	박태원	안양읍 박달리 111	1966.5	팔프지류	57	57	0	1 : 0.00
섬유	삼봉섬유공업(주)	김삼석	안양읍 안양리 246	1966.6	양복	513	90	423	1 : 4.70
화학	덕성화학공업	이희덕	안양읍 안양리 271	1966.11	합성피혁	92	40	52	1 : 1.30
섬유	일신섬유공업사	이응두	안양읍 신안양리 290	1967.2	화봉사	36	7	29	1 : 4.14
전자	금성전선(주)	허준구	안양읍 호계리 555	1967.6	케이블선	532	457	75	1 : 0.16
화학	락희화학(주)	박승찬	안양읍 호계리 593	1967.11	합성세제	323	125	198	1 : 1.58
식품품	유림유지공업사	이홍순	안양읍 안양리 361	1968.1	미강유	15	14	1	1 : 0.07
식품품	오리온식품공업(주)	박연서	안양읍 안양리 223	1968.2	쏘세지	75	33	42	1 : 1.27
제지	영창가공지(주)	조능환	안양읍 호계리 620-1	1968.3	방수지	39	37	2	1 : 0.05
가공	문화제재소	이도호	안양읍 안양리 670-1	1968.4	육송	6	5	1	1 : 0.20
제지	중앙제지(주)	유근실	안양읍 호계리 596	1968.6	로-루지	38	29	9	1 : 0.31
화학	중앙유리공업(주)	김진석	안양읍 박달리	1968.7	병	160	132	28	1 : 0.21
제지	창도제지공업사	이명백	안양읍 호계리 56-11	1968.10	포장지	41	31	10	1 : 0.32
기타	대형지공(주)	정재진	안양읍 박달리 681	1969.5	지대	51	32	19	1 : 0.59
화학	세광유지화학공업사	이풍직	안양읍 호계리	1969.5	구리세련, 규산소다	22	21	1	1 : 0.05
화학	동아공업(주)	성순택	안양읍 안양리 130	1969.5	푸라스틱	23	17	6	1 : 0.35
화학	영등포화학공업사	최준화	안양읍 신안양리 41	1969.6	부칠	3	3	0	1 : 0.00
제지	동일방직(주)	서정익	안양읍 이동리1	1969.6	통사, 재봉사	536	117	419	1 : 3.58
금속	삼아알미늄(주)	한상구	안양읍 박달리 111-2	1969.6	알미늄박	98	83	15	1 : 0.18
섬유	태흥무역(주)	권태홍	안양읍 안양리 259-1	1969.9	부라우스	718	64	654	1 : 10.22
기타	안양단미료사료공장	박만규	안양읍 호계리 95-2	1969.12	유지	13	13	0	1 : 0.00
화학	지구유지공업사	이윤재	안양읍 호계리 215-3	1970.4	세탁비누	7	7	0	1 : 0.00
기계	혜인중기(주)	원용석	안양읍 안양리 383	1970.7	중기부속재생	30	30	0	1 : 0.00
식품품	미주산업사	최형	안양읍 안양리 698	1970.9	커피	13	8	5	1 : 0.63
금속	중앙금속공업	권병주	안양읍 중앙동 644	1970.12	아연과	11	11	0	1 : 0.00
기계	경용산업	김현수	안양읍 안양리 169	1971.1	주물	157	149	8	1 : 0.05
전자	금성통신(주)	윤옥현	안양읍 호계리 600	1971.4	교환기	1480	802	678	1 : 0.85
화학	한국파라핀	오한신	안양읍 호계리 437-1	1971.4	스왑엑스	51	49	2	1 : 0.04
제지	안양단푸라에이스	윤우동	안양읍 일동리 954-2	1971.4	포장용기	22	19	3	1 : 0.16

업종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주 생산품	종업원 (전체)	남성	여성	성비
식료품	대원식품	서석인	안양읍 박달리 23	1971.6	쓰세이지	5	2	3	1:1.50
전자	수다전자산업(주)	최석영	안양읍 안양리 247	1971.6	녹음기	146	27	119	1:4.41
화학	월계유지공업사	이풍직	안양읍 호계리 94	1971.6	세탁비누	7	7	0	1:0.00
기계	삼성아세치렌공업(주)	김경수	안양읍	1971.6	아세치렌	12	11	1	1:0.09
섬유	삼협무역(주)	박근조	안양읍 박달리 613-7	1971.7	합성수지	41	32	9	1:0.28
식료품	한만식품공업(주)	이두만	안양읍 안양리 311	1971.12	식포	51	18	33	1:1.83
화학	영림화학공업(주)	박산목	안양읍 이동리 862	1971.12	방첩지	7	6	1	1:0.17
섬유	서울섬유공업(주)	이남규	안양읍 안양리 813	1971.12	화학섬유	22	7	15	1:2.14
섬유	효성농장(주)	안재효	안양읍 박달리	1972.1	장갑	26	6	20	1:3.33
사무	영림상사	김영권	안양읍 신안양리	1972.2	사무용품	25	24	1	1:0.04
화학	진양화학연구소	김직태	안양읍 비산리 452	1972.2	동상	8	7	1	1:0.14
제지	안양갈모공업사	이원형	안양읍 안양리 105	1972.4	갈포벽지	43	43	0	1:0.00
제약	동아제약(주)	강중희	안양읍 신안양리 40	1972.4	박카스D	147	15	132	1:8.80
기계	정안산업	이호철	안양읍 안양리 636-7	1972.5	부레이크	24	23	1	1:0.04

이여지는 분석은 앞서 언급한 개별 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지 및 화학 업종의 경우 기업 수가 각 1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노동자 수의 평균을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553.3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유가 480.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안양읍 내 업종별 전체 노동자 수를 살펴보면 섬유 업종이 5248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제지 2219명, 전기전자 2213명, 화학 1198명 순으로 확인된다. 업종별 성비를 분석하면 당시 안양을 비롯한 공업도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가장 극단적인 업종¹³으로 섬유 부문의 경우 남성 1명당 여성이 3.27명으로 나타나 극단적인 성비를 보여준다. 이어서 제약 역시 남성 1인당 여성 2.96명으로 나타났다.

〈표 10〉 1972년 안양읍 소재 기업의 수, 평균 노동자 수, 합계 노동자 수

업종	업종별 기업 수	업종별 노동자수 평균(명)	업종별 노동자 합계(명)			
			남성	여성	성비	
제지	14	158.5	2,219	1,352	867	1 : 0.64
화학	14	85.6	1,198	728	470	1 : 0.65
섬유	11	480.4	5,284	1,238	4,046	1 : 3.27
기계	5	167.6	838	774	64	1 : 0.08
식료품	5	31.8	159	75	84	1 : 1.12
전기전자	4	553.3	2,213	1,321	892	1 : 0.68
금속	3	69.0	207	179	28	1 : 0.16
제약	2	188	376	95	281	1 : 2.96
사무용품	1	25.0	25	24	1	1 : 0.04
제재가공	1	6.0	6	5	1	1 : 0.20
축산	1	12.0	12	11	1	1 : 0.09
위생용품	1	196.0	196	35	161	1 : 4.60
기타	2	32.0	64	45	19	1 : 0.42
계	64	154.25	12,797	5,882	6,915	1 : 1.18

출처: 시흥군 기업체 통계자료(1972)를 이용하여 재구성

3. 연도별 제조업, 지역내총생산 변화 추이

앞선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1970~1980년대까지의 안양시 산업부문 성장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안양시의 대표적인 산업부문인 제조업과 지역내총생산(GRDP)에 집중하여 최근까지의 경향성, 그리고 이를 통한 제조업 부문의 진단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통계자료의 분석 범위는 기존 작성된 『안양시사』(2008)의 자료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가장 최근의 자료까지 포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년간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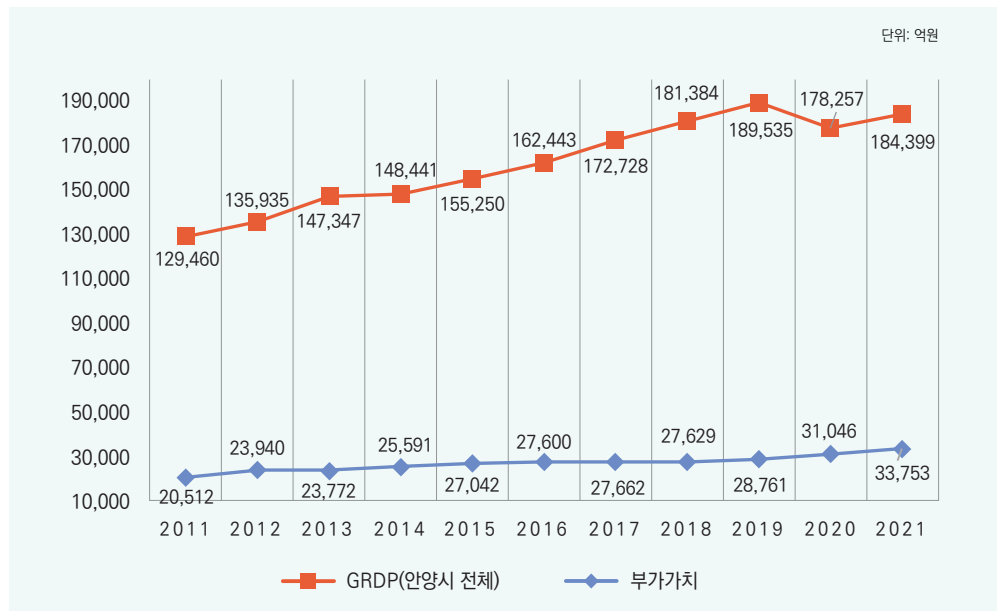
안양시의 지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2011년 12만 9460억원에서 2021년 18만 4399억원으로 약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안양시 내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인 IT 및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동안구 및 만안구에 위치한 산업단지

〈표 11〉 안양시 제조업 부문 통계

단위: 억원, %, 개, 명

연도	안양시 GRDP(A)	제조업 부문(B)	비율 (B/A)	사업체 (개)	종사자 (명)	급여액	출하액	부가가치	종사자 1인당		
									급여액	출하액	부가가치
2011	129,460	21,611	16.7	728	22,453	6,166	60,141	20,512	0.275	2.679	0.914
2012	135,935	24,257	17.8	767	24,002	6,840	65,578	23,940	0.285	2.732	0.997
2013	147,347	26,287	17.8	730	23,671	6,960	66,410	23,772	0.294	2.806	1.004
2014	148,441	26,929	18.1	750	23,466	7,355	67,409	25,591	0.313	2.873	1.091
2015	155,250	26,359	17.0	712	23,479	7,745	64,922	27,042	0.330	2.765	1.152
2016	162,443	27,917	17.2	734	24,095	8,030	66,210	27,600	0.333	2.748	1.145
2017	172,728	29,817	17.3	694	23,258	8,432	68,787	27,662	0.363	2.958	1.189
2018	181,384	28,931	16.0	690	22,851	8,280	67,247	27,629	0.362	2.943	1.209
2019	189,535	29,269	15.4	710	23,313	8,940	70,224	28,761	0.383	3.012	1.234
2020	178,257	31,313	17.6	710	23,462	9,393	72,983	31,046	0.400	3.111	1.323
2021	184,399	31,402	17.0	689	22,309	9,111	77,700	33,753	0.408	3.483	1.513

출처: 각 연도별 안양시 통계연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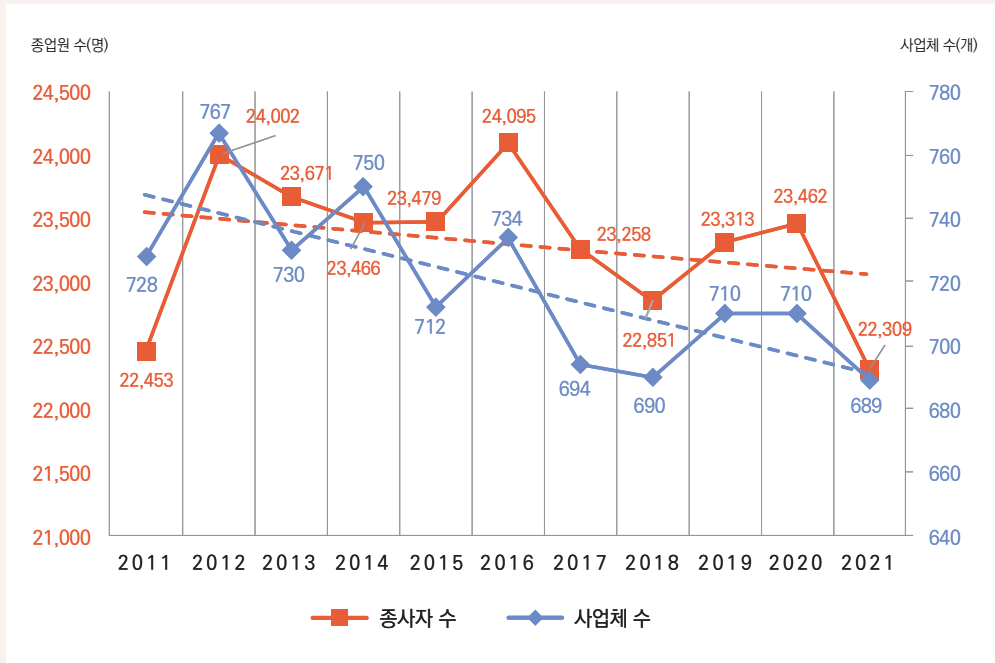
안양시의 연도별 GRDP와 부가가치

들의 대부분은 정보통신기술 및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가 위치하며, 이들의 성장이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를 이끌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 부문의 지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2011년 2만 1611억원에서 2021년 3만 1402억원으로 약 4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안양시 전체의 GRDP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에 16.7%에서 2014년 18.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5%에서 17% 내외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조업이 여전히 안양시의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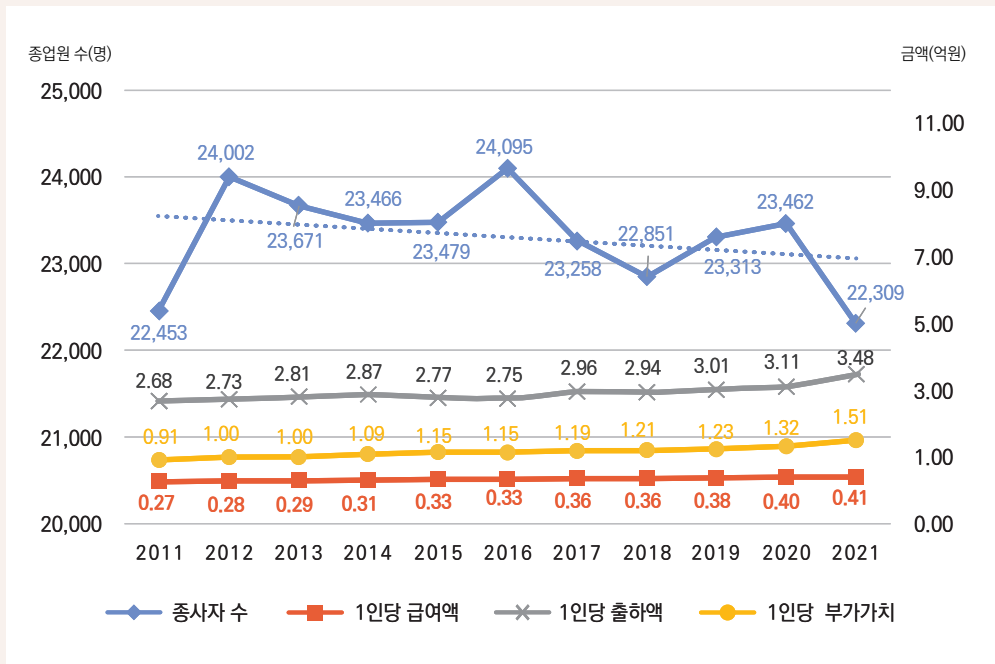
한편 안양시 전체의 GRDP와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간 관계를 살펴보면 연도별 증가 양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치가 안양시 전체의 GRDP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양시의 제조업 부문 생산효율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부가가치 상승), 이는 안양시 제조업 부문 기업들의 생산 과정 효율화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의 최종 생산물에 대하여 최종 소비자들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높은 매출과 이익을 거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역내총생산과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동반 상승은 안양시 내 제조업 부문의 기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실제 이후의 표와 그림에서 언급하겠지만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임금 수준 향상, 출하액 증가 등은 제조업 부문의 기업이 안양 발전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728개, 종사자는 2만 2453명으로 확인된다. 2016년에는 사업체 수가 734개, 종사자 수는 2만 4095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그 이후 2021년에는 사업체 수 689개, 종사자 수 2만 2309명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¹⁴. 사실상 2011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소폭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안양시의 제조업 부문 GR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각 연도별 부가가치¹⁵ 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역시 상승세로 확인(2011년 0.914에서 2021년 1.513으로 증가)된다.

한편 제조업 부문의 급여액과 출하액을 비교해보면 안양지역 내 제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 추이를 예상해볼 수 있다. 2011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제조업 부문의 급여액은 6166억원에서 9111억원으로 약 47.7% 증가한 반면, 출하액은 6041억원에서 7만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 수(명) 및 사업체 수(개)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 수 및 1인당 급여액, 출하액, 부가가치

7700억원으로 약 29.2% 증가했다. 종사자 1인당으로 비교할 경우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 절대적 수치는 두 지표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급여액의 증가율이 출하액의 증가율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임금 상승, 정규직화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 등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제품 생산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 1 일제강점기 시절 안양지역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서면·동면·서이면으로 개편되었으며, 1941년에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49년 광복절에 대통령령 제162호로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63년 1월 「시·군 관할구역 변경 및 면의 폐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흥군 동면 안양리와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에 편제되었다. 이후 1973년 3월 12일 「시 설치와 군의 폐지 분합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 안양읍은 안양시로 승격되었다.
- 2 시흥군, 『1971년 통계연보』, 1972.
- 3 안양시 승격 이전인 1960년대의 시대상을 살펴볼 만한 자료는 많지 않는데, 안용승, 2020, 『안양문화원 50년사』, 「그때 그 시절, 안양의 산업」에서 일부나마 과거를 엿볼 수 있다.
- 4 2018년 이후 안양시의 1차 산업 사업체 수는 2~5개 내외로 확인되며, 종사자 수도 3~18명 안팎으로 사실상 안양시 내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5 안양시, 『2022년 통계연보』, 2023.
- 6 안양시의 1990년대 이후 1차산업 구조는 『안양시사』(2008)의 제3편 중 제2장 농축산업 파트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찾아볼 수 있다.
- 7 논에서 재배되는 수도(paddy rice)는 2151톤, 밭에서 재배되는 옥도(upland rice)는 2.6톤으로 확인되며, 안양지역의 경우 풍부한 농업용수를 이용한 수도가 주된 재배 방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8 시흥군의 금천지(1950) 자료에 따르면 안양직물공장(1945), 조선견직주식회사(1945), 삼덕제지(1945), 고려석면고무공업(1945), 삼길양산제조소(1945), 제일방직(1946), 낙랑실업공사(1946), 남해산업공사(1947), 금성방직(1948), 조선특수자기(1948), 삼신제도공업사(1949) 등 14개의 기업이 설립되었다. 당시 전체 기업에 속한 종업원 수는 1068명으로 안양 지역의 산업화가 상당히 발전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 9 『안양시사』, 2008; 경기문화재단, 2011.
- 10 본격적인 교통 인프라의 건설은 1970년대로 볼 수 있다. 1950년대 경부선 개통 이후 대규모로 제조업이 입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교통(수송) 문제를 해결하고자 1970년대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했다.
- 11 시기적으로 제약산업의 본격적인 활동은 1960년대 무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안양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기업)의 설립 연도를 살펴보면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최초 설립 당시 무역회사, 도매거래상 등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며, 정부의 산업 정책에 따라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개발해 왔다.
- 12 자료에 따라 설립일, 종업원 수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시흥군 기업체 통계자료(1972) 및 안양도시계획재정비 기본조사자료(1972)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당시의 기업체명이나 주 생산품은 원문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기업체명이나 대표자 정보가 오류가 있을 경우만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유우산업은 유우산업으로, 유혹한은 유독한으로 수정하여 작성했다. 반면 쓰세이지, 부레이크 등은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다. 또한 군포, 의왕 등 당시 안양읍에 위치하지 않던 안양공장으로 준공한 경우가 많아 본문에는 전체 문맥상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13 위생용품을 생산하던 기업은 당시 동국물산 한 곳밖에 없으므로 업종별 비교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기업 한 곳의 수치가 업종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14 시계열 분석 결과, 종사자 수는 한 해씩 증가함에 따라 약 49명이 감소하며, 사업체 수는 5.6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 부가가치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를 의미한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총 판매액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등 중간 생산물의 투입액을 공제한 순생산액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부가가치는 기업활동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2장

안양의 섬유산업과 제지산업



박천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1. 조선직물주식회사

조선직물주식회사는 1932년 11월, 일본인인 다카이 효자부로(高井兵三郎) 등에 의해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872-1번지인 안양역 인근(현재의 안양3동)에 설립되었다. 조선직물은 운영 초기에 주로 일본인들에 의해 경영되었고, 당시 두산그룹의 창업자인 박승직은 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며 인견 직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직물이 창립된 것이었다.

공장부지는 당시 대지주였던 일본인의 기부를 받아 준공되었으며, 이후 섬유류 가격이 상승하자 1940년대 말까지 안양에는 금성방직, 안양직물, 제일방직 등 섬유산업 관련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다. 1934년에 당시 100만원의 자본금 중에서 37만 3750원을 불입하였고, 1938년에는 79만 1250원을 불입하였다. 2만주의 주식과 133명의 주주가 참여하였으며, 1940년에 자본금 100만원을 모두 불입할 정도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부지는 약 2만평의 대지에 건평 7천평, 직기 168대에 염색 설비까지 보유할 정도의 규모였던 것으로 확인된다.¹

조선직물은 광복을 앞둔 1944년 동양방직주식회사와 함께 비행기 제조를 위한 생산



조선직물 설립 관련 기사(『동아일보』, 1932년 8월13일)



조선직물주식회사 조감도

공장으로 조선비행기주식회사에 징발되어 비행기 제작에 활용되는 등 한민족의 아픔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일제 패망 이후에는 다시 원 기업체로 환원하였으나, 비행공장 건설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계는 자매회사로 분산되었고, 건물구조도 개조되어 있

었다. 공장장 장배근 이하 직원 300여명이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원료비 상승으로 인한 자금난 등의 악조건으로 인해 해방 전 대비 1/10만을 생산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1948년 금성방직 김성곤에게 일부 불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금성방직 확장에 따른 조선직물의 기계 분산²등의 마찰이 있었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공장이 폐허가 되면서 이후 재건된 금성방직에 의해 완전 인수되었다.

2. 금성방직

금성방직은 기업가 김성곤에 의해 창립된 방직회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직물주식회사를 일부 불하받아 출발³하였으며, 안양공장의 공사비로 3000여 만원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안양공장의 건설은 1948년 8월 기공식을 하고, 1949년 3월 10일 준공했다. 1950년 기준 공장 면적은 5600평에 종업원 138명으로, 위치는 안양리 872번지 현재의 대농단지 일대에 자리했다.

경부선 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전용 선로를 갖추고 있었다. 이 철도망은 안양역에서 시작되어 수암천을 따라 공장 내부까지 이어졌고, 내부에는 별도의 화물 열차 선로가 구축되어 대량의 원료와 제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류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 경제에서 섬유산업은 수출을 견인하고 내수시장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반 산업으로 평가받았으며, 금성방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안양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시설로



1960년대 금성방직과 내부시설

성장하게 된다.⁴

당시의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국회부의장,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등 섬유산업에 상당히 높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금성방직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기존 시설(조선직물주식회사가 있었던 부지의 일부인 약 3000여 평이 잿더미가 되어버리자 1954년 이를 다시 복구⁵한 바 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막 끝난 시점이라 섬유(의류)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그 결과 1956년에는 인근의 태평방직까지 인수하게 되었다. 1950~1960년대에는 근무하는 여공의 수가 3000여 명에 달해 삼천궁녀가 사는 곳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한때는 안양 경제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던 주요 공장이었다. 또한 국내에 몇 없는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어,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곳에서 연습하고, 1963년에는 금성방직 축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은 1967년 12월 쌍용양회의 대단위 동해공장 건설을 위해 창립 20년 만에 당시의 대한농산주식회사⁶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후 1980년대 전후로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노동 비용 상승, 해외 저가 섬유 제품의 대량 유입, 그리고 정부의 중화학공업 집중 육성정책으로 인해 섬유산업의 위상은 점차 축소되었다. 금성방직을 비롯한 국내 방직공장들은 경쟁력을 잃고 경영난에 직면했고, 결국 문을 닫는 곳이 속출했다. 금성방직 공장 역시 이런 변화 속에서 가동을 중단했고, 이후 철거되었으며 그 자리는 현재 대농단지⁷로 재개발되어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과거 노동자들의 일터였던 공간은 이제 시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바뀌었고, 이는 안양이 산업 중심지에서 현대적인 복합 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3. 태평방직

태평방직은 1953년, 자본금 1억 환으로 삼흥방직이라는 이름 아래 안양읍 안양리 97번지 일대에 설립되었다. 방기 1만 추와 직기 50대를 갖춘 이 공장은 1954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으나, 창업 초기 자금난에 시달리다 1956년 5월 15일 금성방직에 인수되며 ‘태평방직’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철거되기까지 수십 년간 안양 방직산업의 한 축으로 기능하며 지역 경제와 고용에 기여했다.

공장이 위치한 안양1동 시대동 일대, 현재의 안양역푸르지오더샵아파트(전 진흥아파트)

부지는 안양천과 인접하고, 경부선 철도 및 주요 도로망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지녔다. 이는 원자재 수급과 제품 유통에서 탁월한 입지를 제공했으며, 이러한 교통 조건은 방직산업을 기반으로 한 안양의 산업 도시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60년대 태평방직

태평방직은 해방 이후 전쟁의 혼란을 지나며 국가 기

간산업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1960~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안양의 대표적인 제조업 기반 시설로 부상했다. 면직물과 직물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전국적 유통망을 구축했으며, 많은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지역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을 견인했다. 당시 방직산업은 단순한 산업 생산을 넘어 지역사회의 고용, 교육, 주거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도시 생태계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도심 재개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태평방직 공장은 결국 폐쇄 및 철거되었다. 이후 대규모 주거단지로 계획되어, 아파트,



상업시설, 생활 편의 인프라가 들어서며 도시 기능은 점차 생산 중심에서 소비·거주 중심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태평방직 공장의 흥망은 안양이라는 도시가 겪어온 산업화와 도시화, 재편성의 흐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4. 동양나이론

동양나이론 이전 현 부지에 1964년 7월 한일나이론 안양공장이 약 9만 3000여 평 부지에 준공되었다. 한편 동양나이론의 전신은 1957년 조흥제가 설립한 효성물산(주)로, 1966년에 동양나이론주식회사로 법인설립을 완료했다. 1968년 7월 울산공장을 준공하며, 화학섬유 제조업에 첫발을 내디뎠고, 같은 해 '토프론'이라는 상표를 출시했다. 1970년 당시 조석래 사장의 건의에 따라 동양나이론과 한일나이론을 합병하여 연간생산량 1만 톤을 돌파했다. 1980년에는 당시의 안양공장이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었고, 1982년 10월에는 안양 티타니아 공장을 준공했다. 1991년에는 안양 스판덱스 공장을 착공하여 1992년 3월 준공했다. 동양나이론은 당시의 기업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내 직업훈련소를 두는 등 인적자원 훈련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3년 본사를 공덕동으로 이전했고,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1996년에는 사명을 효성T&C로 변경했다. 1998년 IMF로 섬유산업이 하락하자 (주)효성으로 통합되어 3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안양공장이 위치한 뒤쪽으로 약 1만㎡ 넓이의 진달래 동산이 있어 시민들에게는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곳이었다. 당시 안양공장 근로자들이 기숙사를 개방하며 시작된 진달래 축제는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안양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었다. 매해 꾸준히 진행되었던 이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2025년 기준 지역주민들에게 오랜만에 개장하였다.

현재 (주)효성은 섬유화학과 전자소재, 신소재 산업용 원사 분야 R&D를 통해 스판덱스 등 글로벌 1위 제품과 탄소섬유, 아라미드 첨단소재를 개발했다. 나아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추출 기술을 개발하고 설비를 국산화함으로써 섬유 부문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⁷



1970년대 동양나이론 전경



동양나이론 진달래동산(1984)

5. 삼풍섬유

삼풍섬유공업은 1966년 김삼석이 안양읍 안양리 246번지에 설립한 섬유 부문 전문 업체로 안양과 용인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 신사복을 생산했다. 1976년 (주)삼풍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77년에는 자체 브랜드인 캠브리지를 출범하여 내수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구축했다. 당시 삼풍이 수상한 내역을 살펴보면 1975년 수출의 날에 수출유공 대통령 표창, 1978년 동탑산업훈장, 1983년 대통령 포장 새마을훈장협동장, 1986년 대통령 포장 은탑산업훈장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후 미국 사이판과 뉴욕 브로드웨이에도 진출하는 등 한국 패션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맡아왔다. 당시 삼풍의 안양공장 내에는 부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배움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당시의 복지 수준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이었다. 1980년대에는 신사복 단일품목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로 생산제품 전량을 수출했으며, 고가품인 양모 제품의 대미 쿼터량은 국내 전체의 35%를 점유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⁸ 이후 (주)삼풍과 (주)캠브리지멤버스는 2007년 코오롱으로 매각되었다.



(주)삼풍(1987)



1979년 캠브리지 신문 광고(『연세춘추』, 1979년 3월 26일)

그러나 이와 같은 섬유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수반되어 있었다. 1975년 무렵 삼풍섬유에는 종업원이 1700여 명 근무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이었는데, 종업원에 대한 휴가나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⁹ 임금 수준 역시 10시간 근무에 초임이 일당 300원, 2년 이상 숙련공의 경우 일당 460~480원의 저임금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1975년 당시 섬유노조는 전체 종업원 중 418명을 동원하여 삼풍섬유 노조를 결성했고, 회사 측은 간부를 동원하여 노조에서 배부한 가입 각서를 압수하거나,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에야 외출을 허락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확인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회사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역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근거 없이 기각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삼풍섬유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동양나이론, 유유산업, 동일방직 등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6. 삼영하드보드

삼영하드보드와 안양지역의 인연은 일제강점기의 내하목재(다이까목사이)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 직후 일본인인 공장주가 떠나가자 공장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조선인들도 모두 신변의 안전 등을 이유로 자리를 피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1946년 스스로 공장을 가동하



삼영하드보드 기공식(국가기록원 제공)



1960년대 삼영하드보드(변원신 제공)

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상호를 삼영하드보드로 정하고 본격적인 하드보드 생산을 위해 현 안양3동 인근에 1959년 기공식, 1961년 준공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의 주요 생산 품목은 화목과 폐목을 이용한 천장·바닥용 하드보드였으며, 하루에 약 22톤 규모를 생산할 만큼 상당한 규모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삼영하드보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사진 자료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신문기사에 수록된 삼영하드보드의 기업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매일경제」1969년 4월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당시 을지로 건축자재상가에서 하드보드(1분×4×8)가 1매당 720원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동년 1월에는 71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삼영하드보드의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도매상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한편 삼영하드보드는 1975년에

160만 달러의 대미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1976년에는 더욱 도전적으로 2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목표를 세웠다. 당시의 이흥렬 삼영하드보드 사장은 1973년의 첫 수출 이후로 하드보드 시장이 급성장했고, 적극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해 도어스킨용 하드보드의 수출가격을 1000㎡당 43달러에서 46달러로 인상할 것임을 밝혔다.¹⁰ 1976년 당시 삼영하드보드는 수출 기반의 성장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영은 정부에 물품세 인하를 요청했는데, 현재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을 10%까지 낮추어달라는 것이 주된 요지였다. 높은 세율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원자재가 재활용품임에도 20%라는 높은 세율은 부당하다는 논지였다.¹¹

한편 삼영하드보드를 비롯해 당시 안양에 위치한 다수의 기업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1년 당시 보사부는 폐수 및 분진 배출량 등의 공



삼영하드보드 광고(『매일경제』, 1976년 7월 13일)

해기준을 위반한 증견업체 7곳에 대하여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보사부가 증견업체에 대해 규제를 실시한 것은 1971년 당사가 최초였는데, 그 대상에 삼영하드보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선명령을 받은 7개의 증견업체 중 다섯 곳이 안양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경남제지(호계리), 유유산업(신안양리), 태흥화학(호계리), 삼진펄프(박달리)가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시작되었다.

7. 삼덕제지

삼덕제지는 1961년 현재의 안양중앙시장 북서쪽(게이트7번)에 설립되었는데, 그 전신을 찾아보면 194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1년 일본인인 고토우(後藤庸禎)는 안양에





삼덕공원

삼왕제지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지공장을 설립했다. 삼왕제지는 모조지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공장이었으며, 자본금 49만원으로 출발했다. 당시의 경영 상태에 대한 기록물이 없어 자세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사장을 포함한 5명의 관리자(이사)와 2명의 감사 등 주요직 7인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1945년 해방 이후 삼왕제지는 미군정으로 귀속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었다. 한편 한국전쟁 휴전 무렵이던 1953년에는 기존 관리인이었던 조경묵에게 174만환에 팔았고, 이 무렵에 삼덕제지로 상호명을 변경했다. 당시 안양에 설립된 다른 기업(공장)들과 유사하게 UNKRA 원조 자금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말 경영난이 발생했고, 1961년에는 현 삼정펄프의 선대 회장인 전재준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삼덕제지는 당시 모조지뿐만 아니라 신문지를 생산하는 제지업계의 선두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²

삼덕제지는 2003년까지 안양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삼정펄프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을 통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당시 회장이었던 전재준은 기존 공장 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했는데, 해당 부지의 면적은 약 1만 9376㎡로 시가 300억원대로 추정된다. 공장부지를 안양시로 기증한 이유는 43년 동안 공장으로 인해 불편을 끼쳤을 안양 시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안양시는 기증받은 부지를 이용

하여 현재의 삼덕공원을 조성했는데, 이 일대에 도로명으로 삼덕로가 있으며 주변 상권에서도 현재까지 삼덕이라는 간판을 내건 영세업체가 다수 존재한다. 삼덕공원 입구에는 삼덕제지의 역사가 담긴 게시판(사진 및 설명문 포함)이 있으며, 특히 당시의 공장 굴뚝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역사성은 물론 예술성까지 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8. 한국제지

안양지역의 대표적인 제지회사 중 하나로 한국제지가 있다. 한국제지의 역사는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한국특수제지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회사의 초기 설립 이념은 수입에 의존하던 제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자는 것이었다. 안양 공장은 안양천과 안양역 인근에 위치했는데, 안양의 특산물이었던 포도밭 자리였다고 한다. 이후 1960년에는 안양공장에 장망식 초지 1호기를 신설해 백상지 생산을 개시했고, 3년 후에는 국내 최초로 백상지를 홍콩으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한국제지 35년사에 담긴 생산과정의 이야기에서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제지 안양공장 1호기 초출 당시의 감회(『한국제지 35년사』, 1993)

이홍복李洪馥(당시 생산과장)

고려제지 군산 공장에서 삼풍제지를 거쳐 무림제지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최경록 씨가 대구로 사람을 보내 한국제지에서 근무해 볼 의향을 타진해 왔다. 그래 꽤히 승낙하고 상경하여 한국제지 초대 사장인 최화식 씨를 총무로 한국제지 본사에서 만나 뵈고 입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삼풍제지 초지과장이던 최경록 씨는 한국제지 공장장으로 내정되었던 분이였으나 삼풍제지 측의 만류로 한국제지에 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내가 한국제지에 입사한 것은 1960년 3월 중순 경으로 안양공장 초지 1호기의 설치가 거의 끝나고 시운전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시운전 당일, 생산을 책임진 나는 다른 누구보다 긴장해 있었다. 혹시 일이 잘못되어 사장님이나 이사들을 실망시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더구나 나는 다른 제지회사에 있을 때 시운전 당일 종이 초출에 실패하는 경우를 여러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노파심으로만 치부해 버릴 수도 없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계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조마조마했던 내 가슴은 “와아!”하는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메워졌고, 사장님 이하 모두들 기뻐하는 모습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드라이어를 빠져나온 백상지가 한때 지절이 되어 공장 건물 벽까지 날아가 바닥에 나뒹굴기도 했는데, 단사천 이사님도 “괜찮아!”를 연발하시며 기뻐하셨다.

이후 생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시설 능력 이상의 생산 실적을 기록하여 날마다 자축연이 마련된 정도였다. 그런만큼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국내 최고 수준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고 회사의 명성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갔다. 어느 해던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손대원, 김낙서, 박희석, 박정림 씨와 함께 미도파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는 돈이 모자라 명함 한 장만으로 외상 거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만큼 한국제지에 대한 사회의 신용이 높았던 것이다.

1963년 그동안 황목 2폭으로 생산하던 초지기의 기계폭을 한쪽으로 90mm씩 180mm를 넓혀 종목 3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너무 큰 부담을 느껴 몸져 드러눕기까지 했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지만, 생산된 종이 제품에서 정전기가 발생해 문제가 되었던 것을 전기 접지 장치 설치로 간단히 해결한 일이라든가, 한국제지의 제품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 다른 회사에서 한국제지 상표를 도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제품 포장지에 모방할 수 없는 청색선과 홍색선을 그려 넣는 아이디어를 발안하여 이를 해결했던 일들 역시 흐뭇한 추억거리로 남아 있다.



1958년 한국특수제지공업주식회사(한국제지역사관)



1960년 안양공장 장망식 초지공장 기념식



1961년 안양공장 본공장 전경(『한국제지 35년사』)



1998년 안양공장 폐쇄(한국제지역사관)

이후 1966년에는 한국제지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1967년 안양공장에 코터 신설 및 장망식 초지 2호기를 증설했으며, 1973년에는 코터 2호기를 증설하는 등 지속적인 공장 인프라를 확대했다. 1989년에는 경상남도 온산공장을 준공함으로써 기존에 연 8만 톤이었던 생산 능력이 연 18만 톤까지 증가했다. 1994년에는 제지업계 최초로 ISO 9002 인증을 획득하는 등 현재까지 활발한 기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1995년 무렵에는 안양공장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시 한국제지는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안양1동 90번지 일원 약 7만 5900㎡(2만 3000여 평)의 공장을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3년 후 1998년 한국제지 안양공장은 폐쇄되었으며, 해당 부지에는 삼성래미안단지가 들어섰다.¹³



2000년대 오성제지 공장 전경(안양시 월간기업정보)

9. 오성제지



평촌오비스타워

오성제지는 1958년 이북 출신인 오규원이 창업한 회사로 골판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던 기업이였다. 제지업이 한창이던 1980~1990년대에는 안양 내 제지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생산량 기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우수 기업이였다. 그러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성제지의 기업사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관내 신문은 물론 주요 일간지에도 그 내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2010년대 이후 지식산업센터로의 전환 자료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오성제지의 역사적 배경보다는 현 안양시민들이 지나가며 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 과정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오성제지가 자리 잡았던 안양 관양동 일대는 중소규모의 제조공장이 밀집해 있었는데, 2000년대 후반 이후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점차 경쟁

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오성제지 또한 2009년 5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많은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오성제지는 다른 접근법을 선택했는데 단순히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기존 안양 부지를 재개발하여 제지산업에서 부동산업으로 사업 전환을 모색했다. 2010년 초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오성제지의 지식산업센터(평촌오비즈센터) 건립 과정이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건립 규모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초기의 계획과 달리 축소된 2만2538㎡ 부지에 연면적 12만 3891㎡ 규모의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신설 계획이 담긴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되었다. 안양시는 기부채납률 33%를 조건으로 최종 승인을 했으며, 현재의 평촌오비즈타워가 건설되었다. 초기 분양가(2012년 착공과 동시에 분양)는 평당 560만원 수준이었으며, 그로부터 2년 뒤인 2014년에는 분양가 650만~700만원 정도로 상승했다. 이를 통해 오성제지는 총 1800억원 정도를 회수하고, 나머지 100실은 자체 보유하여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10. 동일방직

동일방직 주식회사는 1955년 서정익에 의해 DI동일이라는 사명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창업주는 1932년 나고야 고등공업학교 방직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의 동양방직 창설 사원으로 합류했다. 당시 한국인으로는 유일한 정규사원이었으나 승진과 대우에 차별을 겪자 1942년 중국 베이징으로 소속을 옮겼다. 광복 이후 미군정은 당시 동양방직의 사원명부에서 서정익의 신상을 파악하여 인천공장의 공장장 겸 이사로 복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¹⁴.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서정익은 1955년 9월 DI동일을 설립하며, 합섬 및 염색가공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다.

1966년 1월에는 사명을 동일방직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이후 1969년에는 현재 평촌동 일대에 섬유공장을 준공했다. 동일방직은 안양의 변두리 지역이던 벌말과 인덕원은 물론이고 인접한 의왕 포일리 지역의 상권 형성과 그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¹⁵

동일방직의 안양공장은 1996년 문을 닫았다. 공장 폐업 후 대로변을 제외한 약 3만여 평 부지를 1200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금액은 당시 동일방직 연간 순이익의 약 3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공장부지는 대우건설에 매각되었는데, 동



동일방직 안양공장 조감도



1970년대 동일방직(안양상외보)

일방직조합아파트(조합 아파트로는 약 2200~2500가구, 건설업체 자체 사업으로는 3000여 가구)에 대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1996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000년에 완공을 목표로 했다. 2006년에는 아파트조합에 매각하고 남은 잔여 부지 5000여 평에 대형 할인점 입점을 추진했으나,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교통혼잡의 이유로 안양시 및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대림산업주식회사와 고려개발주식회사에 해당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된 부지에는 평촌e편한세상(평촌동 75-1번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11. 유한김벌리

1970년 당시의 유한양행은 미국의 제지회사였던 김벌리 클라크(Kimberly-Clark)와 4대 6의 합작투자를 하여 서울 용산에 본사를 설립했다. 창립한 해에는 현재의 군포시인 경기도 시흥군 남면 당정리에 안양공장을 준공(1970년 12월)하고 대표적인 제품인 코텍스 생리대와 미용 티슈인 '크리넥스'를 시장에 선보였다. 1974년에는 두루마리 휴지인 '보삐'를 출시했는데, 당시 텔레비전에 방영된 광고 CM은 어린아이들이 따라 부를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1973년 안양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안양상의보』의 1974년 11월호를 유한김벌리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다. 『안양상의보』는 당시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기사와 더불어 안양지역 내 기업들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소통 창구 역할을 했는데, 유한김벌리의 창립 과정에 대한 소개 및 제품 홍보가 게시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 3월 30일에 세계



유한김벌리 안양공장(『안양상의보』, 1974년11월 15일)



1971년 크리넥스 광고(유한김벌리)

적 화장지 메이커인 미국의 킴벌리클라크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설립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당시의 핵심 생산품이던 크리넥스와 보씨의 수출을 통해 연간 65만 달러의 수출 목표를 계획했다고 한다. 이후 1980년에는 경상북도 김천에, 1994년에는 대전에 공장을 설립했으며, 안양공장은 2011년 충주공장으로 이전했다. 안양공장이 있던 부지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10년 넘게 방치되었는데 이후 LH에 1975억원에 매각되었다. 해당부지는 산업·상업·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직물주식회사
- 2 「자유신문 1949.10.6」 기사에 따르면 금성방직 확장에 따라 조선 직물의 기계 분산에 대하여 대한건직물공업조합연합회 및 경기도 직물공업조합 등에서 도의상 또는 국가사업 건설상 절대 부당하다는 의견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양사 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태평양 전쟁 말기의 일본 정부는 연합군의 폭격을 피하고자 일본 내 주요 산업시설을 한국으로 옮겼으며, 당시 안양역에는 방적기 2000대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를 김성곤이 미 군정청과 교섭하여 금성방직을 설립하였다.
- 4 이현구, 『한국 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1999.
- 5 김성곤은 UNKRA 원조자금으로 공장을 다시 세우게 된다.
- 6 대한농산주식회사는 1955년 박용학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1967년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을 인수하였다. 1973년에는 대한농산, 금성방직, 태평방직, 한일제분을 통합하여 주식회사 대농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83년에는 사업 분야를 확장하여 골프장 경영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 7 안양시 기업경제과, 2022.07.
- 8 『매일경제』, 1988.04.11.
- 9 이시정(2007)의 『안양지역 노동운동사』에서 삼풍섬유 노조결성 투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 10 『매일경제』, 1976.03.10.
- 11 『매일경제』, 1976.01.10.
-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정펄프
- 13 한국제지역사관(<https://www.hankukpaper.com>)
- 14 주간 조선(<https://weekly.chosun.com>)
- 15 안용승, 『안양문화원 50년사』, 「그때 그 시절, 안양의 산업」, 2020.

3장

안양의 제약산업과 식품산업



박천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1. 유유제약

유유제약은 1941년 당시 창업주인 유특한이 유한무역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창립했으며, 1953년 유한산업주식회사로 변경했다. 1950년대 중후반, 당시 본사는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했으며, 결핵 치료제 ‘유파스깃’, 정신·신경 약물 ‘푸란티발정’, 국내 최초 당의정(糖衣錠 - sugar coated tablet)¹ 종합 비타민제 ‘비타엠정’을 생산하는 등 의약품 제조 부문에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1957년에는 현재의 사명과 유사한 유유산업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유유산업 전경



유유제약 공장작업 광경(1962, 국가기록원)

유유제약과 안양시와의 연결고리는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유산업주식회사는 안양시에 의약품 제조를 위한 공장을 준공하고, 의약품 제조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기술제휴를 통해 연구개발(R&D)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의 유유산업은 의료기관에 치료제(특히 항생제)를 공급하기 위해 해외 제약회사의 기술이 절실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업존(Upjohn)과 동등한 입장에서 기술제휴를 추진했다².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항생제 ‘린코신’ ‘알바마이신’, 신경계통제 ‘데포-메드롤’, 피임제 ‘데포-프로베라’ 등 11개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공급했다.³

1975년 『안양상의보』에 게시된 유유산업의 전경을 살펴보면 준공 당시인 1959년에 비하여 생산설비를 위한 인프라가 대거 확충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의 유유산업은 한미 합작투자회사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1976년 스위스 지크프리트(Siegtied)와 기술제휴(진통제 ‘스파슬라’ 도입), 1981년 일본 다이니폰(Dainippon)과 기술제휴(빈혈 치료제 ‘부루탈주’ 발매), 1982년 일본 다이쇼(Taisho)와 기술제휴(근육 이완제 ‘린락사’ 발매), 1986년 프랑스 사노피그룹(Sanofi Group)과 기술제휴(혈액순환 개선제 ‘크리드’ 발매), 서독 슈바베(Schwabe)와 기술제휴(뇌 및 말초순환 개선제 ‘타나민’ 발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안양공장의 생산시설을 토대로 제약산업 전반을 이끌던 유유산업은 2003년 안양시의 ‘아트시티21’ 프로젝트를 계기로 안양공장을 제천으로 이전했다. 당시 신중대 안양시장은 김중업이 건축한 안양공장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여 안양공장의 건물과 부지를 안양시로 매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유승필 사장이 승낙했다. 그 결과 기존 안양공장은 김중업박물관으로 재구성되어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환원되었다. 유유산업은 2005년 제천에 공장 신설 계획을 시작으로 2006년 완공했으며, 국내외 의약품에 이용되는 약 40여 종 이상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00년 중반 이후로 유유 헬스케어, 유유테이진메디케어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2008년에는 현재의 사명인 유유 제약으로 변경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는 유유메디컬스를 설립하는 등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유유산업이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유유산업 초기에는 전쟁 후 국민들의 영양결핍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타엠, 비나폴로 같은 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에 공을 기울였다. 1980년대 무렵부터는 선진국과 적극적인 기술협력과 제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명문장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동암 약의상, 국민훈장 모란장 등 전문의약품 제조 바이오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2. 동아제약

동아제약은 1932년 서울 중학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의약품과 위생용품을 도매하는 업체 미야베약방⁴으로 출발했다. 당시 미야베약방은 양약을 주로 생산하던 금강제약과 유한양행이 거래를 제의할 정도로 서울권역 대다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매업체였으며, 일본의 제약회사들로부터도 거래 의사를 제의받았다. 미야베약방의 대표 품목은 ‘가오르’, ‘인단’, ‘망깡고’, ‘마스크’였으며, 총판 형식으로 판매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당시(1930년대)는 약업계가 호황기였던 시절인데, 당시 미야베약방의 하루 평균 매출은 5000원으로, 경쟁사였던 박애당약방의 23원에 비해 무려 217 배나 높은 매출을 보였다.

현재의 동아제약과 같이 본격적인 제약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시점은 1940년대 중반 이후이다. 1949년에는 상호를 동아제약주식회사로 변경⁵하고 이를 법인화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에 현대식 항생물질 생산공장을 준공(약 2700평)했다. 당시의 공장 설립은 휴전협정 이후 체결된 경제원조기관의 금융자금을 의하여 추진되었는데, 동아제약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제약업체는 이러한 자금⁶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진행했다. 그러나 동아제약의 긍정적 기대와는 달리 유한양행, 동양제약, 근화약품이 모두 항생제 공장을 건립하여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하고, 값이 싼 이탈리아 원료가 덤핑 판매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이했다.

동아제약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파하고자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시도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제품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박카스’였다. 1960년대 국내 약업 시장은 전쟁과 가난으로 영양결핍에 목마름이 있었으며, 그 결과 구호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던 비타민을 강장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동아제약은 비타민에 미네랄, 간^肝 영양제를 첨가한 피로 완화제를 출시했다. 초기의 박카스는 ‘박카스정’으로 출시되었으며, 1962년 드링크제가 유행함에 따라 ‘박카스 내복액’을 출시, 그리고 1963년 ‘박카스D’의 출시로 이어졌다. 당시 박카스D는 1965년에 2억 8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년 뒤인 1966년에는 무려 274.1%가 증가한 9억 24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동아제약의 실적 상승에 상당히 기여했다.

앞서 동아제약의 역사, 그리고 특히 박카스D를 언급한 이유는 사실 안양시와의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동아제약과 안양시의 만남은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서울 용두동공장의 생산 능력으로는 더 이상 박카스D를 포함한 ‘판피린 코프’, ‘치옥탄S’ 등의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시 강중희 창업자는 새로운 부지 선정을 위해 의정부, 덕소, 광주, 안양, 멀리는 울산까지 현지답사에 공을 들였다. 공장부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하수, 폐수처리의 용이성, 편리한 교통과 충분한 면적 확보라는 조건이 요구되었으며, 현재의 안양지역이 공장부지로서 최적의 입지라는 판단 아래 주변 땅 매입(5만 평)을 시작했다. 당시 논과 밭이었던 공장부지는 대지가 낮아 매입 비용에 맞먹는 매립정지작업을 했으며, 그 결과 1970년 8월 안양공장의 기공식이, 1971년 5월 안양공장의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당시 안양공장은 박카스D의 자동화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설피린 합성시설, 가나마이신 생산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안양공장 준공을 통해 박카스D는 연간 1억 병을, ‘설피린’은 연간 40톤, ‘가나마이신’은 연간 1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나아가 제품의 생산·포장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합성기술 개발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1971년 10월 완공된 합성시설을 통해 박카스D의 주성분인 타우린 생산을⁷ 시



동아제약 안양공장 조감도



1980년대 동아제약

작했다. 이와 함께 페나세틴, 이소니아지드, 후마루산 철, 메토클로프라미드, 세파메진,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이트 등을 자체 기술로 합성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동아제약 안양공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원재료의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지정 공장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의약품이 인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이 1960년대부터 식품·의약품, 화장품 등에 GMP를 적용했으며, 그 뒤를 이어 영국과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들도 도입하기 시작했다. 당시 보사부(保社部)는 1977년 3월에 KGMP를 제정·공시했으며, 약업계에 자율적인 실시를 권장했다. 이에 동아제약은 기존의 제제공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GMP 안양공장을 1979년에 완공했다. 해당 공장에는 동결건조기, 28KHz의 초음파 병 세척기·멸균기, 캡슐제 충전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동아제약은 1970~1980년대 안양지역에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1990년대에는 21개의 외국 기업과 기술협력을 체결하고, 연평균 10개 안팎의 치료제를 국내에 발매하는 등 매우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안양과 더불어 반월, 상갈, 천안에 대규모 공장·연구시설을 두고 있으며, 2010년 초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기업구조를 재편하는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경영전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3. 동화약품



동화약품

동화약품은 1897년 동화약방이라는 이름으로 초대 사장 민강이 한성부 서소문 차동(현 서울 중구 순화동 5번지 일대)에서 창립했다. 동화(同和)라는 상호는 『주역』에서 비롯한 글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한다면 예리하기가 쇠도 자를 수 있다”는 뜻으로 민족의 합심을 강조하는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⁸ 동화약품은 우리나라의 제약업계에서 유일하게 한자리에서 동일 상호,



동화약품 공장내부

동일 제품으로 100년을 이어온 기업으로 ‘활명수’가 이들의 대표적인 의약품이다. 당시 활명수는 공인들이 배합을 담당하고, 책임자가 클로로포름과 멘톨 첨가물은 밀히 진행되는 방식으로 제조되었다. 이후 1908년 내부 관제 개정에 따라 위생국에서 정식으로 관허를 받아 의약품 98종을 생산했으며, 당시 활명수는 정가 40전으로 판매되었다. 1931년에는 주식회사 동화약방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부채표 활명수’에 대하여 국내 최초 해외상표등록(만주국 상표출원)을 진행했다.

동화약품과 안양시의 인연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97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서울 중구 순화동에 있던 본사와 공장은 제품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공장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1970년 당시 시흥군 내 안양읍 일대를 공장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정확한 위치는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179-1~2번지였으며, 대지 3만 3762㎡ 지상에 건축면적 5809㎡, 연면적 7990㎡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시작했다.

동화약품의 안양공장은 1972년 10월 11일 준공 이후 1986년까지 거의 매년 증축하여 액제류 및 치료 의약품 제조공장은 물론 합성실, 에어줄, 모기향 작업장, 자재창고, 제품창고, 공작실, GMP동, 연구동 등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1990년부터 1994년에 걸쳐 중앙연구소 약리독성실 증축과 생산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연건평 3만 5909㎡의 종합 의약품 제조공장으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 안양 공장에서는 당시 판매되던 동화약품 전 제품을 생산했으며, 생산 1부와 2부에는 각각 생산 1부터 5까지의 과와 포장과를 두었다. 그리고 원료의 합성을 담당하는 합성부, 이를



1980년대 동화약품 전경

지원하는 공무부에는 자동화팀, 공무과, 보전과를 두었다. 이후 동화약품은 2009년 생산 시설을 충청북도 충주로 이전했으며, 해당 부지에는 지식산업센터인 ‘안양 아이에스비즈 타워’가 들어섰다. 한편 안양공장 내 위치하던 연구소는 인근 용인시 기흥구로 이전했다.

한편, 1977년 서울·경기·안양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안양대홍수 관련하여 동화약품을 비롯한 안양시 내 제약업체 20개소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안양천변에 있는 동화약품과 보령제약이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안양천이 범람했고, 당시 동화약품 공장은 지상 80cm 높이로 침수되었다. 이로 인해 1층과 지하실에 보관 중이던 원료 등이 침수되어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동화약품의 임직원들은 안양공장뿐만 아니라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념했고, 이러한 활동과 노력에 대해 안양시에서도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후 1990년대의 안양공장은 전 품목에 GMP를 적용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진행했다. 1977년 보사부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에 따라 동화약품은 1983년 GMP 동의 신축을 시작했고, 1985년 11월에 준공했다. 공사비는 총 15억 6000여 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차압계에 기반한 무균작업장, 앰플세척·멸균·충전 및 용봉의 자동화, HEPA

필터 기반의 무균공기 공급, 순간고온살균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이러한 현대적 인프라 구축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안양지역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음이 분명하다.

4. 오뚜기

오뚜기는 1969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4가 일대에 조흥화학의 공장 한편을 얻어 풍림상사라는 상호로 시작했다. 창업자 함태호는 조흥화학공업 창업주 함형준의 장남으로, 당시 국민에게 외면받던 내수 식품업에 과감하게 도전장으로 냈다. 같은 해 출시한 카레라이스(오뚜기 즉석 분말카레)는 당시 제품의 맛은 물론 혁신적인 판매 방식을 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기존 제품이 도매상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때와 달리 풍림상사는 영업사원이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제품을 소개하고 진열까지 도와주는 루트세일(route sale) 방식을 도입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경영전략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 오뚜기는 이후 1970년에는 수프, 1971년에는 케첩, 1972년에는 마요네즈 등 현재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장수 식품을 연이어 출시했다. 2004년 이후에는 큰 성공을 거둔 즉석밥과 만두 같은 간편식 제품으로 또다시 시장을 선도하며 안양시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풍림상사와 안양시의 인연은 197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풍림상사는 당시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 일대에 안양공장을 세우고 마요네즈와 수유가 급증한 카레 등을 생산했다. 이듬해인 1973년 우리에게 익숙한 오뚜기식품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러한 제품의 큰 성공으로 1979년에는 매출 100억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지속적



1976년(위)과 2009년(아래) 오뚜기 안양공장 일대

인 기술개발을 위해 일본의 우수 기업과 기술제휴를 맺어 케첩 및 마요네즈의 생산성을 증대했다. 1980년에는 오투기식품(주)로 사명을 한 번 더 변경하고, 가정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식품의 첫 제품인 3분 카레, 3분 짜장을 출시했다. 1980년대 후반(1987년)에는 청보식품을 인수해 라면 사업에도 진출하여 큰 성공(대표적으로 진라면, 라면박사, 참라면이 있으며, 진라면은 순한맛과 매운맛으로 구분하여 판매했음)을 거두었으며, 1988년 기준 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후 1992년에는 경남 울산에 삼남공장 준공, 2001년 충북 음성에 대풍공장, 2000년대 이후로는 오투기 아메리카 및 베트남을 설립했다. 2005년 기준 연 매출은 1조원, 2016년에는 연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1995년 제1기 신도시 개발에 안양에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안양공장도 그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당시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1년 내내 카레 냄새를 맡기 싫다며 민원을 넣었고, 마침 생산시설 부족 문제를 겪던 오투기는 이 기회에 충북 음성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충북 음성의 대풍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안양공장보다 3배 넓은 부지를 활용해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어 있던 기존 안양 공장 부지를 오투기 기념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24년 7월 기념관 증축공사 착공식을 진행했다. 해당 기념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부지 2만 4456㎡, 연면적 2만 495㎡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5. 크라운제과

크라운제과는 1947년 윤태현이 서울역 근처 중립동에 영일당제과라는 이름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1956년 우리에게 친숙한 크라운제과로 상호를 변경했고, 1968년에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1988년까지 주식회사 크라운제과라는 기업명을 유지했다. 크라운제과의 첫 공장은 1969년 서울 동대문구 묵동⁹ 385번지 일대에 준공되었으며, 1972년 현재까지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리품을 출시했다. 1980년에는 묵동에 본사를 건립하고, 이후 안양공장, 아산공장을 준공했다. 당시 동대문구 묵동 일대는 크라운산도 향기가 공장 주변에 가득 퍼졌다고 전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크라운제과와 안양시의 인연은 1983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안양공장은 크라운제과의 제2공장으로, 주로 비스킷류 생산을 목적으로 준공되었다. 크라운제과는 안양공장 증설을 통해 서울공장과 함께 제과류 생산의 이원화를 계획했으며, 그



크라운제과를 방문한 안양시장(1993)

결과 1982년 58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그러나 크라운제과와 안양시의 인연은 2007년을 끝으로 지속되지 못했다. 2007년 1월 합병한 크라운-해태제과는 기존 안양공장을 514억원에 매각하고, 아산공장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크라운-해태제과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운영달 회장은 부채를 줄이

기 위해 남영동 사옥과 인근 식품연구소, 천안 공장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2007년 8월 최종적으로 안양공장을 매각했다.



크라운제과(2007)

註

- 1 국내 최초로 개발된 당의정 기술은 창업주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결과로 얻은 결실이다. 창업주는 1950년 초 비타민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도 쉽게 약을 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지원했다. (유승필, 2019, 『아이러브 유유: 사람을 살리는 약, 78년 유유제약 이야기』, 76쪽)
- 2 1950년대 후반 국내 의약품 산업은 미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존사의 자본 비율은 50 대 50으로 결정되었다.
- 3 유승필, 2019, 『아이러브 유유: 사람을 살리는 약, 78년 유유제약 이야기』, 148-150쪽.
- 4 미야베약방은 일본인 미야베 데이지와 강중희가 동업하여 1932년에 개업한 도매상으로, 당시 미야베가 운영하던 동양제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계기로 설립되었다. 강중희는 1930년에 동양제약에 외무판매원으로 입사했으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동아제약의 운영·관리의 기틀을 닦았다. 『동아제약 70년사』, 2002, 154-157쪽.
- 5 광복이 된 해 미야베약방은 '동아약품공사'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도매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49년에 동아제약주식회사를 설립했다.
- 6 10년 내 상환하는 조건의 저금리 대출이었으며, 배정액에 비례하여 한국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운영자금도 대출하는 등 기업에 상당히 유리한 자금이었다.
- 7 본격적인 생산은 1972년(연간 9톤)부터 시작되었으며, 1979년에는 연간 20톤 규모로 향상되었다.
- 8 『동화약품 100년사』, 1998, 99쪽
- 9 1969년 당시 목동은 동대문구에 속해 있었으며, 1988년 이후 신설된 중랑구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었다.

4장

안양의 중화학공업과 전기·전자 산업



박천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1. 락희화학공업사

현 LG생활건강의 전신인 락희화학공업사는 1947년 서울 창신동에 첫발을 내딛었다. 설립 당시 최초의 국산 화장품인 럭키크림을 생산했으며, 1952년 부산 범일동에 첫 공장을 준공했다. 당시 '오리엔탈'이라는 상표로 플라스틱 빗과 비눗갑을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1954년에는 부산 연지동에 공장을 준공하고, 1955년 럭키치약 상표를 등록하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1966년에는 락희화학과 락희비니루공업을 합병하여 락희화학공업사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같은 해 안양에 합성세제 공장을 건설했다.

이후 주방용 액체 세제와 샴푸 등을 생산하던 락희유지공업을 흡수·합병한다. 1969년에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이후 빠른 성장을 이어갔다. 1972년에는 총 매출 100억원, 1978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했다. 기업명도 꾸준히 변경되어 1974년 (주)럭키로, 1983년에는 럭키금성으로, 1995년에는 LG로 변경했다. 1966년 안양공장 이후로 1976년 여수 PVC 공장, 1978년 울산 플라스틱 가공공장, 1984년 한국종합화학 나주공장 인수, 1987년 나주 아크릴레이트 공장 준공 등 화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 LG생활건강의 전신인 락희화학공업사는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출발한 중화학공업의 대표 주자이다. 1966년 안양에 공장을 설립하고 합성세제를 생산했지만 당시 안양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문제로 인해 락희화학과 안양시의 인연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1981년 럭키(1974년 사명 변경)는 충북 청주에 액체 세제 공장을 세우고 기존 안양공장을 이전했다. LG그룹과 LG화학 홈페이지(기업 역사)에서는 안양공장의 생산활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안양공장의 준공 시기와 생



럭키화학(안양상의보)

산품을 놓고 보면 아마도 세탁세제(하이타이)를 생산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73년 창간된 『안양상의보』에서 락희화학(럭키)의 생산활동 및 공장에 대한 안내가 일부 기술되어 있다. 당시의 기사(1974년 1월 15일)를 살펴보면 럭키는 안양에서 수원 방향 국도변에 접해 약 4km 떨어진 호계동 일대에 위치한다. 약 1만 2322㎡(3734평)의 부지 위에 건축면적 4917㎡(1490평)의 건물을 지었으며, 하이타이와 함께 풍풍, 샴푸 등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안양공장 직원 수는 300여 명이었으며,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규모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당, 배구장, 농구장, 정구장, 탁구장을 비롯해 휴게실과 야외 휴식공간, 도서실 등을 운영했다. 또한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안양지역 내 4개의 지정 병원을 두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상담 시간도 마련하는 등 당시 기준으로 선진적인 직원복지를 보여주었다.

2. 노루표페인트

노루표페인트의 역사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자 한정대는 서울 회현동에서 대한오브세트잉크라는 상호로 잉크 제조 및 판매업을 시작했다. 당시 창업지는 낡은 일본식 목조 가옥이었는데, 일본인 주인이 한정대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규모는 대지와 사무실, 창고 등을 모두 합하여 약 85평 내외였다. 한정대는 오사카의 후지화학연구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복 이후 출판업계에서 필수인 잉크의 생산과 판매에 몰두하게 되었다. 1945년 무렵 일본인이 대거 자국으로 돌아감에 따라 인쇄 부문은 기술 부족에 시달렸으며, 특히 잉크 역시 남아 있는 것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한다.

대한오브세트잉크의 1945년 창립과 동시에 지폐 및 교과서용 인쇄 잉크를 생산했으며, 현재까지 기업의 심벌인 노루 마크¹를 도입하여 일반인들이 잉크 제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1955년에는 문래동에 제1공장을 준공했고, 1956년에는 대한잉크 제조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1957년에는 미연방 규격 페인트를 수출하고, 1962년에는 홍콩에 인쇄용 잉크를 수출하는 등 국내외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쳐 나갔다. 1967년에는 구로에 공장을 준공하고, 페인트업계에서는 최초로 KS 표시허가를 획득했다. 1974년에는 안양과의 연결고리인 안양 제3공장을 준공했는데, 이 무렵 경영 실적을



노루표페인트 안양공장(1976, 『노루70년사』)



대한오브세트잉크(1945, 『노루70년사』)



노루페인트 안양공장(노루70년사)

살펴보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73년 기준 총매출액은 48억원이었으며, 그해 기업을 공개한 후 2년 동안 연 15%의 배당을 보장하는 우선주 31만 9400주를 발행했다. 이 중 10%는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했으며, 같은 해 7월 초 신주 공모는 56 대 1의 높은 공모율을 기록했다. 당시 신주 발행가는 500원이었으며, 공개 후 자본금 총액대한오브세트잉크는 1972년 3억 4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1985년 분체도료 생산공장, 1986년에 자동차 페인트 공장을 준공했다. 업종별 전문화를 위해



1980년에는 대한인터내셔널페인트(주), 1990년에는 대한비케미칼 주식회사, 1996년에는 대한자동차도료(주), 2000년에는 대한코일코팅(주)를 설립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도 천안, 포승, 화성에 페인트(코팅) 공장을 지속적으로 준공했다.

안양시와의 인연은 안양 제3공장이 건설되던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5년에 준공된 문래동 공장은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잉크 페인트는 1973년 7월부터 신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공장 부지로 안양시 박달동 안양천 변의 부지 약 12만 8700㎡(3만 9000여 평)를 매입했으며, 총 공사비와 시설 도입 자금은

약 6억 7000만원에 달했다. 같은 해 9월 25일 공장용지 조성에 착수하면서, 안양천으로부터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약 2만 6000여 트럭 분량의 흙을 매립했다. 1975년에는 시공사인 삼환기업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건물 내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기둥이 없는 방식을 채택했다. 연인원 약 16만 명이 투입된 공장 건설은 건물 17개 동에 연건평이 7220평에 달했으며, 80톤의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와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120명을 수용 가능한 기숙사 등 당시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시설이었다고 한다. 1976년 4월 준공된 안양공장(본사)은 기존 문래동에 있는 잉크페인트사업부 시설을 옮겨와 본격적인 대량생산 체제와 돌입했다.

1979년에는 안양공장이 한 차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1970년대 후반 국내에서 조선업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당시 국내 업체와 기술제휴 형식으로 진입한 외국계 업체들은 계약이 종료된 후 독자적인 판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해나갔다. 당시의 대한잉크페인트도 선박 도료 및 특수 도료 부문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적인 도료업체와 협업을 모색하던 중 인터내셔널 페인트(IPC)와 협업을 성사시켰다. 이렇게 설립된 대한인터내셔널페인트의 본사가 안양시 박달동에 자리 잡았으며, 내·외자 60억원을 투입하여 안양공장 2단지에 분체도료 전문 공장을 준공했다.

1980년대에는 자동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양에 도료공장을 준공했다. 당시 기아자동차가 생산하는 월드카 프라이드에 대응하기 위한 이곳은 기술제휴를 맺고 있던 일본 니폰페인트의 기술 지원을 받아 1985년 11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이어 1986년 11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 생산공정이 자동화된 자동차용 도료 및 컬러 강판 도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완공했다.

2020년 이후의 노루표페인트는 안양시를 거점으로 기업의 주요 활동과 사회적 책임에도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 당시에는 덴탈마스크 80만 장을 안양시 거주 저소득층에 덴탈마스크 80만 장을 전달하고, 석수3동에 정기적으로 백미를 후원하는 등 기부 문화를 선도한 공로로 안양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² 2021년 9월에는 관내 4개 공공경로당에 쿨루프 페인트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구체화했다.⁴ 이러한 사회적 책임 외에도 21세기에 요구하는 시장의 수요에 발맞추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언택트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홈인테리어용 페인트 개발 등 자체적인 시장을 개척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탈리아 순수 예술 사진의 거장인 프랑코 폰타나 회고전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그의 강렬한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노루표페인트의 16가지 팬톤페인트를 적용했다.

3. 금성통신과 금성전선

금성통신 및 금성전선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58년 구인회에 의해 설립된 전자회사인 금성사의 역사부터 출발해야 한다.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공업 회사로 출발한 금성사는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에 자리 잡은 금성사는 1959년 정식으로 설립 등기를 마쳤다(전기기계 기구 및 요소수지 제품). 같은 해 6월부터는 최초의 라디오 모델 설계를 완성했는데, 이 라디오에는 골드스타 상표가 부착되었으며, 전기용 5구 라디오 제 1호라는 뜻에서 'A-501'로 명명했다. 금성사는 진공관을 비롯해 스피커와 레지스터는 수입했으나, 나머지는 국산화에 성공했다.⁵ 이후 1966년 8월 국내 최초로 흑백 TV를 생산하는 등 당시 부산지역을 대표적인 전자회사를 자리 잡았다.

금성통신은 1967년 금성사의 조직 개편에 따라 탄생한 통신사업부를 전신으로 한다. 1969년 금성통신으로 분사한 후, 1970년에는 서독 지멘스와 일본 후지전기와 합작했으며, 1971년에는 부산 온천동 공장의 생산라인을 안양공장(C동 400평 규모)으로 옮기고 금성통신전기로 사명을 변경했다. 당시 생산하던 국내 최초의 자동 전화기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통신사업부를 중심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안양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금성통신 전경(1970년대)



1970년대 금성통신

이후 안양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자 1990년대 초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⁶, 지금은 안양 국제유통단지⁷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락희화학공업사와 유사하게 금성계열의 안양지역 기업활동 내역은 1973년 안양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안양상의보』에 그 내용이 일부 남아 있다. 1973년 7월 기사에 따르면 금성통신은 230만 달러의 해외 수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973년 7월을 기준으로 60만 달러의 자동교환기(PABX), 관련 통신장비, 전선 등을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 등 13개국으로 수출했다. 특히 인도와의 협력은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금성통신의 세계시장점유율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소개했다.⁸ 또 다른 기사에서는 금성통신 관련 협력사들이 금성통신의 직원 지주제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당시 금액으로 주식 약 4억원이 출자되었다.) 이후 안양지역의 급속한 도시화로 1990년대 초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1992년에는 공장부지를 매각했다. 결국 1995년 금성사와 LG전자로 합병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금성전선⁹ 역시 안양지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기업이다. 금성전선의 전신

은 1962년 구인회가 설립한 한국 케이블공업주식회사로 1966년 현재의 안양지역에 공장을 준공했고, 같은 해에 주식회사 금성사와 합병되었다. 이후 1969년 금성전선으로 독립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안양공장은 약 4만 2000여 평 규모로, 70만 대의 전선을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케이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럽과 중동 등 13개국에 전선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안양공장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1978년에는 구미에 공장을 준공했으며, 1982년에는 안양 기술연구소를 준공했다. 2003년에는 LG그룹에서 분리되어 LG전선그룹을 출범했고, 2005년에는 LS전선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2008년 5월 안양에 LS타워를 완공했다.



LS타워

4. 현대양행(만도)

만도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1962년 설립된 현대양행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당시 현대양행은 서울 중구 무교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사옥에서 출발했다. 무역업을 시작으로 건설용 기자재, 건설장비, 산업기계 등을 수입하고 형석 및 시멘트를 수출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이후 1964년 안양공장을 준공하여 자동차 부품 등 기계공업 진출의 초석을 마련했다. 안양에 준공된 양식기 공장인 안양기계제작소에서는 스푼, 나이프, 포크와 주전자, 냄비 등의 테이블 용품을 생산했다.



현대양행 표지판

1969년은 현대양행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해였다.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에 착수해 프레스 부품과 히터, 엔진 라디에이터 같은 기능성 부품을 생산했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쇼크업소버, 에어컨, 전장품 등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들의 국산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했

다. 1976년에는 창원에 3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종합기계공장을 착공해 발전용 설비, 제철·제강 설비, 정유화학 공업 설비 등을 구축했다. 같은 해 군포에 증기계공장과 주물공장을 준공해 자동차 부품과 건설중장비, 산업 플랜트용 기계 등을 생산했다. 1980년에는 만도기계(주)로 상호를 변경하며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만도는 '전 세계 1만여 도시로 뻗어 나간다'와 '인간은 할 수 있다(Man Do)'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1984년 연구소를 설립하여 고유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1986년에는 만도기계와 포드사가 50 대 50으로 한라공조를 합작 설립하는 등 신기술 확보에도 지속적인



현대양행(1972, 국가기록원 제공)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안양에서 평택 경주 문막 대전 청원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에 따라 1996년 만도기계 안양공장은 폐쇄되었다.

이후 IMF 경제위기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한라그룹은 만도기계를 매각할 결정을 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2008년 자동차 부품회사인 만도를 다시 한라그룹에서 인수했다. 2010년 후반 만도는 자율주행 레벨4 시험운행을 성공과 전자제어 조향장치(SBW)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등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로서의 전문성을 전 세계에 인정받고 있다.

5. 대한전선

대한전선의 모태는 1941년 국내 최초의 전선 회사인 조선전선주식회사를 시작으로, 시흥공장(현 금천구 시흥동)에서 창립하였다. 이후 1955년 대한전선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전선 기술이 전무했던 국내에 전선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한국 전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57년 플라스틱 전력케이블을 시초로 전선 제품 생산하였으며, 1964년에는 국내 최초로 전선류를 KS 표시 허가를 획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64년 동남아 지역으로 국내 최초 전선 수출을 성공시키며 해외시장에 첫발을 내디뎠고, 1966년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선 생산, 1977년 광섬유 개발 등 기술개발을 선도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대한전선은 1975년 관양동에 안양공장을 준공하며 안양시의 주요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1988년에는 해저용 광케이블을 개발해 국내 통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1997년 '5억 불 수출의 탑', 2007년 '10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며 세계 전선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갔다. 1955년부터 2008년까지 54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는 등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처럼 대한전선 안양공장은 1975년 공장이 준공된 이후부터 안양시의 주요 산업시설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재무구조 개선과 시설확장을 위해 충남 당진에 새로운 공장 건설을 계획하면서 2008년 안양공장 부지를 매각하고, 2011년까지 안양공장의 시설들을 당진 신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최종적으로 폐쇄하게 되었다.

이후 2011년 9월, 대한전선과 안양시는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안양



1980년대 · 1990년대 대한전선 전경(이정범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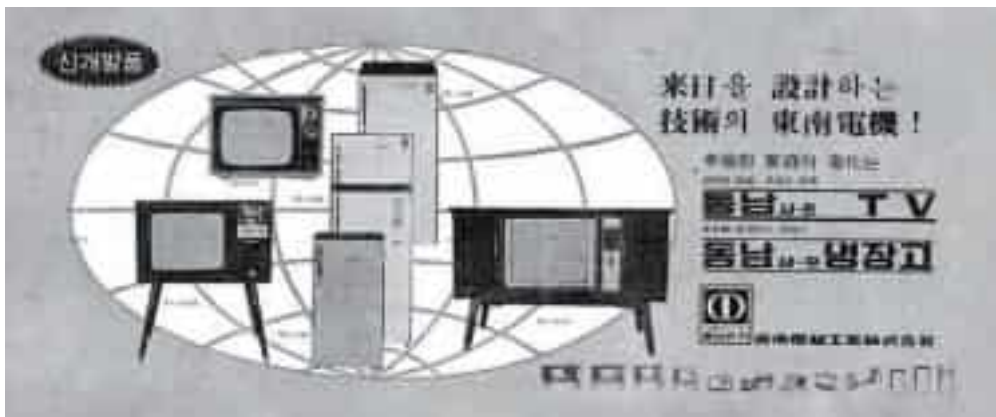
공장 부지에 본사와 12개 계열사를 이전하고 복합 시설 단지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공장부지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조성되었다.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로, 2012년 4월 시작되어 2017년 3월까지 첨단 연구개발(R&D)센터, 업무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

합 단지로 변모했다. 비록 대한전선 공장은 떠났지만, 그 후 개발 과정과 본사 이전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동남전기

동남전기는 1966년 박영택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전자전기 업종으로 설립했다. 당시 일본의 샤프사와 기술제휴를 맺었으며, 이후 1967년 진공관 흑백 TV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1971년 군납용 냉장고와 리모컨 TV를 개발했고, 1972년에는 컬러 TV 생산에 성공했다. 당시 동남전기의 컬러 TV를 개발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1974년에는 KIST와 개발한 리모컨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리모컨 TV를 시판했다.¹⁰

동남전기와 안양의 인연은 1975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동남전기는 수출 확대를 위해 안양에 대규모 종합공장을 준공했다. 안양공장은 연간 6만 대의 냉장고와 연간 2만 4000 대의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78년 제2차 오일쇼크로 동남전기의 수출 전략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경기가 침체로 주요 선진국들은 보호주의무역으로 돌아섰다. 더욱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흑백 TV, 컬러 TV, 라디오 등이 수입규제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회사는 더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 무렵 동남전기 역시 막대한 공장 투자로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중앙일보』(1978년 9월 19일)에 따르면 1978년 금호전자에 인수(약 34억원)되었다.



동남전기 지면광고(『조선일보』, 1974년 2월 17일)

7. (주)휴비딕

휴비딕(HuBDIC)은 2002년 안양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콧속형·이마형 체온계 관련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는 등 벤처기업으로서 그 전문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다. 앞서 살펴본 럭키나 금성과 같이 오랜 역사를 지닌 기업은 아니지만, 안양시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과 봉사 정신은 전자의 기업들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실제 안양시의 『월간기업정보』를 보면 안양지역에 대한 휴비딕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2021년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착한기업인 초청 감사패를 전달받았으며, 안양시 나눔운동본부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착한기업과 함께하는 안양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휴비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으며, 국내 최초 비접촉식 체온계 개발 등 뛰어난 기술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2010년대에는 안양시 및 경기도의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 현재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20년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물품 공급계약과 서울특별시 출산축하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체온계, 혈압계, 저주파 자극기, 전동식 흡입기, 비염 치료기, 네블라이저, 체중계, 안마·찜질기, 유축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휴비딕 체온계 제조(2021)

8. (주)코텍에너지

코텍에너지는 2012년 (주)에너지 홀딩스라는 사명으로 안양시 만안구에서 첫 출발을 했다. 2014년에 현재의 (주)코텍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며 본격적인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기업은 태양광발전 시스템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중반 이후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환경문화공헌대상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대한민국 에너지환경기술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3년에는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에 선정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했다. 본사와 공장은 안양시 만안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성남시 분당구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안양시의 『월간기업정보』 2021년 7월호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코텍에너지 생산품 태양광발전장치(코텍에너지 홈페이지)

註

- 1 광복 이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당시의 기업들은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동물을 기업의 상징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노루70년사』, 2015, 89쪽.
- 2 『머니투데이』, 2021.4.10.; 『경기신문』, 2021.6.22.
- 3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노루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데일리경제』, 2021.9.30.
- 5 부산역사문화대전(<https://busan.grandculture.net>)
- 6 안양공장은 1992년 서울의 산업중기계부품상협동조합에 매각되었으며,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하여 당시 금액으로 124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 7 『안양광역신문』, 2021년 9월 9일.
- 8 『안양상의보』, 1979년 7월 15일.
- 9 1962년 한국케이불공업, 1969년 금성전선, 1995년 LG전선, 2005년 LS전선으로 상호가 변경된다.
- 10 『경기문화재단』, 2011, 431-435쪽.

5장

안양상의보를 통해 본 1970~1980년대 안양 산업계의 모습



박천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안양상의보(安養商議報)』는 안양상공회의소¹⁾가 지역 내 상공인들에게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간 원활한 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6월 15일에 창간한 지역신문이다. 창간을 기념해 동일방직주식회사, 태평방직주식회사, 동양나이론주식회사, 삼덕제지주식회사, 한국제지주식회사, 삼성건재상회, 시흥군요식업조합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창간 당시부터 1975년 4월호까지는 매월 발행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한 달 또는 15일 간격으로 발행되었다.



『안양상의보』 발간 축하 메시지(1973)

발간 주체인 안양상공회의소는 1969년 9월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1970년 6월 상공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1972년에는 안양읍 안양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982년에는 현 안양과천상공회의소와 동일한 위치에 회관을 준공했다. 이후 1987년 안산상공회의소, 1995년 군포상공회의소, 1997년 시흥상공회의소, 2003년 광명상공회의소, 2005년 의왕상공회의소를 차례로 독립했다. 2017년에는 현재의 안양과천상공회의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안양 및 과천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양상공회의소 창립총회(1970)



안양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기공식(1981)



안양상공회의소 신축회관 준공(1982)

〈표 1〉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70.06.	• 안양상공회의소 설립인가(상역상 허가 제497호)
1970.07.	• 안양상공회의소 의원 선거(회장: 박용학)
1972.03.	• 안양읍 안양시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
1982.11.	• 신 회관 준공(안양6동 소재)
1987.12.	• 안산상공회의소 독립
1995.02.	• 군포상공회의소 독립
1997.03.	• 시흥상공회의소 독립
2003.04.	• 광명상공회의소 독립
2003.12.	• 상시검정 시험장 개소
2005.08.	• 의왕상공회의소 독립
2014.02.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규제개혁을 위한 업무 협약
2017.12.	• 안양과천상공회의소로 명칭 변경

출처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최근 2022년 이후 안양과천상공회의소의 활동을 살펴보면, 안양시 소재 기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업종 간 교류협의회 개최, 업계 CEO 초청 간담회, FTA 실무교육 개최,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실무 강좌,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안양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업종 교류협의회 신청서(좌), 수출입통관 교육훈련 신청서(우)(안양과천상공회의소)

본 장에서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 『안양상의보』의 기사 내용을 토대로 안양시 산업계 전반적인 모습을 조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73년 6월 창간호부터 1989년 12월호까지의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3년 단위로 총 6개 파트로 나누어 서술할 예정이다. 『안양상의보』에는 안양중학교의 축구 우승과 같은 시민들의 일상부터 당시 산업계의 국가 정책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안양시 소재 기업의 활동, 지역 기반 기업 및 산업계의 주요 이슈, 노동과 관련 이슈, 안양의 발전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 방식은 『안양상의보』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일부를 발췌하고, 이를 간략히 해설하는 방식으로 한다.

1. 1973~1975년의 안양 산업계

한일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보 제1호(1973년 6월 15일)



1973년 4월 26일 오후 3시, 한·일 상공인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일 간에 자본 및 기술제휴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상공회의소의 주요 인사를 초청했다. 관계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세계의 기업으로 나아가다(금성전선)
안양상의보 제2호(1973년 7월 15일)

‘세계에서 첫 전선을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금성전선은 오늘날 세계의 전선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금성전선은 총면적 4만 210평, 건평 8500평의 공장을 건설했다. 이 공장은 Lucky Group의 창업자인 구인회가 한국의 공업화를 위해 전력·통신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설립되었다.



정전으로 안양시 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
안양상의보 제3호(1973년 8월 15일)

정전사고로 인해 안양시 내 기업들의 피해와 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기사이다. 안양상공회의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전사고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중단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한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근본적인 시정 방안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는 안양상공회의소로 수렴되어 전달되었다.

〈표 2〉 1973년 7월 22일~23일 정전으로 인한 피해액 조사

업체명	정전회수	정전시간	피해액(원)	비고
대농서공장	7	7시간 24분	93,589,925	
(주)락희화학	4	6시간	12,000,000	
한국병유리(주)	-	-	2,000,000	
한국제지(주)	7	9시간 1분	4,000,000	
고려합섬(주)	10	13시간	1,000,000	
금성전선(주)	6	7시간 40분	2,615,000	
대한판지(주)	7	7시간 32분	3,091,000	
한독제지(주)	3	14분	155,000	
금성통신(주)	7	8시간	10,000,000	
계			44,220,525	

회관 부지 매입을 승인(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보 제4호(1973년 9월 15일)

안양상공회의소는 9월 1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회관 부지 매입을 위한 제2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흥 부지 건너편 35m 도로변에 538평의 부지를 1651만원을 들여 매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안양상공회의소의 소비자운동 “소비자는 보고 있다”
안양상의보 제5호(1973년 10월 15일)

안양상공회의소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포스터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작을 선정했다. 해당 포스터는 안양여고 학생의 것으로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포스터에는 “속여서 팔지 말고, 속아서 사지 말자”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인력개발정책과 노무관리론을 수강하고 있는 안양지역 노무관리협의회 회원들
안양상의보 제5호(1973년 10월 15일)

상공회의소는 9월 21일 오후 6시 노동청의 사무관을 초청하여 노동관리 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동관리협의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명기 회장을 비롯한 45명의 안양지역 회원들이 참석하여 인력개발 정책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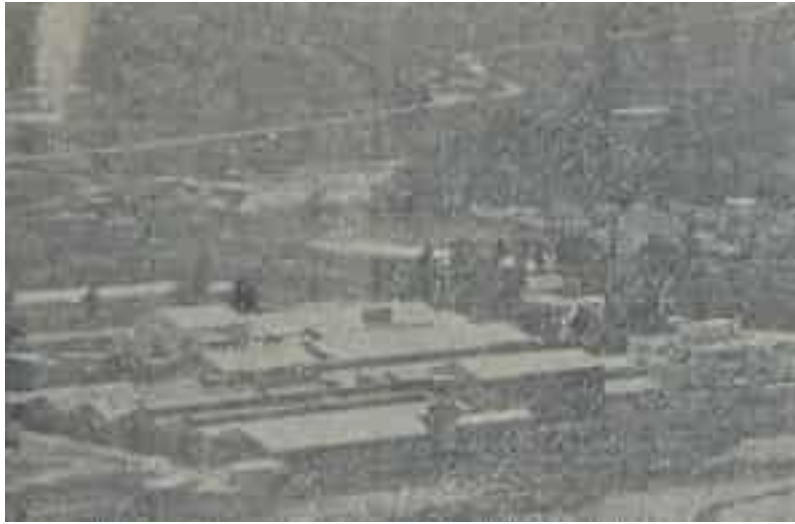
제약업계의 톱메이커(동아제약 안양공장)
안양상의보 제6호(1973년 11월 15일)

동아제약은 1932년 회사 창립 후 “품질, 신용, 탁월한 약품을 생산한다”는 신념을 지켜왔다. 1970년 준공된 동아제약 안양공장에서는 박카스D, 오란씨, 썰피린, 타우린, 카나마이신 등을 생산한다.



최신의 설비와 고급인력을 확보한 현대양행의 안양공장
안양상의보 제7호(1973년 12월 15일)

1962년 설립된 현대양행은 자동차 부품, 라지에타, 냉동기, 크레인 등 장비를 제조하며, 무역업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현대양행 안양공장은 최신 설비와 숙련된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락희화학, 노동자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다
 안양상의보 제8호(1974년 1월 15일)

안양시에서 수원 쪽으로 약 4km 지점인 안양시 호계동에 자리 잡고 있는 락희화학을 찾았다. 하이타이, 풍풍, 크림샴푸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건강 상담을 실시하는 등 종업원의 복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안양상의)
 안양상의보 제10호(1974년 3월 15일)

안양상의는 제11회 근로자의 날을 맞아 3월 11일 오전 11시 안양시 민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관내 제조업체의 모범 근로자 20명을 표창했다. 당일 행사는 안양시장, 안양경찰서장, 노동청 수원사무소장 등 수많은 관계 인사와 400여 근로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숙사를 준공(삼풍섬유)
안양상의보 제12호(1974년 5월 15일)

삼풍섬유공업주식회사 안양공장은 지난 5월 1일 국내 최대의 현대식 기숙사를 준공했다. 482평의 4층 건물(지하 1층)인 이 기숙사는 근로자 640명을 포용할 수 있으며, 휴게실, 욕실, 탈의장, 화장실, 세면장, 사감실 등을 골고루 갖춰 근로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고 있다.



직업훈련을 의무화
안양상의보 제14호(1974년 7월 15일)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6월 24일 오후 1975년 1월 1일부터 2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연간 연인원 6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해 직업훈련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의결했다.

세계로 진출(동일방직 안양공장)
안양상의보 제14호(1974년 7월 15일)

1958년 8월 5일 자본금 15억 원으로 창업을 한 동일방직주식회사는 창업 이래 18년 동안 계속 확장하여 3만 추의 방적시설을 10만 추로 확대하고 직포 부문을 광폭자동직기로 일신했다. 금년 말까지 8만 3000추를 증설하고,



1400만 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점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안양상의)

안양상의보 제18호(1974년 7월 15일)

안양상의는 유통질서 확립 운동의 일환으로 중추절을 맞은 지난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판매서비스 개선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권위 있는 심사위원이 점포를 순회하며 평가기준에 의거 점수를 부여했다.



33.5톤 규모의 공장 생산 능력을 확보(고려합섬)

안양상의보 제20호(1975년 1월 15일)

고려합섬은 나일론사 시설을 전부 가동함에 따라 새해부터는 20톤을 풀가동, 생산 판매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려합섬은 '나이론'사 20톤, '모노필라멘트'사 1톤, PP섬유 및 '나이론파이버' 12.5톤 등 도합 33.5톤의 공장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품질 개선을 위한 QC운동이 본격화

안양상의보 제22호(1975년 3월 15일)

품질관리운동본부가 2월 27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 발족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QC운동이 본궤도에 들어서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양적인 확대에 치우쳐 온 경제발전을 질적인 면으로 유도하기 위해 품질관리(QC)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 준비 태세를 갖췄다.

세계적 기업과 계약을 체결(동양나이론)
안양상의보 제23호(1975년 4월 15일)

동양나이론은 올해 '타이어·코드'지의 수출목표를 지난해 실적 700톤에서 올해 400% 증액된 3000톤으로 확정하고 세계적 타이어 메이커인 파이어·스톤·굿이어 및 제너럴·굿리치 등과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4월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72년에 타이어·코드지를 첫 수출한 바 있는 동양나이론은 하반기부터 대외 수출을 강화하여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의 시장을 확보했으며, 올 들어서는 태국의 '타이신' 및 '카멜' 등에 금년 상반기까지 월간 50톤을 톤당 4000달러로 장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의 산업생산활동, 긍정적으로 평가
안양상의보 제29호(1975년 7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경제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날 남덕우 부총리는 지난 5월 중의 산업생산활동은 전달보다 5.3%(전년 동기보다 13.0%), 출하는 전달보다 5.4%(전년 동기보다 17.0%)가 늘어나 활기를 띤 반면, 재고는 전달보다 0.6% 미증에 그쳐 산업생산활동이 전반적인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수출 면에서의 수입 감소로 5월 중 종합경기지수는 전달과 같은 1.1포인트에 머무르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시장에 냉장고 수출을 계약(동남전기)
 안양상의보 제29호(1975년 8월 1일)

전자제품 업계는 냉장고의 해외 수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컴프레서 등 국산화 촉진과 아울러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7월 22일 업계에 의하면 최근 동남전기는 미국 시장에 50L짜리 냉장고 1만 대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 8월 중 1차분 3000대를 선적키로 했다.



현명한 소비자가 경제를 살린다(안양상의)
 안양상의보 제33호(1975년 9월 15일)

이날 소비자 보호 강연회에서 이상윤 상임의원은 “소비자는 스스로 보호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좋은 물건만 사서 모든 상인들로 하여금 좋은 물건만 팔도록 다 같이 협조하자”고 말했다. 이어 강사로 초빙된 이옥기 여사는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불황은 각 가정의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여러분의 가계에 부단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좋은 물건, 필요한 물건만을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안양에 종합공장을 건설(유한양행)
안양상의보 제38호(1975년 12월 1일)

유한양행은 안양공장 부지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종합공장을 새로 건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11월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내년 3월경 5만 평의 용지에 종합공장을 건립하여 연차적으로 본사 공장까지 이곳에 이전시킬 것이라 했다.

2. 1976~1978년의 안양 산업계

섬유·기계·자동차 산업은 밝은 전망이 기대되나, 전자산업은 불안이 지속
안양상의보 제40호(1976년 1월 1일)

섬유산업은 점차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이들 품종 모두가 안정세를 되찾게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자산업은 작년 수출목표 7억 8000만 달러보다 2억 달러 미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공업계는 작년의 불황 속에서도 25% 증가한 데 이어, 금년에는 30%가 신장하여 수출목표 17억 달러가 예상된다. 관광산업은 미래의 경기 전망에 낙관론을 못 펴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면에서도 밝은 전망이 예상된다.



유럽과 중동 시장으로 진출(대한전선) - 전자제품 수출목표 900만 불
안양상의보 제43호(1976년 2월 15일)

1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지난해 대단위 냉장고 전용 공장 가동과 폐쇄회로 TV 생산을 계기로 유럽은 물론 중동 시장까지 수출 활동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전선은 올해 품목별 수출 계획을 TV 12만 8000대, 냉장고 3000대, 선풍기 2만 대, 앰프와 카세트 녹음기, 라디오 등 55만 대 등으로 잡았다.



일본과 홍콩 등 수출에 성공적 발판을 마련(한국병유리)
안양상의보 제47호(1976년 4월 15일)

그동안 수출을 서둘러온 병유리업계는 최근 일본, 홍콩 등지에 사상 처음으로 140만 달러의 일괄 수출 계약을 체결, 선적을 개시함으로써 병유리 수출 증대 가능성과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한국병유리는 시흥군 남면에 위치해 있다)

만성적으로 낮은 임금, 그리고 산업별로도 임금 격차가 발생
안양상의보 제48호(1976년 5월 1일)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은 만성적인 낮은 임금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수도업이 8만 7000원으로 가장 높고, 금융·부동산·용역업이 평균 수준(4만 2000원)으로, 취업인구가 가장 많은 제조업이 3만 5000원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양에 전력케이블 공장 건설을 예정(대한전선)
안양상의보 제49호(1976년 5월 15일)

대한전선은 오는 6월 중 안양시 관양동 755-14에 공장대지로 확보해 놓은 8만 평 부지 위에 건평 5000평 규모의 전력케이블 공장을 착공, 오는 10월 중 준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은 이 공사에 따라 시흥에 남게 되는 전기공장 시설을 대폭 확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철수되는 전선공장의 시설은 전기공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건은? 경영자의 관심이 중요!
안양상의보 제51호(1976년 6월 15일)

태흥무역 안양공장의 관리부 차장이 공장 새마을운동의 성공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공장의 새마을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관심과 함께 단계별 접근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경공업도시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다(안양시)
안양상의보 제52호(1976년 7월 1일)

시 승격 3년을 맞는 안양시는 짧은 기간 동안 획기적인 시세 발전으로 이제는 공업도시로서 쾌적한 전원도시, 경공업도시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이룩했다. 149개소의 생산기업체가 가동하고 있어 공업도시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중앙 및 도 단위의 크고 작은 기관이 들어서 있어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만여 평의 부지에 라면공장 준공 예정(롯데공업)
안양상의보 제57호(1976년 9월 15일)

롯데공업은 지난 7월 경기도 시흥군 남면에 부지 2만 평을 확보하고, 연건평 1만여 평의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공장이 가동되면 하루 250만 개에서 500만 개로 생산량이 약 2배 증가한다.



쌍용제지 공장 인수계획을 밝히다(쌍용그룹)
안양상의보 제59호(1976년 10월 15일)

쌍용그룹은 한독산업의 안양제지 공장(크라프트지 시설)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지업계의 관심을 집중케 하고 있다. 제지업계는 쌍용이 한독을 인수할 경우 크라프트지 제조업계의 판도가 일신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쌍용제지의 현 생산 규모는 일산 100톤으로 되어 있다. 한독 안양공장의 경우 일 85톤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

세제 제품, 중동·아프리카로 시장을 개척(삼흥유지공업)
안양상의보 제62호(1976년 12월 1일)

삼흥유지공업주식회사는 안양시 석수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 생산 품목은 세탁비누, 합성세제, 글리세린, 스테아린산 계면활성제 등이다. 세탁비누와 합성세제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대량 수출을 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안양시에 준공(대한잉크페인트)
안양상의보 제65호(1977년 1월 15일)

각종 도료, 유기안료, 무기안료, 각종 인쇄잉크, 바니스, 합피용 도료,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는 1945년 설립, 1955년 3월 서울 영등포에 공장을 설비했다. 이후 1976년 4월 안양시 박달동 615번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했다.



종합기계 메이커들의 약진, 시작품 개발이 양산체제로 이어지다
안양상의보 제65호(1977년 1월 15일)

종합기계 메이커들은 고성능 공작기계 생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용 엔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중공업은 고속자동선박의 시작품을 개발, 오는 6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현대양행도 뒤늦게 볼링과 밀링머신 등의 공작기계 개발을 추진, 양산체제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대응과 더불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다(서통산업)
안양상의보 제69호(1977년 3월 15일)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여 내수 충당은 물론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서통산업은 안양 6동 603의 3 국도변에 자리 잡고 있다. 서통산업은 본래 유니온흥산주식회사였으나 서울통상그룹이 그간 서울과 유니온의 두 가지 이름을 섞어 사용해오던 상호를 최근 서통을 대표 이름으로 결정했다. 이후 새한정밀은 서통전자, 유니온전기는 서통전기, 유니온섬유는 서통섬유로 이름을 바꾼 바 있다.

안양에 전선생산공장 준공계획 발표(럭키그룹)
안양상의보 제71호(1977년 4월 15일)

럭키그룹이 전선 메이커인 국제전선을 인수하기로 지난 8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럭키그룹은 주식 10억원을 100%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1973년 안양공장 부지 2만여 평에 최신 전선생산공장을 준공하고, 성북구의 기존 공장을 이전했다. 1975년 500만 달러, 1976년 1250만 달러의 전선 수출 실적을 갖고 있는 럭키그룹은 금년 중 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안양에 선박용 블로 제작 공장 준공계획 발표(서원풍력)
안양상의보 제71호(1977년 6월 15일)

서원풍력은 최근 선박용 블로의 첫 수출을 실현했으며, 오는 10월 안양에 건설 중인 대규모 공장을 준공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근 서원풍력은 현대제조공업으로부터 선박용 블로 약 1만 달러어치의 로컬 L/C를 받았다.



경영 현황 점검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이끌다(유한김벌리)
안양상의보 제82호(1977년 10월 1일)

유한김벌리주식회사는 종래의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직장 새마을운동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여러 위원회들을 개편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내실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사회 개발에도 참여하여 사회 속의 기업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일 공장장과 각 부서장들이 전날 생산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있으며, 원가분석회의를 통해 원가절감 항목의 요인들을 토론하고 있다.

과거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양에 공장 건설을 추진(신한전기)
안양상의보 제86호(1977년 12월 1일)

신한애자는 1966년 설립되어 경기도 시흥군 남면에 2만5000평 공장 부지를 확보, 일본으로부터 345만 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공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1973년 한일은행 관리로 넘어간 바 있다. 이후 1977년 9월, 신한전기에서 인수하여 회사 설립 10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공장 건설에는 12억원이 투입된다.

새마을운동에 앞장서다(고려합섬)
안양상의보 제92호(1978년 3월 1일)

경기도 시흥군에 자리 잡고 있는 고려합섬은 1971년 신제품 파피론을 생산했으며, 1972년 나일론스테플 파이버를 생산, 1974년에는 나일론F를 생산하는 등 나일론 종합 시설 국산화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업이다. 고려합섬은 새마을운동의 기반 조성을 위해 조직적인 교육과 실천 등 쉬운 일부터 시작하여 환경미화, 저축운동 등 적극적인 동기부여로 점차 새마을운동이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했다.

소하리에 자동차 공장 확대 계획을 발표(기아산업)
 안양상의보 제92호(1978년 3월 1일)

기아산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내수 및 수출 수요에 대비, 현재 연 5만 대 규모의 소하리 자동차공장의 시설 규모를 오는 6월 말까지 8만 대 규모로 대폭 확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5000대로 세웠던 금년도 각종 자동차 수출 목표도 8000대로 확대,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안양에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의약품 생산공장 건설 계획 발표(동아제약)
 안양상의보 제92호(1978년 3월 1일)

동아제약은 금년 내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의약품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국내 의약품 수요가 앞으로 매년 30%씩 증가할 것에 대비, 이미 확보된 안양시 석수동 410 부지 4만 5000평에 건평 2000평 규모의 대단위 종합의약품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동양나이론, 연속무사고 시간 경신
안양상의보 제96호(1978년 5월 1일)

동양나이론 안양공장은 산업재해를 근절하여 종업원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여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연속무사고 120만 시간에 도전했고, 지난 4월 10일부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재해 근절에 공을 세운 직원들에게는 표창이 있었다.

환경미화 경진대회에서 금성통신을 최우수기업으로 선정
안양상의보 제97호(1978년 5월 15일)

안양상공회의소가 진행한 공장 환경미화 경진대회에서 금성통신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어 동아제약, 금성전선, 대우중공업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평가 항목으로는 환경미화 조성계획 수립 상태, 도로정비 및 하수구 보수사항, 청소 및 미화작업 상태, 화단조성 등이다.

안양시 중앙지하사가 준공,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혼잡 감소를 기대
안양상의보 제98호(1978년 6월 1일)

안양시 안양1동 중앙지하사가 20일 준공됐다. 이 지하사는 지난해 11월 동덕개발주식회사가 민자 7억 3000만원을 들여 착공한 것으로 4개의 출입구와 300평의 지하 보도, 140개의 지하 점포가 시설됐다. 이 지하사가 신설로 하루 7만여 명의 교통인구가 붐비는 조흥은행지점과 서울은행지점 사이의 구간 교통이 혼잡을 면하게 되었다.

미국에 국내 최초 초소형 TV를 수출(동남전기)
안양상의보 제99호(1978년 6월 15일)

동남전기는 국내 최초로 초소형 TV를 개발, 1차로 3만 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1일 업계에 의하면 1974년에 9인치 TV를 개발하여 수출과 시판용으로 내놓았던 동남전기는 최근 국내에서 가장 작은 모델인 5인치 TV에 AM/FM 라디오 LED 시계를 곁들인 콤팩트 TV를 개발했다.

시장·시의원과 함께 지역문제에 대하여 논의(안양상의회)
안양상의보 제104호(1978년 9월 1일)

안양상공회의소는 8월 26일 삼양농원에서 안양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을 초청하여 의원간담회를 개회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의 역점사업을 밝히면서 추석체불노임 일소, 공해방지시설 문제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공업인클럽 회장은 공업용수 부족으로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팔당 취수장이 완료될 때까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했다.



근대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약 90만 평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확정 고시
안양상의보 110호(1978년 12월 1일)

안양시는 시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한편 보다 근대적이며 균형적인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안양시 관양동과 호계동 동부권 내 24만 평과 시흥군 남면 산본리, 금정리, 당정리 등 남부권 내 66만 8000평 등 총 90만 8000평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확정 고시하고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착수하여 1980년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3. 1979~1981년의 안양 산업계

안양에 분산염료공장을 착공하여 첫 생산에 착수(신동아그룹)
안양상의보 114호(1979년 2월 1일)

신동아그룹의 염료 메이커인 태흥산업은 최근 국내 최초로 현대식 분산염료공장을 완공해 생산을 시작했다. 1978년 10월 약 5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도 안양에 연간 800톤 규모의 분산염료공장을 착공, 지난 12월 완공하여 최근 본격 생산에 착수했다.



안양시, 도시형업종 공장 등 기존 억제정책을 완화하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
안양상의보 115호(1979년 2월 15일)

안양시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에 따라 공장의 신증축을 억제해 왔으나, 1월 1일부터 공업배치법 시행에 따라 기존 억제정책을 완화하여 공해업소가 아닌 공장의 신증축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형업종 공장으로 아이스크림제조업, 우유처리업,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제빵업, 목재가구제조업, 인쇄출판업, 시멘트제조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공업배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기로 했다.

안양시 등 지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여 오염방지 정책에 데이터를 제공
안양상의보 116호(1979년 3월 1일)

보건사회부는 올봄에 날로 심각해져가는 수도권의 공해방지사업으로 안양시와 시흥군 지역 11개소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시군 등 지방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인데, 보사부가 수도권의 대기오염 실태를 정확히 측정해 오염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대폭 상승(대농)
안양상의보 119호(1979년 4월 15일)

대농은 금년 들어 3월 말까지 5049만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전년 동기의 3300만 달러에 비해 1742만 달러를 더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50만 추 규모의 대단위 방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농방직은 올해 경영의 초점을 수출에 두고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쇄용지 생산을 비롯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용지 개발(호리제지)
안양상의보 124호(1979년 7월 1일)

경기도 안양시에 세워진 호리제지는 전신이 삼진펄 프로서 그동안 월 1000톤의 용지를 생산해왔으나 지난 1978년 1월 지금의 기계시설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이후 만 1년 6개월 만에 인쇄용지 생산 메이커로 성장하게 되었다. 호리제지는 경쟁 기업들이 가동되면 인쇄용지만이 아닌 벽지, 컴퓨터 용지, 노트 용지 등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력 증대를 위해 안양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삼화콘덴서)
안양상의보 129호(1979년 9월 15일)

삼화콘덴서는 세라믹 콘덴서를 생산하기 위해 3억 5000만원을 투입, 안양공장과 성수동공장 등의 증설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삼화콘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설비를 설치 중인데,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 컬러 TV용 세라믹 콘덴서 생산량이 기존 5500만 개에서 7500만 개로 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양천 정비사업으로 죽어가던 안양천을 되살리다
안양상의보 134호(1979년 12월 1일)

공장 및 생활폐수로 심한 공해를 일으켜 죽어가던 안양천이 되살아나게 됐다. 지난 27일 안양시가 추진 중인 안양천 정비사업 계획에 따르면 3억 8000여 만원을 들여 너비를 100m로 확장하고 직선화했으며, 완전히 썩어 심한 악취가 나는 하수로도 준설한 후 그 위에 모래를 덮었다.

안양에 집열기 생산공장 건설을 계획(럭키)
안양상의보 137호(1980년 1월 15일)

럭키는 올해 총 16억원을 들여 안양에 태양열주택에 사용하는 집열기 생산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지난 8일 이사회에 따르면 럭키는 집열기 생산 전문업체인 미국 그루먼인터내셔널사와 기술제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년 중에 1차로 온수용 집열기 9000대, 난방용 집열기 1만 1000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원자재 확보 전략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도약 기회 마련(쌍용제지)
안양상의보 139호(1980년 2월 15일)

쌍용제지는 올해부터 지종의 다양화와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우선 국내외 수요가 광범위한 고급 화장지 생산을 서두를 방침이다. 또한 원자재의 장기 구매체제 구축을 위해 펄프 등 주원료의 구매 방식을 변경, 장기구매체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원자재 확보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내의 기술력, 세계에서도 인정받다
안양상의보 143호(1980년 4월 15일)

국내 최대 나일론 생산업체인 동양나일론과 국내 슬레이트 시장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스레트가 국내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들 기업은 기술개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면방업계, 장기적인 불황으로부터 벗어나 재도약을 준비
안양상의보 146호(1980년 6월 1일)

장기 불황에 시달려온 국내 면방업계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최근 면방업계는 일본의 엔화 강세와 재고 감소로 8월 들어 대일면방 수출을 재개한 데 이어 중단되고 있던 이란 수출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불황 국면에서 희망적인 조짐을 맞고 있다.



안양공장의 증설을 통해 매출 증대를 꾀하다(삼영화학)
안양상의보 154호(1980년 10월 1일)

삼영화학은 안양 소재 보프필름공장을 304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 대폭 증설한다. 삼영화학 안양공장이 완공되면 월간 250만 톤의 보프필름을 더 생산할 수 있어 연간 매출액이 48억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입찰에서 선진국의 주요 기업을 누르고 낙찰(금성전선)
안양상의보 159호(1981년 1월 1일)

금성전선이 국내 최초로 베네수엘라에 1000만 달러 상당의 케이블을 수출한다. 금성전선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통신케이블 국제입찰에서 낙찰, 현지에서 수주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출 물량은 내년 2월부터 1982년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선적하게 된다. 이번 입찰에서 미국과 일본 기업과 경쟁했으나,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낙찰을 하게 되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확정
안양상의보 163호(1981년 5월 1일)

한국노총 안양지구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이상숙 협의회 의장은 자율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유보 없이 보장키로 확정된 새 헌법에 기대를 걸고, 조국의 안정과 국토의 통일, 민족의 번영을 위한 대의와 정도를 향해 전 국민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자고 했다.

코카콜라병 국제입찰을 통해 이집트에 대량
수출의 길 열어(두산유리)
안양상의보 164호(1981년 6월 1일)

코카콜라병이 이집트에 대량 수출케 됐다.
두산유리는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실시된 국



제입찰에서 영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이집트에 병을 수출하게 됐다. 수출 물량은 코카콜라병 6.5온스 1억2000만 본으로 컨테이너 280대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신제품 치약을 선보여
안양상의보 167호(1981년 9월 1일)

주식회사 럭키는 페리오치약을 새로 개발, 시판에 나섰다. 이 치약은 치주질환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으며 치주염, 치은염, 풍치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소비자가격은 100g에 800원, 150g에 1000원이다.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자 환영회 개최
안양상의보 169호(1981년 11월 1일)

안양상공회의소는 지난 10월 제1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환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금메달을 획득한 금성통신 안양공장의 이종희 선수 외 3명과 은메달리스트인 안양공고의 윤병권 선수 외 3명, 그리고 안양시장과 안양시교육장 등 귀빈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안양상공회의소 회관신축 기공식 열려
안양상의보 170호(1981년 12월 1일)

안양상공회의소 회관신축 기공식이 지난 11월 19일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본 상의는 신축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5회에 걸쳐 부지 7필지, 711평을 매입했으며 1978년 3월 24일 제7차 임시위원총회에서 회관건립추

진위원회 규정 제정 및 추진위원 11명을 선임한 바 있다.



4. 1982~1984년의 안양 산업계

안양시,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인프라에 투자
안양상의보 172호(1982년 2월 1일)

안양시에서는 1986년 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문화진흥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하고 총 210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1986년까지 종합시민회관 건립과 공설운동장을 시설키로 했다.

안양지역의 표준자 모델 임금조사 결과 공표
안양상의보 175호(1982년 5월 1일)

1981년 안양지역 표준자 모델 임금조사 결과 이전보다 평균 12~1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사는 대졸 남성 사무직과 행정직, 전문대졸 남성 생산직, 고졸 생산직 등으로 구분하여 임금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사무직 남성의 경우 초봉 기준으로 22만 7000원, 고졸은 14만 800원이었으며, 생산직 남성의 경우 초봉 기준으로 23만 6000원, 고졸 14만 3000원으로 조사되었다.

폐수처리시설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다(유한킴벌리)
안양상의보 177호(1982년 7월 1일)

활성 슬러지법으로 폐수 중에 있는 호기성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폐수처리 시설인 JAC(Jet Aeration Channel) 시스템이 지난 6월 21일 유한킴벌리 안양공장에서 준공되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양시장, 노사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안양상의보 178호(1982년 8월 1일)

안경진 안양시장은 기업경영의 민주화와 공개의 원칙에서 노사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전 사원들이 공장을 제2의 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대화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을 당부했다.

안양시 내 제조업체의 임금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안양상의보 181호(1982년 11월 1일)

1982년도 안양지역 제조업체의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던 바, 임금 문제에서 임금 수준 결정 방법은 동 업종 동 규모의 타 회사 수준에 많은 비중을 두

어 결정했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에 쇼핑센터 개점 계획을 밝혀(대한조선공사)
안양상의보 181호(1982년 11월 1일)

대한조선공사는 안양에 대형쇼핑센터를 12월 초 개점 예정이다. 10월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공은 유통업이 미래산업으로 각광받자 도시 외곽에 교외형 쇼핑센터의 성격으로 소매업에 진출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첫 번째 사업지역으로 안양에 쇼핑센터를 착공했다.

안양지역의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10.2%p 줄어
안양상의보 185호(1983년 3월 1일)

1982년 중 안양지역의 서비스 요금은 지난해보다 13.1%가 상승하여 1981년도 상승률 23.3%보다 10.2% 포인트가 줄었다. 1982년 중 상승률이 높았던 요금은 의복 관계 요금으로 1년간 51.7%가 올랐고, 수도 관계 요금은 32.1%가 올랐다. 또한 주택 관계 요금(14.1%), 교육 관계 요금(14.0%)도 1981년도에 비해 14% 정도 올랐다.

수도권으로의 원활한 공장 이전을 위해 반월공단 내 새 부지 조성 추진
안양상의보 187호(1983년 5월 1일)

반월공단은 수도권 공해공장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 32만 평의 새로운 공장부지를 조성, 분양기로 했다. 반월공단은 지난 1977년부터 지난해 까지 조성한 204만 평의 산업용지는 이미 457개 업체가 입주해 공장 부지가 없는데도 최근 50여 입주희망 업체가 20만 평을 신청하고 있어 용지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32만 평의 새 공장 부지를 조성기로 했다.



전화기 생산 500만 대 돌파(금성통신)
안양상의보 193호(1983년 11월 1일)

금성통신이 국내 최초로 통신기기 사업에 착수한 지 23년 만에 전화기 생산 500만 대를 돌파했다. 금성통신은 지난 1960년 체신1호 전화기 생산을 필두로 전화기 보급에 앞장서온 이후 20여 년간 체신 70형, GS-1000형, 페트폰 등 수십 종의 전화기를 자체 개발 및 공급해왔다.



안양지역 제조업체, 두드러진 회복세에 경기전망 밝아
안양상의보 196호(1984년 2월 1일)

1984년도 1/4분기 중 안양지역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경기 전망은 금속·기계 및 전기·전자 제조업의 내수판매가 활력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도 기계·금속, 제지 및 섬유제품 등의 두드러진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전망이 비교적 안정세를 띠고 있다.

안양공장 부지 내에 광섬유 생산공장 건립 예정(금성광통신)
안양상의보 196호(1984년 2월 1일)

금성전선은 세계 최대의 광섬유제조 및 판매회사인 미국 AT&T 그룹의 ATTI사와 최첨단 수준의 광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금성광통신주식회사를 합작 설립한다. 금성광통신

은 금년 중 안양에 있는 금성전선 공장 부지 내에 5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연간 3만km의 생산 능력을 갖춘 광섬유 생산공장을 건립하여 국내 수요 충족은 물론 1988년까지 수입대체 및 수출에 의해 1억 2000만 달러의 국제수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양상공회의소, 양양 결의대회를 개최
안양상의보 199호(1984년 5월 1일)

안양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상도의 양양(진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직, 질서, 창조라는 3대 이념을 근간으로 부정부패 심리추방, 무질서 심리추방, 물가오름세 추방이라는 3대 심리추방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단계를 넘어섰고, 주인의식 함양, 책임의식 함양 등 9대 실천요강을 전 국민의 호응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양지역 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안양상의보 200호(1984년 6월 1일)

상공업자 실태조사를 마친 후 안양지역의 기업구조에 대한 소감을 담은 기사로서, 당시 전체 560여 개의 업체 중 1년 사이에 50여 개가 휴업·폐업되며, 이들 대부분은 중소기업체인 것으로 확인됨을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보여준다.

부곡에 국내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기지 완공
안양상의보 202호(1984년 8월 1일)

경기도 부곡역(현 의왕역)에 한국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기지가 완공되었다. 남부화물기지는 컨테이너, 양회, 일반 화물, 무연탄기지 총 1000만 톤 규모의 화물수송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1979년 5월에 착공, 1986년 이후 완공 예정이며, 그 1단계로 컨테이너 기지를 준공하여 이날부터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안양시에 기업활동 애로사항 전달(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보 203호(1984년 9월 1일)

안양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철로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철로변에 인접해 있는 서진산업, 보령제약, 태흥산업, 한림전자, 범양냉방의 공장 및 부대시설이 철거하게 되어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이의 재조정을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안양시장에게 건의했다.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신규 공장 건설 및 가동 시작(유한사이나미드)
안양상의보 205호(1984년 11월 1일)

유한사이나미드는 최근 안양에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새 공장을 건설, 가동에 들어갔다. 총 공사비 24억 5000만원을 들여 준공된 이 공장은 대지 2800여 평, 건평 700평 규모로 고단위 종합비타민 게브랄티와 비타민 B 복합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영남지역 산업시찰 실시(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보 205호(1984년 11월 1일)

안양상공회의소는 지난 10월 1박 2일간 한미 친선 영남지역 산업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에는 미8군 지역사령관 등 미장병 27명과 본상의 한근이 의원 등 총 30여 명이 참가하여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과 포항의 포항종합제철 등을 견학했다.



5. 1985~1987년의 안양 산업계

안양공장 새마을운동 추진 지부, 종합평가대회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
안양상의보 207호(1985년 1월 1일)

안양공장 새마을운동 추진 지부는 지난 12월 대회의실에서 종합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평가대회는 1984년도의 공장새마을운동 우수 추진사례와 새로운 추진기법 및 사업을 발굴 보급하여 동 운동의 저변 확산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회였다. 중소기업 부문에서 강남화성이, 대기업 부문에서는 두산유리가 각각 금상을 차지했다.

안양 내 기업체 통근버스 하차장 설치를 건의(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보 208호(1985년 2월 1일)

안양 관내를 경유 내지 왕래하는 기업체의 통근버스는 기아산업을 비롯해 금성전선 등 239개 업체에서 543대가 1일 평균 3.7회를 운행하여 약 5만여 명의 근로자를 출퇴근 시키고 있다. 500대가 넘는 버스로 인해 안전하게 하차할 곳을 임의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기술연구단지 준공식 거행(럭키금성그룹)
안양상의보 208호(1985년 2월 1일)

럭키금성그룹은 지난 1월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첨단기술연구단지인 럭키금성 제1연구단지의 준공식을 거행했다. 총 830억원을 들여 1983년에 착공, 이번에 완공했다.



경기도 공장새마을운동 품질관리 경진대회에서 금상 수상(고려합섬과 한일공업)
안양상의보 216호(1985년 10월 1일)

경기도 품질관리 추진본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업표준협회 경기지부와 공장새마을경기도 추진협의회가 주관한 1985년도 경기도 공장새마을 품질관리 경진대회에서 고려합섬과 한일공업 시흥공장이 각각 금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레이저 발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금성전선)
안양상의보 217호(1985년 11월 1일)

공업용 레이저의 국산화가 이뤄졌다. 금성전선은 작년 초부터 공업용 레이저의 개발에 착수, 고도의 정밀설계와 구조적인 안정성이 요구되는 레이저 발진기를 독자적인 설계로 제작했으며 현재 상용화 특성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키사와 한국에 현지 합작법인 설립(삼양통상)
안양상의보 220호(1986년 2월 1일)

미국의 나이키사가 국내 스포츠용품 수출 전문기업인 삼양통상과 한국에 현지 합작법을 설립, 오는 3월부터 나이키 신발 내수판매 활동을 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와 삼양통상은 50 대 50의 합작비율로 한국 내수판매를 설립기로 합의하고 늦어도 오는 3월부터는 본격적인 나이키 신발 판매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했다.



세계 두 번째로 염증 치료제에 쓰이는 항생제를 개발(동아제약)
안양상의보 223호(1986년 5월 1일)

동아제약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페렴·골수염 등 각종 염증 치료제의 원료로 쓰이는 항생제를 개발, 대량생산에 들어감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은 물론 연간 약 300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양자가 총 10억원의 연구비를 개발했으며, 이는 미국의 브리스톨 마이어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뤄졌다.

안양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공장새마을 성공사례 발표대회, 성황리에 마쳐
안양상의보 229호(1986년 11월 1일)

안양상공회의소는 지난 10월 공장 새마을 성공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회원업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양제지공업 강인배 씨가 '분임활동의 긍지를 가지고'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외 성일통상, 국제전선, 고려합섬, 한국제지, 대우통신 소속의 노동자들도 수상했다.

안양지역의 교통량, 전년 대비 20.8% 증가
안양상의보 229호(1986년 11월 1일)

안양상공회의소는 안양지역의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전년 대비 20.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객용 차량은 20.4%, 화물은 19.8%가 증가했으며, 특히 안양과 반월 간 교통량은 31.2%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간	조사장소	노선명	은행대수		증감율(%)
			1985년	1986년	
안양-서울	석수동 검문소	국도	34,851	36,442	4.6
		산업도로	23,805	32,772	37.7
		관양로	19,680	23,244	18.1
	소 계	78,336	92,458	18.0	
안양-수원	군포삼거리	산업도로	23,288	26,616	14.3
		국도	13,017	15,143	16.3
	소 계	36,305	41,759	15.0	
안양-반월	군포건널목 앞	금화로	15,732	20,648	31.2
안양-군자	농민교육원입구	군자로	6,880	13,797	100.5
시내	한일은행앞	중앙로	29,602	32,871	11.0
		총 계	166,855	201,533	20.8

안양지역의 임금조사 실시(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보 232호(1987년 2월 1일)

안양상공회의소가 1986 표준자 모델 임금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력 간 임금 격차는 좁아지고 근속연수에 따라 남녀 격차는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무직 대졸 남성 사원은 초봉 기준으로 29만 8862원, 사무직 고졸 남성 사원은 초봉 기준으로 20만 5717원으로 확인된다. 사무직 고졸 여성 사원은 초봉 15만 9266원으로 확인된다. 생산직의 경우 대졸 남성 초봉은 30만 2667원, 전문대졸 사원은 초봉 24만 3800원으로 조사되었다.

1987년 안양지역의 경기, 대체로 상승세인 것으로 확인
안양상의보 234호(1987년 4월 1일)

안양지역 기업경기는 1987년 1/4분기에 섬유, 화학,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 주종 산업의 경기 상승으로 신장세를 유지했고, 1987년 2/4분기에도 수출경기 호조,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저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엔화 강세로 지역 주종 산업인 섬유 및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의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시장 확대가 맞물려 경기 상승이 초래되어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용 소형모터 신축공장 준공식 가져(만도기계)
안양상의보 238호(1987년 8월 1일)

만도기계는 7월 대단위 자동차용 소형모터 신축공장의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안양에 위치한 이 공장은 지난 1985년 하반기 125억원을 투자·착공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모두 600만 대에 이른다.

6. 1988~1989년의 안양 산업계

안양지역 제조업체 임금, 전년 9월 대비 7.5~21.5%까지 인상한 것으로 확인
안양상의보 244호(1988년 2월 1일)

안양지역 제조업체의 표준자 모델 임금은 1987년도 9월 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상률은 최저 7.5%에서 최고 25.1%까지 인상 조정되었는데, 사무직은 대졸 남자 사원 초임이 32만 7000원, 대리 초임은 47

만 2000원, 과장 초임은 56만 6000원, 차장 초임은 70만 1000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여자가 남자보다 21.7% 낮은 78.3%로 지난해 77.5%보다 0.8%포인트 좁아졌다.

안양지역의 공공요금 인상률, 1986년 대비 4.3%p 하락한 것으로 확인
안양상의보 245호(1988년 3월 1일)

1987년 안양지역의 공공 및 서비스 요금은 4.1%가 상승하여 1986년도 인상률 8.4%보다 4.3%포인트가 하락되었다. 1987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요금은 보건위생 관계 요금으로 1년간 11.0%가 올랐고, 주택 관계 요금은 10.2%, 교육 관계 요금은 9.1%, 의복 관계 요금은 5.6% 상승했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없었던 요금은 전기요금, 철도요금, 버스운송요금, 해운요금, 영화관람료, 주택임대료, 담배요금, 연료세, TV 시청료 등으로 나타났다.

2/4분기 기업경기는 전분기에 비하여 상승 국면인 것으로 확인
안양상의보 246호(1988년 4월 1일)

지난 1988년 1/4분기 중 안양지역 기업경기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 인상 및 원화절상의 지속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 비수기 업종 증가 등으로 경기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1988년 2/4분기 중에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 확대 등과 아울러 비수요기를 벗어난 일부 업종들의 내수회복으로 생산과 출하가 크게 늘어나고 가동률도 높게 올라가는 등 활발한 경기 상승 국면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지역의 제조업체, 생산관리 부문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안양상의보 248호(1988년 6월 1일)

1987년 중 안양지역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영 부문은 생산관리 부문이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사관리 부문이 24.0%, 마케팅관리 부문이 23.1%, 재무관리 부문이 22.7% 순으로 나타나 애로 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생산·마케팅관리 부문이 감소 현상을 보인 반면 인사·재무관리 부문의 애로는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형공장 설치를 관계기관에 건의(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보 251호(1988년 9월 1일)

안양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말 안양시에 아파트형 공장 설치를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안양시는 지난 1973년도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1977년도의 공업배치법 제정, 1982년도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등으로 공장의 신·증축이 억제되어 생산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있고, 또한 많은 업체들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박달동 지역의 기업체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
안양상의보 251호(1988년 9월 1일)

안산시의 반월공단과 국제항구인 인천시를 연결하는 박달로(군자로)는 교통량이 크게 늘어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박달동에는 1987년 말 현재 기업체 수가 88개로 안양시 전체 기업체의 12.0%를 차지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조립·금속기계업이 41개로 전체의 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 화학업이 21개로 23.9%, 비금속광물업이 10개로 1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섬유·의복업이 각각 3개나 되었고 기타 업은 4개로 나타났다.

안양지역 제조업체 임금, 전년 9월 대비 4.3~12.9%까지 인상한 것으로 확인
안양상의보 255호(1989년 1월 1일)

안양지역 제조업체의 표준자 모델 임금은 1988년도 9월 말을 기준할 경우 인상률은 최저 4.3%에서 최고 12.9%까지 인상 조정되었다. 성별 간 임금 격차는 여자가 남자보다 21.1%가 낮은 78.9%로 지난해 78.3%보다 0.6%포인트 좁아졌으며, 고졸과 대졸의 학력 간 임금 격차도 대졸 초임에 비하여 고졸 초임은 25.8%가 낮은 74.2%로 전년도 70.4%보다 3.8%포인트가 좁아졌다.

사원들의 자율적 근무를 장려하는 혁신적인 기업경영방식 선보여(삼아약품)
안양상의보 256호(1989년 1월 15일)

삼아약품은 국내 최초로 주5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고, 출근부를 없애고 근태관리는 자율에 맡기는 등 종업원과의 공동운명체를 강조하고 있다. 경영주가 직원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1979년부터 출근부를 없애고, 사원들의 결근, 지각, 조퇴 등의 근무 태도를 일체 관리하고 있지 않다. 복지후생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1978년도부터 1개월에 1권의 교양도서를 구입하여 전 사원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안양지역의 공공요금 인상률,
지난해인 1987년에 비하여 0.7%p 둔화된 3.4% 상승된 것으로 확인
안양상의보 258호(1989년 2월 15일)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안양지역의 공공 및 서비스 요금을 조사 분석한 바에 따르면, 1988년 중에 3.4%가 상승하여 지난해 4.1%에 비하여 0.7%포인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요금은 주택 관계 요금으로 연간 20.3% 인상되었고 레저 관계 요금의 경우도 다방요금과 영화관람료 등의 일부 인상으로 4.1% 상승했다. 전년도와 변동이 없었던 요금으로는 수도요금과 철도요금, 우편, 전화 등의 체신 관계 요금으로 확인되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원활한 노사관계를 구축(한국제지)
안양상의보 261호(1989년 4월 1일)

안양천변인 안양1동 90번지에 2만 4000평의 부지와 9700평의 건평을 가지고 644명의 근로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제지는 일찍이 1971년 6월에 이미 기업을 공개했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를 활용하여 경영을 합리화했다.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노사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고충 처리 확대, 합리적인 인사관리 등 노무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안양지역 내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체 간 회의 개최
안양상의보 263호(1989년 5월 1일)

이날 회의는 최근 각 기업체의 임금인상 등 일련의 노사문제와 관련 노사분규가 순수한 노동단체의 활동 범주를 벗어난 외부세력 개입 및 이들과 연계된 위장취업자 등 불순근로자로 인해 점차 과격해지고 장기화됨을 크게 우려, 노무관리 회원들은 이에 성실히 대처함은 물론 상호 신속 정확한 정보 교환을 통해 개별 기업과 안양지역의 노사문제가 하루속히 평정을 되찾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창사 20주년을 맞아 안양에 중앙연구소 개관(오뚜기)
안양상의보 264호(1989년 5월 15일)

오뚜기 중앙연구소가 지난 5월 5일 창사 20주년을 맞아 안양시 평촌동 166-4번지에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내부는 각 분야별 연구실과 시험실 및 세미나실, 컴퓨터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안양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안양노동복지회관 개관
안양상의보 265호(1989년 6월 1일)

안양지역 20만 근로자 복지의 전당인 안양노동복지회관이 지난 5월 30일 개관했다. 해당 회관은 안양8동 377번지에 위치, 대지 839평, 연건평 652평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11억원을 들여 완공하게 되었다. 시설은 지하 1층에 목욕탕, 이발소, 기계실을 설치했고, 지상 1층에 대형 구판장을 설치하여 생활필수품을 공장도 가격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한다.



임상실험을 통해 만성 백혈병과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개발(럭키)
안양상업보 267호(1989년 7월 1일)

럭키 중앙연구소 유전공학연구팀은 지난 1984년부터 동사의 미 현지법인과 공동개발 작업에 나서 이에 대한 임상실험을 6개 대학 종합병원에서 실시, 만성 백혈병 및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럭키는 유전자 조작과 정제 방법에 대한 특허 2건을 신청했으며 양산설비인 대규모 전자동 바이오 리액터 설치를 이미 완료하고 보사부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 금년 내로 양산체제를 갖추 계획이다.



안양에 60억원을 들여 제2 반응성 공장 건설 추진(태흥산업)
안양상업보 272호(1989년 9월 15일)

종합 염료 메이커인 태흥산업이 안양공장에 제2 반응성 공장을 계획하고 지난 8일 기공식을 가졌다. 총 60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제2공장은 총 2000톤의 생산 규모로 1, 2차로 나누어 건설하게 된다.



창립 92년을 맞아 새로운 포부를 밝혀(동화약품)
안양상의보 273호(1989년 10월 1일)

우수의약품 생산에 정진해온 동화약품이 9월 25일 창립 92주년을 맞았다. 1897년 국내 최초의 제약회사로 출발, '좋은 약을 대중에게 보급한다'는 숭고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약 1세기 동안 국내 최장수 의약품인 '활명수'를 비롯해 약 190여 종의 우수의약품과 20여 종의 원료 의약품을 생산, 명실공히 제약업계의 선구자로서 그 일익을 담당해왔다.

섬유제조업은 쇠퇴 국면, 제지·인쇄·출판·화학·기계금속업은 밝은 전망이 예상
안양상의보 275호(1989년 11월 1일)

안양지역의 주종 산업인 섬유제조업의 1989년 4/4분기 경기는 전분기에 이어 기준치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제지 및 인쇄·출판업은 경기가 수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 제지업계의 전반적인 경기는 전분기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제조업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감소되는 양상이다. 기계·금속업은 전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업의 경우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과 자동화, 신제품 개발 투자 등으로 전분기보다 생산활동에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1, 경기도 현대 산업근거지 조사보고서.
노루, 2015, 노루70년사.
동아제약, 2002, 동아제약 70년사.
동화약품, 1998, 동화약품 100년사.
안양상공회의소. 1973-1989, 각 연도별 안양상의보.
안양상공회의소. 1990, 안양상의 20년사.
안양시 기획경제실, 2021, 월간 기업정보.
안양시 기획경제실, 2022, 월간 기업정보.
안양시, 2000, 안양비전 21 마스터 플랜.
안양시, 2010, 안양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2030.
안양시, 2008, 안양시사 1~8권.
안양시, 2024, 기업지원사업 안내.
오투기, 2021,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유승필, 2019, 아이러브 유유: 사람을 살리는 약, 78년 유유제약 이야기. 학교재.
유유제약, 2021, 유유제약 80년사.
정몽원, 2012, 한라그룹 50년사, 한라그룹.
한국제지, 1993, 한국제지 35년사.

웹페이지

- 각 기업별 홈페이지.
통계청 안양시 지역데이터.

기사

- 김성화, “오투기 ‘제43회 흰지팡이의 날’ 감사패 수상”, 아이뉴스24, 2022.10.14. (<https://www.inews24.com/view/1528581>)
김세형, “오투기, 안양공장 부수고 새로 짓는다”, 스마트투데이, 2023.12.08.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431>)

김진호, “지원금에 땅값 챙기려던 대규모 공장들 비틀”, 경기신문, 2005.07.03.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1899>)

노루페인트 공식 블로그, “서울 전시 추천! <프랑코 폰타나 : 컬러 인 라이프> 사진전”, 네이버블로그, 2022.10.05. (<https://blog.naver.com/noroooblog/222892165895>)

미상, “삼영하드보드 하드보드 대미수출밥야”, 매일경제, 1976.03.10. (<https://www.mk.co.kr/news/economy/313790>)

미상, “금호전자, 동남 공장 매입”, 『중앙일보』, 1978.09.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1492379>)

박미주, “도심속 식품공장 외곽으로... 오투기 공장 평촌서 이전한 사연”, 『머니투데이』, 2021.10.1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1515530894639>)

박승봉, “최대호 안양시장 착한기업 감사패 전달... 기부문화 선도에 감사”, 『뉴스핌』, 2021.06.22.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22000378>)

박은정, “1966년 12월 3일 토요일(2면) 하이타이”, 『경남일보』, 2016.01.05. (<https://www.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989>)

이내찬, “버려야 풀린다, 단말기 제조 분리로 전화 적체 해소”, 『전자신문』, 2024.07.28. (<https://www.etnews.com/20240726000059>)

이배운, “최대호 안양시장, 인탑스·휴비덕 등 착한기업인 초청 감사패 전달”, 『이뉴스투데이』, 2021.06.22. (<https://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620>)

이보라, “노루페인트, 셀프인테리어 시장 공략 박차”, 헬스토마토, 2021.03.25. (<http://www.healthtomato.com/view.aspx?seq=1033599>)

이재윤, “셀프는 기본, 바이러스까지 차단... 페인트의 진화”, 『머니투데이』, 2021.04.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913041810896>)

이정범, “(주)금성통신”, 『안양광역신문』, 2021.09.09. (<http://www.anyangnews.net/front/news/view.do?articleId=32676>)

이지은, “종이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월수입 3억짜리 변신”, 『조선일보』, 2023.11.13.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4/20/SCGF2S2XQ5G65NKBYE2NJ6YYBM/)

이진희, “(주)휴비덕, 안양시에 비접촉 체온계 1,000개 전달”, 『경기헤럴드』, 2021.04.19. (<http://m.ggherald.com/view.php?idx=54160>)

장순철, “착한기업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만들기... 시·(주)휴비덕, 체온계 기부”, 『경기신문』, 2021.04.19.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40802>)

- 최병렬, “정문에서 본 크라운제과 안양공장 전경”, 『오마이뉴스』, 2007.08.2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A000667391)
- 최병렬, “과자 만들던 공장에 첨단 IT빌딩 신축한다”, 『오마이뉴스』, 2007.08.2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30846)
- 최병렬, “크라운제과 안양공장 매각 결정”, 『오마이뉴스』, 2007.08.0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7134)
- 최운정, “노루그룹, 2년 연속 ‘프리즈 서울 2023’ 공식 파트너 참가”, 『조선비즈』, 2023.09.04. (https://cbiz.chosun.com/svc/bulletin/bulletin_art.html?contid=2023090401071)

註

- 1 안양상공회의소는 1970년 설립되었으며, 2017년 12월 안양과천상공회의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안양 및 과천 지역의 유일한 종합경제단체이며, 상공업계에 종사하는 회원 및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02 안양 산업환경과 공업지역의 공간분포

제1장 산업대분류별 현황과 특성

제2장 안양 공업지역 내 산업의 공간분포

제3장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현황과 운영



안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면적의 확대가 불가능하다. 또한 산업 입지상 유리한 위치지만 높은 지가로 인해 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 안양시 도시기본계획(2023년도 기준)에 따르면,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중 공장용지 면적은 1.381㎢로 안양시 전체 면적의 약 2.4%를 차지한다.

1장

산업대 분류별 현황과 특성



황주성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1. 안양시 산업 현황

‘데이터로 보는 안양’의 ‘산업·경제’카테고리에서는 안양시 산업 현황과 주요 경제지표, 그리고 소비 관련 데이터 및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안양시 사업체 수는 6만 6594개, 종사자 수는 28만 2736명으로 공시되어 있다. 아쉽게 ‘데이터로 보는 안양’에는 최신 자료(2023년 사업체 조사 기준)만 공시되어 있으므로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사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안양시는 2014년부터 홈페이지(통계정보)에서 사업체 조사 자료를 공시하고 있는데, 2025년 현재 2005년 자료부터 2023년 자료까지 열람할 수 있다.



데이터로 보는 안양, 「산업/경제」

다음의 표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안양시 사업체 수는 199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1995년에 3만 877개였던 사업체 수는 2023년에는 6만 6594개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15년 이후부터는 사업체 수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00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 원인은 『안양학논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양지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양시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연구의 서론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 내수 침체와 지역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등으로 산업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지역경제의 일시적 정체 및 침체를 경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1995년에는 15만 9271명이었던 종사자 수가 2023년에는 28만 2736명으로 약 1.78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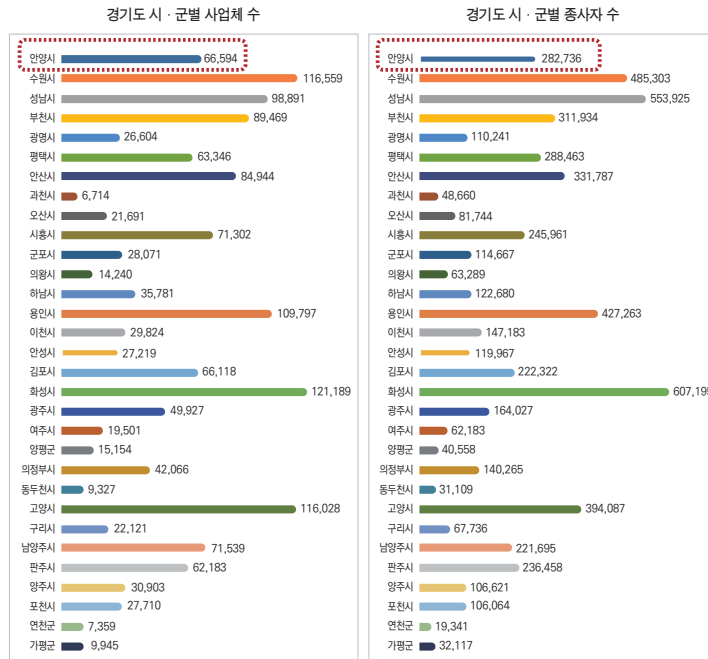
사업체 수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20년의 증감률이 45.2%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4만 5375개의 사업체 수가 유지되다가 2020년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사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2005년 대비 2010년에는 20.0% 증가율을 보였다. 1995년 대비 2000년에는 1.1% 감소했지만, 2000년 대비 2005년은 13.3%, 2015년 대비 2020년은 12.8% 증가했다. 약 5년 주기로 10% 정도의 종사자 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1995년도에는 5.2명이었으며, 2000년과 2005년에는 4.8명, 2010년과 2015년에는 5.3명과 5.4명이었다가 2020년 이후 4.2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 사업체 수는 급증했지만 종사자 수는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소규모 사업체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표 1〉 안양시 사업체 및 종사자 수 현황(1995~2023)

기준 연도	사업체 수(개)	증감률(%)	종사자 수(명)	증감률(%)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명)
1995	30,877	-	159,271	-	5.2
2000	32,976	6.8	157,493	-1.1	4.8
2005	37,501	13.7	178,502	13.3	4.8
2010	40,740	8.6	214,264	20.0	5.3
2015	43,617	7.1	237,022	10.6	5.4
2020	63,348	45.2	267,279	12.8	4.2
2023	66,594	5.12	282,736	5.78	4.2

자료 : 각 연도 사업체조사, 1995년과 2000년도 자료는 안양시사(2008) 참조



『안양학논총』 제3호²에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등을 제시하며 안양시의 산업 분야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와 기초자치단체로는 가장 많은 액수인 5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진흥자금 등의 영향으로 2000년 2월 기준 안양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82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했다. 과거 섬유와 기계 및 제지 산업 등이 주도하던 안양의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전기, 전자, 정밀과학, 의료기기,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로 주력 업종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벤처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형 첨단 벤처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벤처밸리를 추진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의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 수는 156만 2116개이며, 그중 56만 5899개(36.2%)는 여성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사업체 조사 결과는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어 제시되는데 안양시가 포함된 남부의 전체 사업체 수는 116만 2935개이고, 그중 안양시의 사업체 수는 6만 6594개다. 즉 안양시의 사업체 수는 경기도의 4.3%, 경기도 남부의 5.7%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화성시(12만 1189개)이며, 안양시는 규모상 10위에 해당한다.

경기도의 전체 종사자 수는 618만 7581명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중 안양시는 28만

2736명으로 경기도 전체 종사자의 4.6%를 차지하며 규모상 9위에 해당한다. 종사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6만 459명(경기도 남성 조사자의 4.5%), 여성은 12만 2277명(경기도 여성 종사자의 4.7%)으로 남성 종사자 수가 더 많다. 다만 경기도 내에서 남성 종사자 수는 9위, 여성 종사자 수는 8위를 기록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표 2〉 경기도 시군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23		사업체 수(개)	여성 대표자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 전체(명)	남자 종사자 수(명)	여자 종사자 수(명)
경기도 전체		1,562,116	565,899	6,187,581	3,583,904	2,603,677
남부	소계	1,162,935	418,184	4,832,088	2,840,649	1,991,439
	안양시	66,594(10위)	24,132(8위)	282,736(9위)	160,459(9위)	122,277(8위)
	수원시	116,559	46,007	485,303	255,209	230,094
	성남시	98,891	37,059	553,925	312,805	241,120
	부천시	89,469	32,220	311,934	163,060	148,874
	광명시	26,604	9,754	110,241	61,880	48,361
	평택시	63,346	23,502	288,463	181,476	106,987
	안산시	84,944	29,340	331,787	199,347	132,440
	과천시	6,714	2,542	48,660	29,316	19,344
	오산시	21,691	8,159	81,744	44,472	37,272
	시흥시	71,302	23,346	245,961	151,332	94,629
	군포시	28,071	10,053	114,667	63,783	50,884
	의왕시	14,240	5,143	63,289	38,404	24,885
	하남시	35,781	13,112	122,680	68,714	53,966
	용인시	109,797	41,875	427,263	243,316	183,947
	이천시	29,824	10,040	147,183	92,145	55,038
	안성시	27,219	9,022	119,967	75,391	44,576
	김포시	66,118	23,713	222,322	133,991	88,331
	화성시	121,189	40,639	607,195	407,395	199,800
	광주시	49,927	16,591	164,027	99,192	64,835
여주시	19,501	5,896	62,183	37,137	25,046	
양평군	15,154	6,039	40,558	21,825	18,733	
북부	소계	399,181	147,715	1,355,493	743,255	612,238
	의정부시	42,066	16,675	140,265	67,394	72,871
	동두천시	9,327	3,806	31,109	15,592	15,517
	고양시	116,028	44,025	394,087	206,581	187,506
	구리시	22,121	8,361	67,736	34,997	32,739
	남양주시	71,539	26,425	221,695	118,977	102,718
	파주시	62,183	22,434	236,458	142,116	94,342
	양주시	30,903	10,819	106,621	61,687	44,934
	포천시	27,710	8,890	106,064	66,689	39,375
	연천군	7,359	2,325	19,341	11,783	7,558
	가평군	9,945	3,955	32,117	17,439	14,678

출처: 경기도 사업체조사 결과(KOSIS)

2. 안양시 공장 현황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안양시에는 1799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총 종업원 수는 3만 104명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1043개(57.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종업원 수도 1만 8163명으로 가장 많다. 안양시에 등록된 공장은 절반 이상이 전기전자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1970년대에는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도시였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조립금속, 기계장비 제조업으로 점차 전환되었다.³



업종별 공장업체 수 및 종업원수

〈표 3〉 안양시 공장 현황(2025.06.0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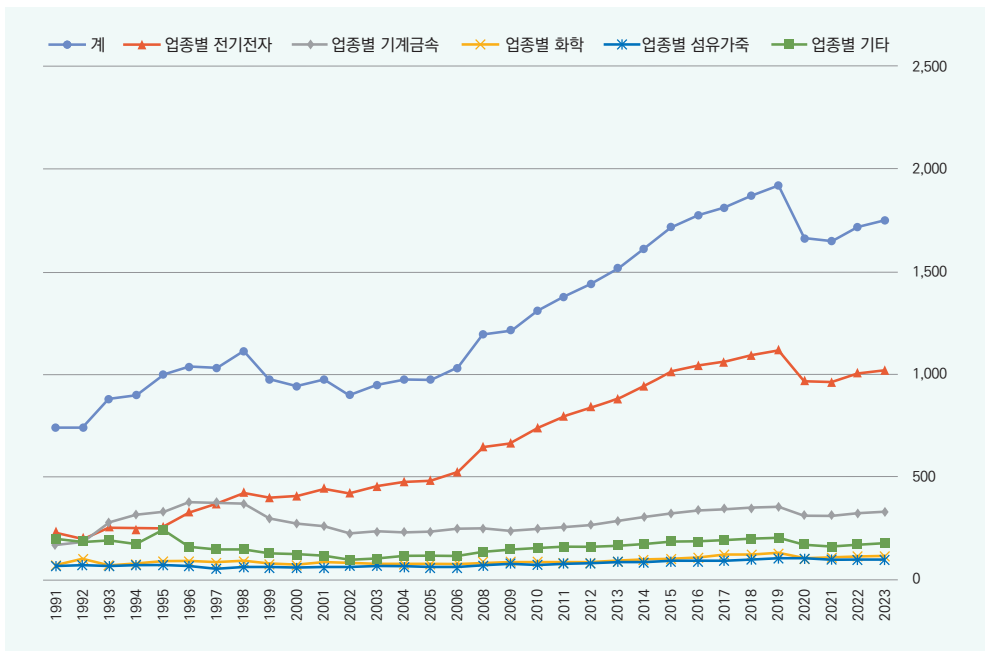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섬유가죽	식음료	기타
업체 수(개소)	1,799	1,043	347	124	100	48	137
종업원 수(명)	30,104	18,163	4,383	2,514	1,787	1,502	1,755
분포	100%	57.98%	19.29%	6.89%	5.56%	2.67%	7.61%

출처: 안양시 홈페이지 공장 등록 현황

안양시 홈페이지에는 199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공장 현황을 업종별로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전기전자와 기계금속의 비중이 높았고, 2008년부터 전기전자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기계금속 수가 전기전자보다 많았지만, 이후 전기전자 업종이 급속도로 성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전자 업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갑자기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계금속 업체도 2019년 357개에서 2020년에는 315개 업체로 줄어들었지만, 2022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안양시 공장 현황(파란선)은 전기전자 업종(주황선)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 초반에도 확인할 수 있다.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장이 증가했으나 1998년 1104개였던 공장이 1999년에는 976개로 감소했고, 2002년에는 898개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다. 이는 안양시의 공장 현황이 경제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2003년을 기점으로 공장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도 및 업종별 공장 현황 그래프

〈표 4〉 연도 및 업종별 공장 현황

연도	계	업종별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섬유가죽	기타
2023	1,748	1,022	329	119	99	179
2022	1,721	1,008	325	117	98	173
2021	1,647	963	310	112	100	162
2020	1,663	966	315	108	102	172
2019	1,919	1,120	357	129	106	207
2018	1,872	1,092	353	127	100	200
2017	1,816	1,062	347	122	94	191
2016	1,778	1,047	341	112	94	184
2015	1,721	1,014	326	107	90	184
2014	1,612	941	307	101	87	176
2013	1,516	879	289	93	86	169
2012	1,441	845	266	89	79	162
2011	1,380	798	254	89	80	159
2010	1,308	745	249	87	74	153
2009	1,217	668	240	84	78	147
2008	1,194	649	248	86	74	137
2006	1,033	529	247	79	59	119
2005	978	482	239	80	62	115
2004	975	476	231	80	70	118
2003	952	460	235	81	68	108
2002	898	420	226	85	67	100
2001	977	446	264	87	64	116
2000	945	409	276	76	60	124
1999	976	402	301	77	64	132
1998	1,104	426	371	90	68	149
1997	1,030	367	375	84	55	149
1996	1,038	335	382	93	67	161
1995	1,000	255	333	93	75	244
1994	898	243	321	82	75	177
1993	879	258	283	76	68	194
1992	745	200	181	103	75	186
1991	743	233	170	74	66	200

▲ 안양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기업/일자리 > 공장관련안내 > 안양시 공장 현황

기업 규모별 공장 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에는 1671개(94.33%)의 소기업, 98개(5.45%)의 중기업, 4개(0.23%)의 대기업이 등록되어 대부분 소기업 중심의 공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업원 수 역시 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비중상으로는 가장 많은 편이지만, 인원이 많은 중기업과 대기업의 종업원 수 비중이 업체 수 비중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를 산출해보면 대기업은 411.8명이고, 중기업은 100.7명, 소기업은 11.3명의 종업원이 평균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기업 규모별 공장 현황(2025.06. 기준)

구분	계(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업체 수(개소)	1,799	4	0.23%	98	5.45%	1,671	94.33%
종업원 수(명)	30,104	1,647	5.47%	9,455	31.41%	19,002	62.12%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명)	16.7	411.8	-	96.5	-	11.4	-

▲ 안양시 홈페이지 공장등록현황 가공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만안구에는 총 622개(35.1%)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동안구에는 1151개(64.9%)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만안구에는 대기업 1개소, 중기업 36개소, 소기업 585개소가 위치하며, 동안구에는 대기업이 3개소, 중기업 62개소, 소기업 1086개소가 위치해 있다. 전반적으로 안양시의 공장은 동안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안구에 비해 동안구의 공장용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국제유통단지 등이 동안구에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공장을 건립하기에 동안구가 더 선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행정구역 및 기업 규모별 공장 현황(2025.06. 기준)

행정구역 \ 규모	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계	1,799	4	98
만안구(개소)	631	1	36	594
동안구(개소)	1,168	3	62	1,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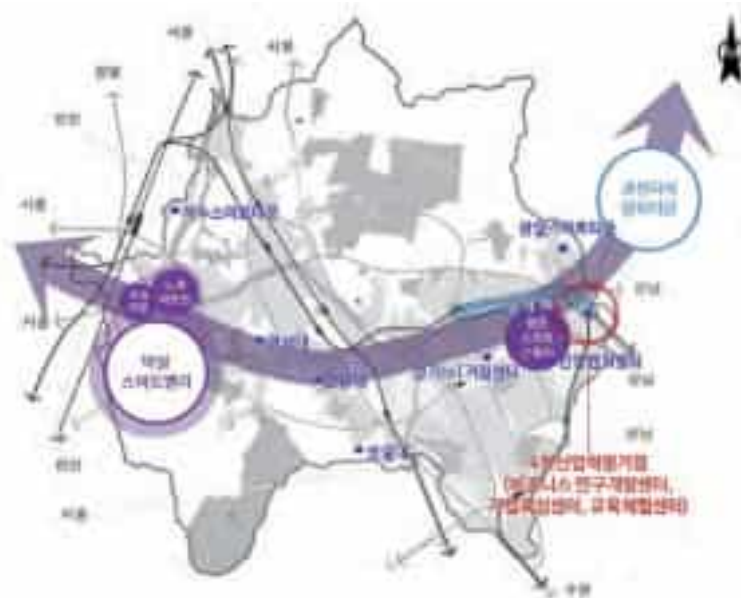
▲ 안양시 홈페이지 공장등록 현황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2023)을 살펴보면 공업(광업 및 제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안양시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용지 추가 지정이 제한되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고, 법률 근거 정부 지원이 주로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공업지역이나 개별 공장 집적지는 미지원 또는 예외적으로만 지원되는 실정이다. 또한 공업지역에 주택용지 사용 등 실제 사용 용도 혼재로 토지이용 효율성 문제와 공업 기능 지원 서비스 기능이 미약하고, 생산 기능이 상실 또는 저하된 대규모 공장부지가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신성장 거점 조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창출 공간 조성, 기존 산업 기능 고도화 및 재정립, 포용적 일자리 복지 확대 및 기업 경영 안정 도모, 안양형 청년고용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청년뉴딜 추진, 공업지역 대체 지정을 통한 공업지역 재편 등에 대해 구성하였다.

신성장 거점은 광명-안양-과천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벨트를 구축해 산업 간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거점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박달스마트밸리 연계 클러스터 조성⁴, 안양형 테헤란로⁵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신성장 거점 조성 계획



신성장 거점 조성 계획(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23, 403쪽)



미래산업육성 비전 선포식

이처럼 안양시는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초점을 맞추어 첨단산업 중심의 도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창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융복합 및 플랫폼화, 역세권이나 대규모 공장부지 등에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문화융복합단지 등 조성,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연구개발센터 유치 및 4차 산업혁명 융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23년 12월 27일에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미래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기업인 300인이 참석한 선포식은 앞으로 100년을 이룰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적 제언을 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3. 산업대분류별 일반 현황

전국사업체조사⁶는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통계로 1994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매년 9월 말에는 전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가 공표되어 2024년 9월에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가 현재(2025년 6월)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자료다. 안양시 홈페이지에는 관련 통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사업체조사 결과도 2005년 기준 자료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결과가 2025년 2월에 게시되었다⁷. 사업체조사 결과 공표 자료는 9가지로 구분된다. 산업세세분류별 총괄 자료와 산업소분류 및 중분류에 따라 읍·면·동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구분, 조직 형태, 종사상 지위, 대표자 성별,

종사자 성별, 대표자 연령대 등에 따라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1)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안양시 사업체 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23년 기준 6만 6594개이며, 종사자 수는 28만 2736명이다. 이어지는 <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현황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0년 사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 수가 증가한 만큼 종사자 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은 아니다. 2019년 26만 1491명이었던 종사자 수가 2020년에는 26만 7279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3년 기준 19개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수를 확인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27.2%)으로 확인된다. 전체 6만 6594개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의 사업체 수는 1만 8734개로 집계되었다. 차순으로는 7767개(11.7%)에 해당하는 운수 및 창고업의 비중이 높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7338개(11.3%)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4730개(7.1%)로 앞선 도매 및 소매업과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대분류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28만 2736명의 종사자 수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사업체 수와 동일하게 도매 및 소매업(4만3797명, 15.5%)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제조업 종사자 3만 4152명으로 12.1%에 해당하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가 3만 892명으로 10.9%의 비중을 차지한다. 종사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체 수의 비중과 차이가 있었다. 운수 및 창고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사업체 수는 많은 편이지만, 종사자 수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의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기할 점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종사자 수가 전체의 10.9%로 세 번째로 종사자 수가 많은 분야라는 것이다. 안양시는 안양벤처밸리 조성과 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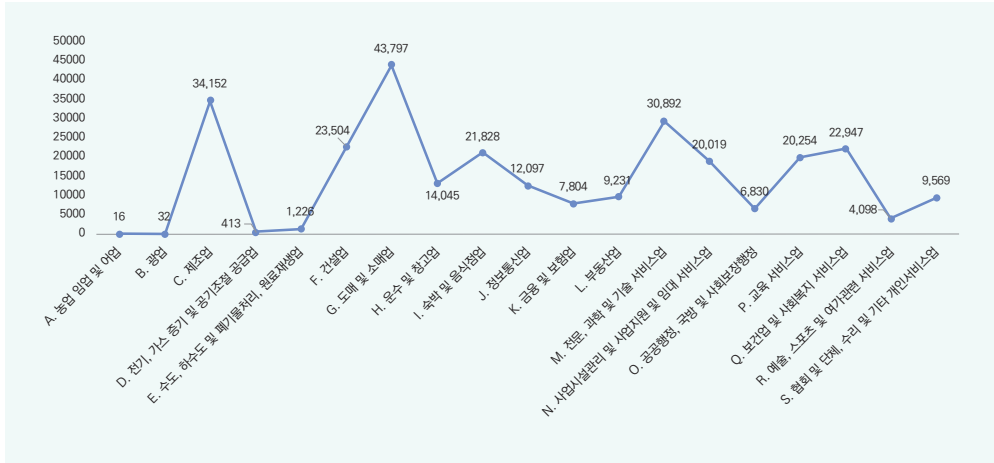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종사자 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15.2%), 제조업(15.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4%)으로 확인되며,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1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4%), 교육 서비스업(11.3%), 숙박 및 음식점업(11.3%) 순으로 확인된다.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하

고는 성별에 따라 비중이 높은 산업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7〉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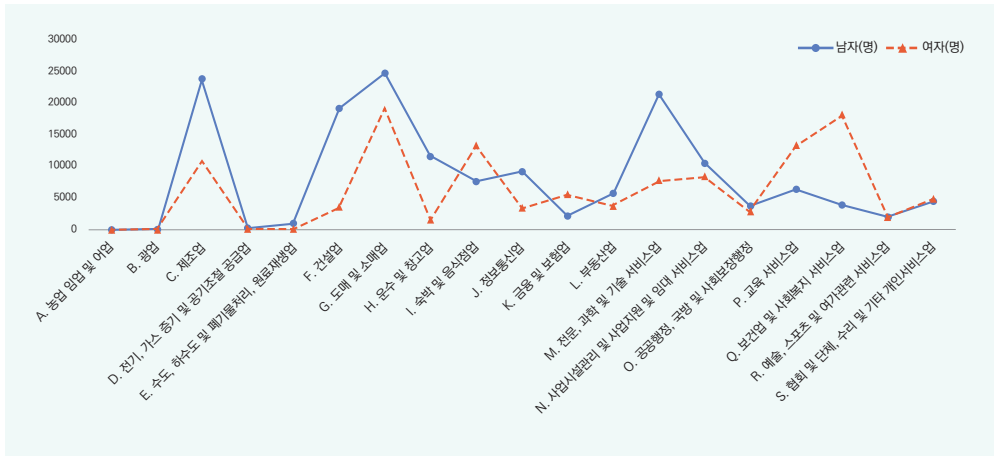
	사업체 수 (개)	업종별 비중(%)	종사자 수 전체(명)	남자(명)	여자(명)
2018	44,824	-	255,402	143,050	112,352
2019	45,375	-	261,491	147,989	113,502
2020	63,348	-	267,279	155,220	112,059
2021	63,452	-	272,065	156,722	115,343
2022	65,722		276,105	157,698	118,407
2023	66,594	100	282,736	160,459	122,277
A. 농업 임업 및 어업	3	0.0	16	13	3
B. 광업	2	0.0	32	31	1
C. 제조업	4730	7.1	34,152	23,607	10,545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5	0.1	413	314	99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79	0.1	1,226	1,030	196
F. 건설업	3,772	5.7	23,504	20,023	3,481
G. 도매 및 소매업	18,734	28.1	43,797	24,465	19,332
H. 운수 및 창고업	7,767	11.7	14,045	12,520	1,525
I. 숙박 및 음식점업	7,338	11.0	21,828	8,031	13,797
J. 정보통신업	2,314	3.5	12,079	8,728	3,351
K. 금융 및 보험업	695	1.0	7,804	2,067	5,737
L. 부동산업	3,867	5.8	9,231	5,660	3,571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62	5.9	30,892	22,507	8,385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16	2.3	20,019	10,577	9,442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3	0.1	6,830	3,698	3,132
P. 교육 서비스업	3,280	4.9	20,254	6,386	13,86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798	2.7	22,947	4,119	18,82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81	2.4	4,098	2,061	2,03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38	7.6	9,569	4,622	4,947

▲ 2023년 기준 사업체조사 결과



산업대분류별 종사자 수 전체(2023)

성별에 따른 산업대분류별 종사자 수를 그래프로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종사자 수의 차이가 많은 산업 분야 중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남성 종사자가 더 많고, 여성 종사자가 더 많은 산업 분야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금융 및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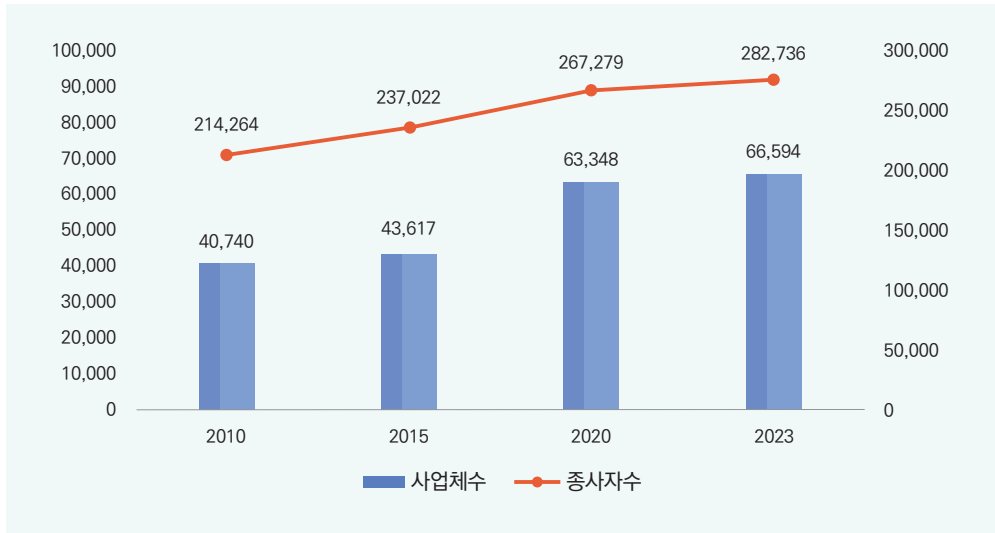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산업대분류별 종사자 수

2)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안양시에는 2023년 기준 1~4명의 소규모 사업체가 6만 594개 중 5만 6308개로 약 85%에 해당해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계산해보면 1.56명으로 사실상 한 명 또는 두 명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사자 5~9명 규모 사업체는 5957개로 종사자 수는 3만 7908명이다. 종사자가 1000명 이상인 사업체는 2010년과 2015년에 3개였다가 2020년에는 6개, 2023년에는 7개가 되었으며 종사자 수 규모도 2010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0년 사업체 수가 4만 740명이었고, 종사자 수는 21만 4264명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사업체 수 6만 6594개, 종사자 수 28만 2736명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대비 사업체 수가 63.5% 증가한 것에 비해 종사자 수는 32% 증가했다. 사업체 수가 증가한 것에 비해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약적이지는 않은 편이다. 즉 안양시의 사업체 변화는 주로 소규모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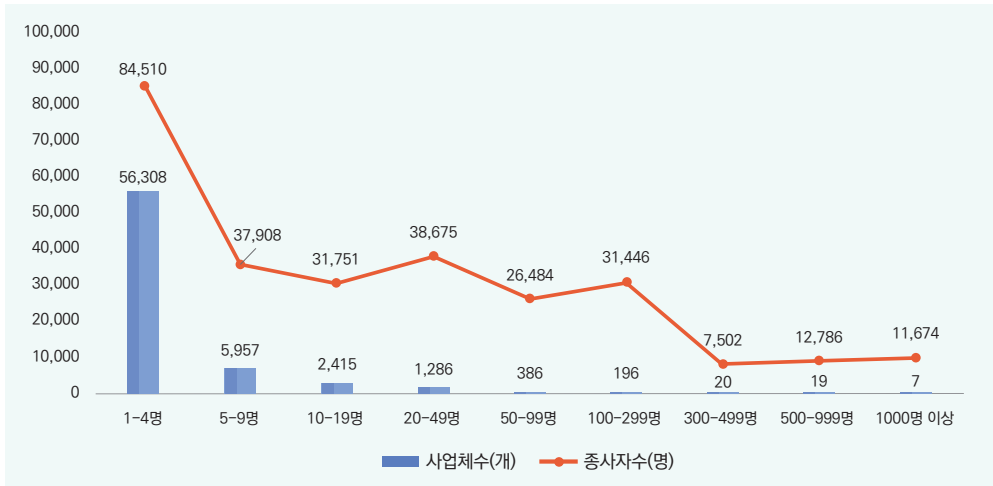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명 규모의 사업체 수가 2010년에는 3만 3295개였는데, 2023년에 5만 6308개로 증가하면서 약 69.1%가 증가했다. 1~4명 규모의 사업체는 2010년 대비 2015년에는 약 3.1% 정도 증가했는데, 2015년 대비 2020년에 급증한 편이다(약 56.8%). 5~9명 규모의 사업체는 2010년에는 3860개였는데, 2015년에 5373개로 약 39.2% 증가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500~999명 규모에 속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2020년까지 증가하여 20개였다가 2023년에 19개로 감소했다.



[그림]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표 8>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010		2015		2020		2023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전체	40,740	214,264	43,617	237,022	63,348	267,279	66,594	282,736
1-4명	33,295	62,376	34,321	63,518	53,806	81,156	56,308	84,510
5-9명	3,860	25,150	5,373	34,201	5,524	35,125	5,957	37,908
10-19명	1,943	25,783	2,138	28,112	2,205	29,030	2,415	31,751
20-49명	1,114	32,993	1,206	36,334	1,198	35,541	1,286	38,675
50-99명	342	23,433	357	24,119	375	25,890	386	26,484
100-299명	150	22,312	183	27,777	194	31,008	196	31,446
300-499명	18	6,576	17	6,302	20	7,736	20	7,502
500-999명	15	9,910	19	11,995	20	12,830	19	12,786
1000명 이상	3	5,731	3	4,664	6	8,963	7	11,674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23)

3) 행정구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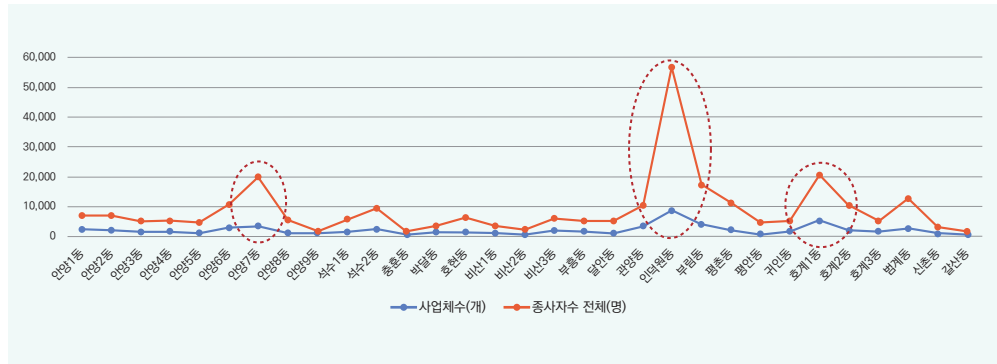
다음으로 안양시 행정구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3년도 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안구 전체의 사업체 수는 2만 5395개, 동안구 전체의 사업체 수는 4만 1199개로 확인된다. 즉 만안구 전체의 사업체 수는 안양시 전체의 38.1% 비중을 차지하고, 동안구는 61.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도 만안구는 9만 5625명으로 안양시 전체 종사자 수의 33.8%를 차지하는 반면, 동안구는 18만 7111명으로 66.2%를 차지한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산출해보면 만안구는 3.8명, 동안구는 4.5명으로 상대적으로 만안구에 비해 동안구의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성별에 따른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만안구의 남성 종사자 수는 5만 1355명, 여성 종사자 수는 4만 4270명으로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동안구의 경우에는 남성 종사자 수가 10만 9104명으로 여성 종사자 수 7만 8007명에 비해 약 3만 명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만안구의 경우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동안구는 남성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만안구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동은 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안양7동과 안양6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양7동의 사업체 수는 3778개이며 종사자 수는 2만 789명이다. 안양6동의 경우는 사업체 수가 3164개이고, 종사자 수는

1만 835명으로 확인된다. 해당 동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상당수 위치하여 종사자 수도 비중이 높은 편이다. 만안구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훈동으로 816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1813명으로 안양시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 동으로 확인된다.

동안구에는 인덕원동의 사업체 수가 8668개로 가장 많고, 호계1동이 5471개로 순으로 많은 편이었다. 종사자 수 역시 인덕원동의 종사자가 5만81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계1동의 종사자 수가 2만3157명 순으로 많았다. 만안구의 사업체 수는 동별 차이가 크지 않으나, 동안구의 경우에는 동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동안구에 위치한 갈산동과 비산2동은 안양시에서도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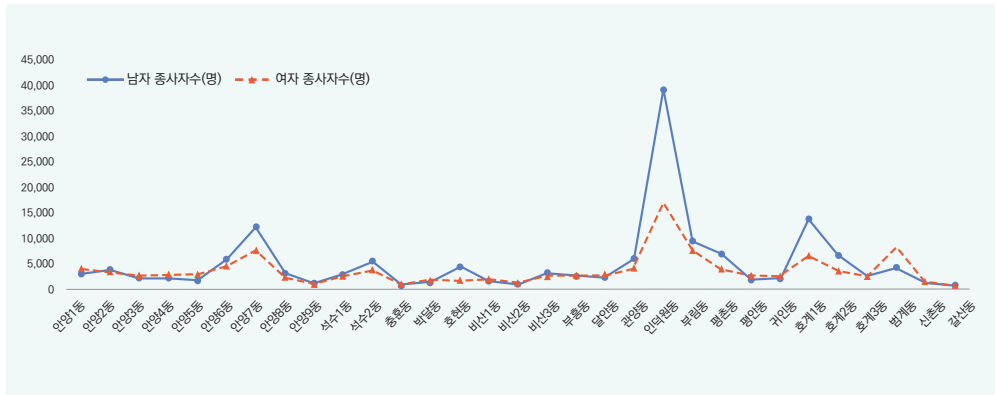


행정구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그래프

행정구역에 따른 성별 종사자 수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남성 종사자 수가 더 많은 편인데 공업지역이 속한 안양7동과 인덕원동, 호계1동 등은 남성 종사자 수가 여성 종사자 수에 비해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런데 범계동의 경우는 남성 종사자 수보다는 여성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여성 종사자 수의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상권이 범계동에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9〉 행정구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23)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 전체(명)	남자 종사자 수(명)	여자 종사자 수(명)
안양시 전체	66,594	282,736	160,459	122,277
만안구 합계	25,395	95,625	51,355	44,270
안양1동	2,323	7,115	3,237	3,878
안양2동	2,289	7,083	3,613	3,470
안양3동	1,506	5,120	2,191	2,929
안양4동	1,757	5,329	2,301	3,028
안양5동	1,073	4,966	1,918	3,048
안양6동	3,164	10,835	5,780	5,055
안양7동	3,778	20,789	12,658	8,131
안양8동	977	4,651	2,495	2,156
안양9동	1,003	2,296	1,271	1,025
석수1동	1,402	6,136	3,125	3,011
석수2동	2,337	9,930	6,120	3,810
충훈동	816	1,813	888	925
박달동	1,559	3,478	1,549	1,929
호현동	1,411	6,084	4,209	1,875
동안구 합계	41,199	187,111	109,104	78,007
비산1동	1,158	3,439	1,493	1,946
비산2동	772	2,561	1,031	1,530
비산3동	1,853	6,128	3,490	2,638
부흥동	1,825	5,843	2,574	3,269
달안동	5,686	5,445	2,573	3,113
관양동	3,348	10,366	5,909	4,457
인덕원동	8,668	58,173	40,185	17,988
부림동	3,943	17,179	8,978	8,201
평촌동	2,080	11,904	7,521	4,383
평안동	897	4,485	1,805	2,680
귀인동	1,624	5,130	2,269	2,861
호계1동	5,471	23,157	15,556	7,601
호계2동	2,293	10,229	6,533	3,696
호계3동	1,663	5,384	2,647	2,737
범계동	2,684	12,323	4,122	8,201
신촌동	1,081	3,232	1,497	1,735
갈산동	721	1,892	921	971



행정구역별 남자/여자 종사자 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SGIS(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는 통계정보와 지리 정보를 융합한 통계지리정보서비스다⁸. SGI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기업생태분석지도 서비스에서는 행정구역, 산업단지, 상권, 전통시장별로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업대분류별로 원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의 기업 현황(전체 업종 대상)을 지도로 살펴보니, 데이터로 확인했듯이 만안구에는 안양7동과 안양6동, 동안구에는 인덕원동과 호계1동을 중심으로 기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연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

산업대분류에 따라 연도별 사업체 수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은 2020년부터 5개를 유지했으나 2023년에는 3개로 감소했고, 광업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제조업의 경우 2018년 3887개 사업체에서 2022년 5175개로 상당수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설업과 정보통신업도 2022년까지는 증가했으나 2023년부터는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외 숙박 및 음식점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은 큰 증가를 수반하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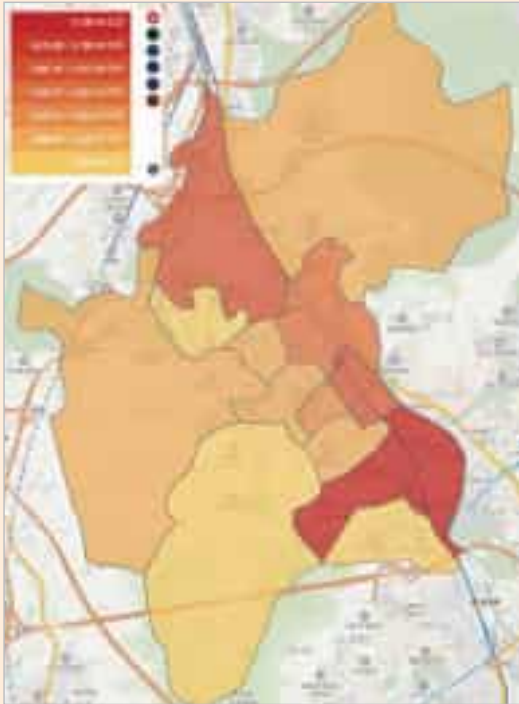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급격히 사업체 수가 증가했는데, 전반적으로 전 분야가 상승했지만 특히 도매 및 소매업과 정보통신업, 부동산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표 10〉 연도별 사업체 수 현황(산업대분류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개)		44,824	45,375	63,348	63,452	65,722	66,594
1차 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3	2	5	5	5	3
	B. 광업	2	3	3	2	2	2
	C. 제조업	3,887	3,878	5,038	5,163	5,175	4,730
2차 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	14	46	39	36	4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56	60	68	75	77	79
	F. 건설업	1,893	1,897	3,948	3,974	3,884	3,772
	G. 도매 및 소매업	11,817	11,551	17,828	17,840	17,908	18,734
	H. 운수 및 창고업	4,082	4,544	6,520	6,189	7,607	7,767
	I. 숙박 및 음식점업	7,048	7,079	7,571	7,421	7,402	7,338
3차 산업	J. 정보통신업	801	861	2,054	2,222	2,373	2,314
	K. 금융 및 보험업	552	553	741	725	693	695
	L. 부동산업	2,152	2,220	3,241	3,404	3,902	3,867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67	2,191	3,842	3,892	3,960	3,96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4	763	1,584	1,505	1,462	1,51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4	74	73	73	72	73
	P. 교육 서비스업	2,435	2,439	2,842	3,014	3,065	3,28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62	1,639	1,708	1,734	1,773	1,79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59	1,377	1,515	1,538	1,566	1,58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273	4,230	4,721	4,637	4,760	5,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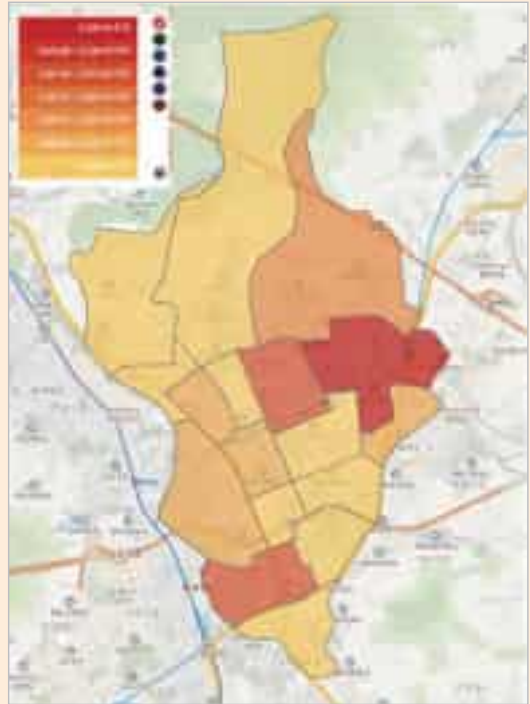
산업대분류에 따라 연도별 종사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광업 종사자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 32명이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21년도에는 종사자 수가 2020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당시 코로나 19의 여파로 많은 종사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해당 시기에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직업 이동이 대대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도에 감소했던 종사자 수가 2022년에 다시 회복되는 산업 분야가 있는 한편 2022년까지 회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2021년보다 2022년에 종사자 수가 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행정구역별 남자/여자 종사자 수

출처: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2024.08.24. 조회)



동안구 기업 현황

〈표 11〉 연도별 종사자 수 현황(산업대분류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55,402	261,491	267,279	272,065	276,071	282,704
1차 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6	3	15	18	14	16
	B. 광업	54	53	50	45	-	-
	C. 제조업	34,588	34,837	35,480	35,444	34,523	34,152
2차 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47	225	322	282	394	413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005	1,042	957	1,328	1,288	1,226
	F. 건설업	20,971	21,332	24,033	23,635	22,707	23,504
3차 산업	G. 도매 및 소매업	39,786	39,650	42,262	44,881	43,726	43,797
	H. 운수 및 창고업	11,174	12,708	12,307	11,660	12,937	14,045
	I. 숙박 및 음식점업	24,366	23,877	19,628	19,805	20,941	21,828
	J. 정보통신업	9,459	9,553	11,125	12,456	12,575	12,079
	K. 금융 및 보험업	8,680	8,888	7,651	7,920	7,769	7,804
	L. 부동산업	7,766	8,382	9,355	9,214	9,565	9,23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260	25,330	28,148	29,857	29,286	30,89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348	16,021	17,817	16,601	18,839	20,019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976	5,337	5,724	5,907	6,473	6,830
	P. 교육 서비스업	19,397	20,024	18,428	19,183	19,679	20,25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222	20,062	20,968	20,845	22,038	22,94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92	4,519	3,545	3,653	3,921	4,098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805	9,648	9,464	9,331	9,396	9,569	

註

- 1 <https://bigdata.anyang.go.kr/ctzn/industEcny/industaEcnyDsbd.do?menuCode=CTZ00000067>
- 2 양지청, 「안양시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안양학 논총』 3, 2003, 173~175쪽.
- 3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0.
- 4 박달스마트밸리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호현마을, 노루표페인트 일원 등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 추진.
- 5 과천시식정보타운과 연계한 지식산업 기반의 업무지구형 가로 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식산업 및 업무기능 지원.
- 6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7호).
- 7 안양시 정보공개
- 8 <https://sgis.kostat.go.kr/view/index>

2장

산업의 안양 공업지역 내 공간분포



황주성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1. 안양 공업지역 기본 현황

안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이라 공장면적의 확대가 불가능하다. 산업 입지상 유리한 위치지만 높은 지가로 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¹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2023) 보고서 중 안양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장용지 면적이 2020년에 1,378km²로 안양시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한다. 도시기본 계획에는 2020년 기준까지의 현황만을 확인할 수 있어 2023년 기준 『안양시 통계연보』(제50회 2023안양통계연보)를 살펴보니 안양시 전체 토지 현황은 58.5이며, 그 중 공장용지가 1,381km²다. 2020년 기준보다 공장용지가 약간 증가했다.

〈표 1〉 안양시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km², %

구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공장용지	기타
2016년	58.500	1.033	0.518	11.915	29.466	5.865	1.404	8.299
2017년	58.498	1.014	0.511	11.942	29.452	5.871	1.362	8.346
2018년	58.464	0.987	0.508	11.920	29.366	5.864	1.371	8.449
2019년	58.467	0.963	0.506	11.909	29.330	5.898	1.383	8.478
2020년	58,473	0.953	0.501	11.920	29.318	5.901	1.378	8.502
구성비	100.0	1.6	0.9	20.4	50.1	10.1	2.4	14.5

자료 : 안양시 통계연보 각년도

▲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p.119

안양시 공장용지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토지 면적도 약간씩 변화해왔고, 공장용지도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장용지의 구성비는 2.3~2.4%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만안구는 36.563km² 중 0.489km²가 공장용지로 1.3%에 해당하며, 동안구는 전체 면적 21.938km² 중 0.892km²가 공장용지라 동안구 면적의 4.1%에 해당한다.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도 동안구의 공장용지 면적이 만안구보다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안구에는 특히 안양동과 박달동에 공장용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안구에는 관양동과 호계동에 밀집하고 평촌동에 일부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안양시 공장용지 현황

단위:km², %

	합계	공장용지	공장용지 구성비 ²
2018	58.464	1.371	2.3
2019	58.467	1.383	2.4
2020	58.473	1.378	2.4
2021	58.484	1.394	2.4
2022	58.501	1.387	2.4
2023	58.501	1,382	2.4
만안구	36.563	0.489	1.3
안양동	15.347	0.235	1.5
석수동	13.333	0.048	0.4
박달동	7.882	0.206	2.6
동안구	21.938	0.892	4.1
비산동	8.785	-	-
관양동	5.848	0.426	7.3
평촌동	2.097	0.078	3.7
호계동	5.207	0.388	7.5

▲ 제50회 2023안양통계연보(안양시 홈페이지)

용도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업지역 면적이 3.23km²로 전체 면적(58.5km²)의 5.5%에 해당한다. 안양산업진흥원에서는 2017년부터 기업지원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사업 안내에 앞서 안양시의 기본 현황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안양시 공업지역 3.23km²의 면적 중 일반공업지역의 면적이 2.36km²(73.1%),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0.87km²(26.9%)로 안양시는 일반공업지역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업지원안내 책자를 살펴보면 일반공업지역 면적이 2.26km²(70.6%)였고,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0.97km²(29.4%)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준공업지역이 감소하고 일반공업지역 면적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19년 기업지원안내 책자부터 현재와 동일하게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다.

〈표 3〉 안양시 용도지역별 현황³

단위 : km², %

구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020년	58.48	15.15	2.21	3.23	37.89
구성비	100.0	25.9	3.8	5.5	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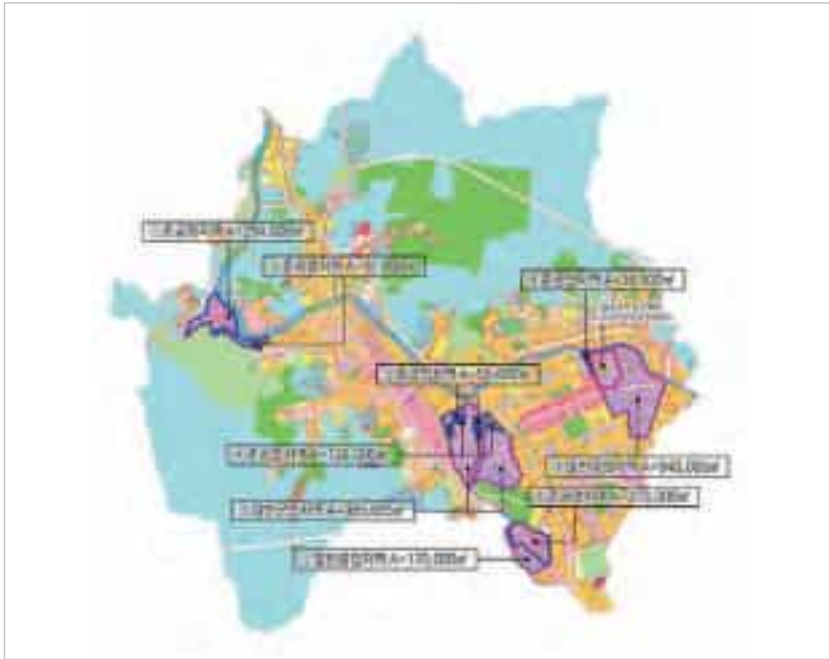
자료 : 안양시 통계연보 각년도

〈표 4〉 안양시 공업지역 분포

	계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17	3.23	100	2.26	70.6	0.97	29.4
2019~2024	3.23	100	2.36	73.1	0.87	26.9

▲ 각 연도 안양시 기업지원사업안내 가공

안양시는 2023년에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⁴」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했다⁵. 주거와 산업시설 등이 뒤섞인 공업지역을 주거와 문화, 상업, 녹지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정비·활성화 계획을 담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했다. 안양시는 공업지역이 공업, 상업, 주거 등의 용도가 혼재돼 기존 용도 방식의 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원시설 부족 등으로 새로운 산업이 집적되지 않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 상태로 노후화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해당 용역은 2024년 7월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기본계획에 따라 안양시의 공업지역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안양시 공업지역 현황

2. 안양 공업지역의 분포와 특성

1) 공업지역 분포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의한 도시지역⁶ 중 하나로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된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며,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기능·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2021년 1월 5일 개정된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공업지역의 용적률은 150% 이상부터인 것은 동일하지만, 전용공업지역은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은 350% 이하, 준공업지역은 400% 이하로 정해져 있다. 전용공업지역은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이를 감안해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주로 대형 공장 건축물과 창고 등이 건축되는데, 안양시에는 전용공

업지역이 없고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만 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다.

〈표 5〉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공업지역 건축 제한 사항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8년 7월 12일 개정)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024년 9월 24일 개정)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1. 공동주택(기숙사,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동주택 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 종교시설(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종교시설(너비 10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숙박시설
6. 교육연구시설	6.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7.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7. 관광 휴게 시설
8. 수련시설	
9.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0.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방송통신시설	
12. 장례시설	

2024년 7월 19일 『경기일보』에는 「용적률 제한에 지역 떠나는 기업들, 지자체 손실 크다⁷」라는 제목의 사설이 올라왔고, 안양시 평촌의 한 일반공업지역 모습이 대표 사진으로 첨부되었다. 사설의 핵심 내용은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 제한으로 기업 성장이 억제된다는 것이다.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으로 주거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공장 창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타 건물들도 건축이 가능하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은 일반공업지역 용적률을 3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용인시·안양시·광명시·연천군 등 4개 지자체는 3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회사를 넓혀야 하는 상황인 기업들은 용적률이 더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10년 넘게 안양에 터전을 뒀던 한 기업의 대표 이야기를 사설에 담았는데, 회사가 성장을 거듭해 직원도 늘고 일도 늘어 신사옥 부지를 물색했으나 안양은 용적률이 최대 300%밖에 되지 않아 결국 용적률이 50% 더 높은 과천으로 회사를 이전했다. 회사 대표는 창업과 성장을 함께한 안양을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2024년 8월 20일 공고되었던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⁸」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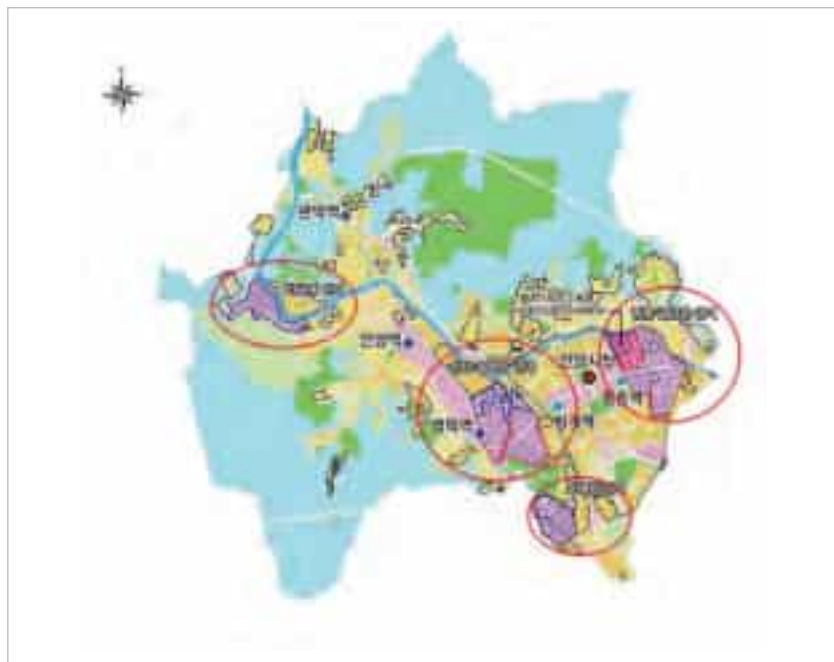
평촌 일반공업지역의 모습

안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지역의 도시 성장과 고용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공업지역 관리 및 정비 방안을 도출했다.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심형 공업지역으로 재생하기 위해 기본계획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공간 정비와 관련한 3가지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 및 검토했다.

공간적 범위로 안양시 일반(준)공업지역 전역의 2.97km²를 대상으로 했는데, 평촌스마트스퀘어(0.26km²)는 제외⁹했다. 평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시 공업지역의 현황은 크게 네 권역으로 구분된다. 그중 안양·호계동 권역이 1.14km²로 규모가 가장 크고, 차순으로 평촌·관양동 권역이 0.95km², 안양국제유통단지를 포함한 호계동 권역이 0.43km², 박달동 권역이 0.38km²로 규모가 가장 작은 편이다. 참고로 박달동 권역은 2024년 현재 추진 중인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¹⁰

구분	면적	비고
합계	2,974,560 ¹¹	평촌 스마트스퀘어 제외
소계	2,892,843 ¹²	
박달동 권역	376,504	
공업지역		
안양·호계동	1,138,128	
호계동 권역	431,787	
평촌·관양동 권역	946,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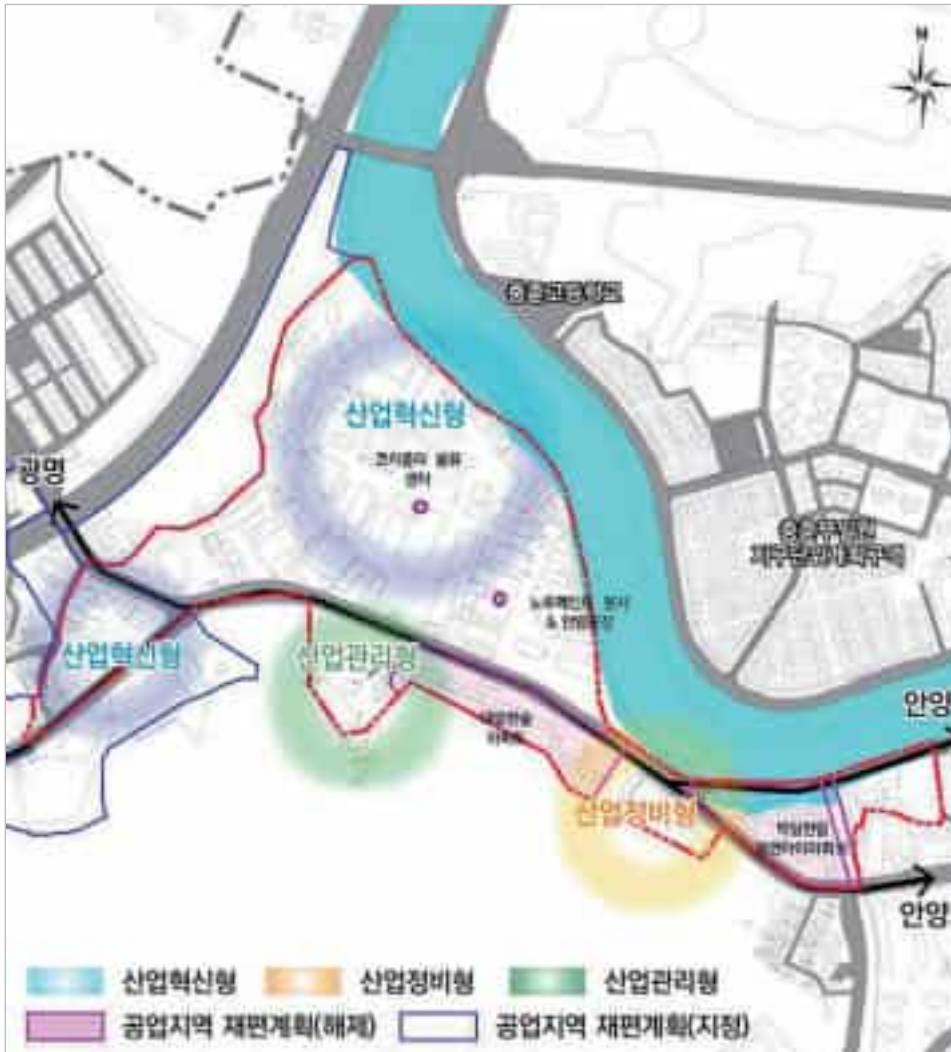
안양시 공업지역 지정 현황¹³



안양 공업지역 위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에서는 공업지역을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본 구상(안)을 도출하고 있다. 산업혁신형¹⁴은 신산업유지, 산업 외 기능 연계를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장이전적지 등 전략적 거점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산업정비형¹⁵은 기존 산업이 쇠퇴하고, 주거·산업이 혼재되어 지역 여건이 불량한 지역, 산업관리형¹⁶은 기존 산업의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권역별로 공업지역을 세분화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박달동 권역의 기본구상(안)을 살펴보면 신성장발전을 이끌어갈 4차 산업혁명벨트로 박달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신산업거점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ICT 기반의 첨단업종 유도(기계, 전기, 자동차 제조 위주의 산업과 ICT 연계를 통한 첨단산업 유도), 주거·산업 복합공간 조성(산업혁신구역 지정을 통한 친환경 주거 및 공공문화와 결합한 신산업거점 조성), 공업지역 정비·재생(산업단지 계획 등을 통한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박달동 권역 기본구상(안)¹⁷

다음으로 안양·호계동 권역은 지역 대학 R&D 연계 협력 강화 및 상생혁신공간 조성, 복합·혁신 기능 도입으로 성장동력 확보 및 도심 기능 강화를 구상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첫 번째로 R&D산업을 연계한 역세권 중심의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상생혁신공간 조성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 따라서 대상지 주변 대학(성결대, 안양대)과 연계하여 산학협력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ICE¹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안양·호계동 권역 기본 구상(안)¹⁹

호계동 권역은 기본적으로 IT 용합을 활용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복합 및 혁신 기능 도입으로 기존 산업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본 방향은 유통·물류 등 기존 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시설을 정비 및 지원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호계동 권역은 국제유통단지가 위치한 만큼 IT 등 복합된 스마트 유통·물류산업 고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후 산업시설 정비를 위한 산업정비구역 지정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호계동 권역 기본 구상(안)²⁰

마지막으로 평촌·관양동 권역은 도시형 역세권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촌스마트스퀘어와 연계한 지식 기반 클러스터 육성을 기본 구상으로 설정했다.



평촌·관양동 권역 기본 구상(안)²¹

각 권역별로 기본 구상(안)을 도출했고, 유형별로 관리 방안을 제안했는데, 산업관리형은 허용 및 권장 용도 계획을 통해 가로변 근생 등 편의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산업정비형 및 산업혁신형은 산업 외 용도 혼재 지역의 경우 기존 산업시설 부지의 비율을 유지하고 가로변으로 산업 및 근생(주거 외 용도) 기능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공업지역 관리 방안

2) 안양벤처밸리(안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양벤처밸리는 2000년 11월 3일 정부에서 안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안양벤처밸리)로 지정한 명학역-범계역-평촌역-인덕원역 일원 약 3km²에 걸쳐 조성되었다. 지리적으로 평촌 신도시 중심에 위치해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전철 1호선과 지하철 4호선이 통과하고 1번국도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평촌IC와 인접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촉진지구 내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 재산세 5년간 면제, 병역특례 업

체 지정 및 산업 연수생 배정 시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 안양벤처밸리에는 IT산업을 중심으로 1000여 개의 벤처·중소기업과 안양지식산업센터(안양 K-Center), 동안벤처센터와 안양과학대학벤처센터, 두산벤처다임 등의 지원 시설이 입주해 있다. 안양시는 2003년 ‘제1회 기업하기 좋은 지역’ 평가 전국 5위, 2004년에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평가에서 전국 1위, 2006년에는 ‘제3회 기업하기 좋은 지역’ 평가 산업혁신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²²

안양시 홈페이지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주요 시설 위치도와 함께 벤처기업 현황과 집적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안양산업진흥원에서 벤처집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²³

안양산업진흥원에는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시설 안양산업진흥원 본원과 동안벤처센터, 안양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산업진흥원 본원에 입주한 기업은 39개 사, 동안벤처센터에 입주한 기업 9개 사, 안양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45개 사인 것으로 확인된다.²⁴



안양벤처밸리의 주요 시설 위치도(안양시 홈페이지)

3) 첨단산업단지 : 평촌스마트스퀘어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비교

구분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목적	산업의 지방 분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및 개발 촉진
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²⁵ 시장(30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10만㎡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 가능)
대상지역	시·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양호한 도시지역
개별단지 규모제한	3만㎡ 이상	1만㎡ 이상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시·도별로 미분양률 30% 이상	시·도별 330㎡ 이내 ²⁶ 시·도별로 미분양률 30% 이상
지정지역	제한없음	도시지역 내(서울 지정 불가)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16), 『2016 산업입지요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01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²⁷.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지방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로 도시 외곽에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3만㎡ 이상)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이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육성 및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소규모(1만㎡ 이상, 시도별 330만㎡ 이내) 복합 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평촌스마트스퀘어





용도별 구역도



업무별 배치계획도

출처: 안양시, 2019,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옛 대한전선 안양공장이 있던 자리(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85번지)를 도시첨단 복합단지로 개발한 곳이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먼저 지정(2012년 4월) 추진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부지 총면적이 약 25만㎡인데, 그중 약 11만㎡를 산업시설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공간은 도로, 공원, 녹지, 주거 등으로 개발되었다.(1조 738억원 투입)

〈표 6〉 평촌스마트스퀘어 용도구역별 면적표

구분	면적(㎡)	구성비(%)	
계	255,064.8	100.0	
산업시설구역	110,858.9	43.5	
지원시설구역	78,414.3	30.7	
공공시설구역	소계	58,902.3	23.1
	도로	44,483.9	17.4
	공원	10,051.7	4.0
	공공공지	1,060.5	0.4
	공공시설용지	3,306.2	1.3
	주차장(공원하부)	(5,379.4)	(2.1)
	녹지구역	소계	6,889.3
연결녹지		6,889.3	2.7

자료 : 안양시,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2019.2)



대한전선 안양공장 이전 당시 현장

개발 당시 대한전선 본사와 함께 반도체, 전자부품제조업, 기업연구개발(R&D)센터 등 대기업 2개, 중견기업 21개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스마트스퀘어는 2012년 9월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완공되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조성하고 있었으며 이미 입주를 마친 태성산업, 네오셈 등을 비롯해 동아엘텍, 아리온, 휴비츠 등 28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다²⁸. 2016년에는 입주 업종별 자격 분야를 4가지에서 7개 분야로 확대했다. 확대된 분야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제외) 및 연구소,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및 연구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및 연구소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업종이다. 입주자협회는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이 제한되어 공실률 발생 등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시에 입주 자격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⁹. 참고로 2015년에는 입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입주한 것이 확인되어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개발 비리 사건에 현직 시청 공무원 여러 명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중형(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 선고)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년에는 미국 플로리다 오세올라카운티 주의원이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

업단지 조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오세올라카운티는 미래형 계획도시 네오시티 조성을 추진 중이었으며, 약 500에이커(2km²) 부지가 조성될 예정이었다. 오세올라카운티의 네오시티(Neocity)는 기술 혁신·협력을 촉진하고자 조성한 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로 안양시에서 조성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비전과 뜻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한 것이었다. 2021년 당시 평촌스마트스퀘어에는 기업 약 90개 사, 종사자 약 9000명, 매출액 약 6조원 규모였다.

註

- 1 안양도시기본계획, 2020년, 32쪽
- 2 공장용지/합계*100.
- 3 204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120쪽.
- 4 2021년 1월 5일 공포되어 1월 6일부터 시행.
- 5 <https://www.kyeonggi.com/article>.
- 6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7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718580300>
- 8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23년 2월 공고하였으며,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이었음.
- 9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을 대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제외)으로 검토
- 10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761>
- 11 안양시 고시 제2023-148호 용도지역 지정
- 12 CAD 구적면적
- 13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024.8.
- 14 선도·선충산업 포함(단일필지 포함), 특화업종 밀집지역, 대규모 공장 이전 적지.
- 15 산업혁신형·관리형 외 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 시설 밀집지역.
- 16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으로 건축물 노후도 '20년 미만' 밀집지역, 비산업시설(주택·학교 등) 밀집 지역.
- 17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 18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전시산업으로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의미함.
- 19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 20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 21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 22 오마이뉴스, 「안양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 추가지정」, 2009년 9월 25일(<https://www.ohmynews.com>)
- 23 <https://www.aca.or.kr/content/contents.do?menuId=864>
- 24 2025년 4월 17일 기준
- 25 서울특별시와 관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 26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 27 단 인구 과밀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
- 28 <https://www.segye.com/newsView/20151221002480>
- 29 「경인일보」, 평촌스마트스퀘어 '문턱' 낮아진다(<http://m.kyeongin.com>)

3장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의 현황과 운영



황주성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1.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¹로서 지상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이고,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² 경기데이터드림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다. 둘째로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입주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보험업 시설·기숙사·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본래 아파트형공장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 상공부³의 근대화계획 중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로 도시지역에 입주가 불가피하거나 무등록 또는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양성화 및 집단화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아파트형공장’이 법률상 처음 등장한 것은 1988년 2월 24일에 개정된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항이 마련된 이후이다.⁴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10년)⁵으로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어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즉 지식산업센터는 도시 제조업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탄생했다가 현재는 제조업 외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시의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시설로 변모하고 있다.⁶ 아파트형 공장은 1990년대 초까지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1995년 아파트형공장 자금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민간개설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1996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공급 주체가 개방되면서 민간 주도 아파트형공장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⁷

대도시와 수도권외의 공업용지는 입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체들의 사업부지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밀도로 지어진 고층건물에 영세 중소기업자들이 입주하여 공업용지 부족을 해소할 수 있고,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관리비를 절감시키는 이점이 있다.⁸ 도심의 부족한 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대지에 다수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수직적으로 쌓아올려 만든 건축물로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에서 지식기반 및 서비스 산업의 3차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설립되었다.⁹ 안양시의 많은 제조업들도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부지에 효율적인 아파트형공장이 상당수 들어서게 되었다.

〈표 1〉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 정책 환경 변화(유현아 외 2021)

구분	정책환경	법령 및 제도화	정책적 영향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년대 서울 대규모 공사이전 후 이전 용지가 고밀도 주거지 등 타용도로 개발되며 제조업 공동화와 주공 혼재 등의 문제 발생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작업장 난립과 무등록 공장의 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 상공부 근대화계획으로 중소기업협동화 사업 추진 주공 등 서민용 아파트 건설 시 아파트형 공장 건설 및 공급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세소규모 작업장 집단화 시도 소규모사업으로 공동공장 사업 지원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형 공장 건설 및 분양을 위한 제도화 필요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도시 영세민 지원, 창업 소기업의 공장확보 지원 필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 법제화 아파트형 공장 설립자는 민간을 제외한 공공으로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형 공장을 처음 법률 조문에 명시하면서 명문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의 출발점이 됨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형 공장의 높은 분양가와 입주업체종한정, 주거혼재 유형으로 인한 주거이미지 열려 등 활성화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제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주체에 대한 민간개방 공장증설의 범위를 확대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건설 개방이후 수도권에 산업단지 외에도 개별입지 중심으로 아파트형 공장의 폭발적 증가 대도시 산업의 집적화 등 산업고도화 및 복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입주 증가 현실을 반영하며 지식산업센터 용어로 명칭 변경

2.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현황

안양시는 벤처기업과 관련해 최초로 2000년 11월 ‘안양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2009년 9월, 2018년 5월, 2022년 8월에 추가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등 지식산업센터가 최초로 밀집되고 활성화된 지역이다. 촉진지구는 면적 3.17km² 규모로 전국 기준 6위에 해당한다¹⁰. 안양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설립하는 자와 입주자(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세제 지원(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안양시사』3권(2008)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을 해주었다고 한다.

〈표 2〉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혜택 및 지원제도 중 세제지원

구분	설립하는 자	입주자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35%), 재산세(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세(35%), 재산세(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2항 대상 :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



동일테크노타운

안양시에 처음으로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선 것은 1992년 10월이었다. 당시 아파트형 공장이었던 유천팩토피아는 안양7동 옛 쌍용제지 부지에 조성되었고, 그 후 동일테크노타운이 1995년 12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4개 동의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했다. 호계동 금성통신 자리에 디오밸리(연면적 6만5000㎡), 평촌동 삼화왕관 터에 두산벤처다임(3만㎡) 등이 들어섰다.¹¹

2010년에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파트형공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체를 위한 시설로 다수의 아파트형공장이 마련되었고, 2006년 기준 안양시에는 14개의 아파트형공장이 있었고 1개가 건설 중이었다. 이들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업체는 모두 982개였다. 관양동의 동일테크노타운(4개동) 지역은 2002년 8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보화 촉진 지역으로 지정받아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촉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안양시는 2008년 상반기부터 LS그룹의 안양 시대가 개막하여 이들 기업에서 파생되는 협력, 유관 사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안양시에는 현재 LS일렉트릭, LS글로벌, LS엠트론을 비롯해 효성 안양공장과 효성 기술원, 효성 중공업연구소, GS파워 안양사업소(안양열병합발전처), 한국기계전기전자시

협연구원 본원(KTC) 등 기업과 기관이 위치해 있다.¹² 이런 조건들로 인해 안양시의 지식산업센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¹³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약 1500여 개에 달한다.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안양시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다.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현황¹⁴(2024년 7월 기준)은 2024년 5월 현황 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지식산업센터는 총 47개소이고, 건설(예정) 중인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여 총 56개이다.¹⁵ 그중 3개는 현재 분양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7개소에 유치할 수 있는 업체 수는 8729개로 확인되는데, 추후 건설될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가능 업체 수까지 합하면 1만여 개로 늘어나게 된다.

총 56개의 지식산업센터 중 만안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11개, 동안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45개이다. 다음의 <표>는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지식산업센터 현황(2024.05 기준)의 일부로 센터명과 소재지, 용도지역과 유치 가능 업체 수, 층수(지하/지상)와 준공 연도를 포함하고 있다. 준공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렬되어 있다.

<표 3>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현황(2024.05. 기준)

번호	지식산업센터명	승인일	착공일 (예정일)	완료일 (예정일)	지식산업센터 소재지	부지 면적 (㎡)	유치 가능 업체수	층수 (지하 /지상)	공사 진행	준공 연도
1	유천팩토피아	90.09.02	90.12.20	92.10.31	만안구 전파로 30 (안양동 196)	13,650	182	B3/8	준공	1992
2	동일테크노타운 A	95.01.26	95.01.27	95.09.20	동안구 별말로102번길 42 (관양동 889-3)	1,175	12	B3/7	준공	1995
3	동일테크노타운 B	95.05.06	95.05.25	95.12.19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 39(관양동 889)	1,839	24	B2/8	준공	1995
4	동일테크노타운 C	95.10.31	95.11.27	96.09.23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 40 (관양동 889-1)	4,315	61	B2/7	준공	1996
5	동일테크노타운 7차	95.12.06	96.10.30	97.09.10	동안구 별말로 140 (관양동 823)	3,879	45	B1/8	준공	1997
6	동일테크노타운	95.12.06	96.02.13	96.12.03	만안구 덕천로 33 (안양동 202-6)	1,959	26	B2/7	준공	1996
7	동영벤처스텔 3차	01.04.17	01.05.06	01.12.07	만안구 덕천로 45 (안양동 202-4)	1,764	16	B1/8	준공	2001
8	동영벤처스텔 5차	02.06.10	02.07.20	03.07.01	만안구 덕천로72번길 72 (안양동 199-32)	5,289	48	B1/8	준공	2003
9	성일디지털타워	02.04.17	02.06.07	03.03.26	만안구 시민대로 34 (안양동 219-9)	1,444	16	B2/6	준공	2003
10	안양메가밸리	01.09.22	01.11.03	03.05.19	동안구 학의로 268 (관양동 799)	17,694	166	B2/8	준공	2003
11	명지e스페이스	02.08.22	02.10.17	03.11.19	만안구 덕천로 34 (안양동 218)	3,066	25	B1/8	준공	2003

번호	지식산업센터명	승인일	착공일 (예정일)	완료일 (예정일)	지식산업센터 소재지	부지 면적 (㎡)	유치 가능 업체 수	층수 (지하 /지상)	공사 진행	준공 연도
12	한국프라자	03.12.10	03.03.04	03.10.08	동안구 엘에스로 91 (호계동 1029-6)	945	7	B1/5	준공	2003
13	안양디오밸리	03.12.09	04.04.08	05.09.30	동안구 엘에스로 76 (호계동 555-9)	25,525	181	B2/6	준공	2005
14	두산벤처다임	04.06.21	04.09.23	06.03.28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평촌동 126-1)	22,729	280	B1/12	준공	2006
15	신원비전타워	04.04.22	04.10.08	07.03.28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호계동 898)	6,504	73	B1/8	준공	2007
16	관양두산벤처다임	06.05.03	06.06.01	07.10.12	동안구 학의로 250 (관양동 1307-37)	6,035	49	B1/11	준공	2007
17	안양IT밸리	08.03.28	08.05.28	10.01.25	동안구 엘에스로91 번길 16-39 (호계동 1027)	5,764	80	B1/12	준공	2010
18	인덕원성지스타워드	08.07.31	08.09.01	10.09.06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관양동 954-6)	8,667	242	B2/15	준공	2010
19	대륭테크노타운 15차	08.11.04	09.03.01	10.09.30	동안구 시민대로 401 (관양동 224-5)	11,448	242	B3/21	준공	2010
20	디지털엠피어 A동	10.01.22	10.04.01	12.02.28	동안구 시민대로 387 (관양동 906-1)	3,018	35	B3/13	준공	2011
21	디지털엠피어 B동	10.01.22	10.04.01	12.02.28	동안구 시민대로 383 (관양동 906-4)	3,982	52	B3/13	준공	2011
22	금강펜테리움IT타워	10.04.22	09.05.29	12.01.20	동안구 학의로 282 (관양동 810)	16,613	400	B3/22	준공	2011
23	에이스평촌타워	10.03.03	10.04.19	12.05.22	동안구 시민대로 361 (관양동 883)	8,538	110	B3/15	준공	2012
24	LS엠티론(주)하이테크센터	11.07.07	11.10.18	13.02.14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39 (호계동 555-16)	8,367	8	B3/8	준공	2013
25	평촌스마트베이	12.11.23	2012.12	14.07.22	동안구 별말로 123 (관양동 792-2)	7,628	186	B1/21	준공	2014
26	평촌오비즈타워	11.12.21	12.08.29	15.01.28	동안구 별말로 126 (관양동 1802)	15,047	330	B3/35	준공	2014
27	평촌디지털엠피어	15.12.31	16.01.18	18.03.19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16 (관양동 954-1)	7,898	288	B3/13	준공	2018
28	아이에스비즈타워	16.03.30	16.04.22	18.04.20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57-2 (평촌동 160-1)	8,582	302	B3/15	준공	2018
29	두림아스카와(주)안양사옥	16.04.20	16.08.18	18.03.22	동안구 엘에스로 112 (호계동 555-15)	2,833	20	B3/8	준공	2018
30	안양 SK V1센터	16.04.26	16.10.27	18.11.12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25-32 (호계동)	8,717	332	B3/10	준공	2018
31	평촌역 하이필드	16.07.18	16.08.26	19.01.11	동안구 별말로 66 (관양동 922)	14,674	390	B2/17	준공	2018
32	안양데시앙플렉스	17.10.23	18.01.03	19.12.11	동안구 엘에스로 122 (호계동 555-45)	6,715	234	B2/10	준공	2019
33	스마트베이2차	18.02.22	18.05.10	19.11.27	동안구 별말로102번길 49 (관양동 891)	1,654	63	B2/13	준공	2019
34	K-비즈리움	18.06.12	18.09.03	20.09.02	동안구 흥안대로 445 (평촌동 87-10)	3,402	147	B3/11	준공	2020
3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범계	18.06.25	18.09.28	21.04.09	동안구 시민대로109번길 29 (호계동 900)	7,686	258	B3/21	준공	2021

번호	지식산업센터명	승인일	착공일 (예정일)	완료일 (예정일)	지식산업센터 소재지	부지 면적 (㎡)	유치 가능 업체 수	층수 (지하 /지상)	공사 진행	준공 연도
36	호계 금정역 SK V1 센터	18.08.27	18.11.22	20.10.20	동안구 엘에스로 142 (호계동 555-37)	8,482	342	B2/10	준공	2020
37	안양2차 SK V1센터	18.08.30	18.12.26	21.01.06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118 (호계동 555-34)	6,932	297	B3/10	준공	2021
38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평촌	18.10.15	19.05.13	21.07.29	동안구 흥안대로 457번길 27 (관양동 911)	6,537	256	B2/15	준공	2021
39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	18.11.07	19.02.19	21.05.27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57 (안양동 199)	6,611	145	B3/11	준공	2021
40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	19.02.14	19.03.27	22.01.06	만안구 덕천로 152번길 25 (안양동 1432)	24,777	1,228	B2/28	준공	2022
41	금정역 2차 SK V1 TOWER	20.10.15	20.11.23	23.02.21	동안구 엘에스로 136 (호계동 555-2)	10,719	413	B2/20	준공	2022
42	We19 지식산업센터	21.05.04	22.01.17	23.10.27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9 (호계동 1029-4)	2,328	59	B2/9	준공	2023
43	어반 플렉스 지식산업센터	22.02.03	22.05.30	23.10.25	동안구 시민대로 393번길 9 (관양동 905-1)	1,600	60	B1/13	준공	2023
44	인덕원역 더리브 디 하우스	21.06.07	22.01.10	24.03.29	동안구 평촌동 82	5,402	210	B4/13	준공	2024
준공 합계					44개소	342,433	7,940			
45	THE H TOWER 919 지식산업센터	22.02.03	22.07.01	24.06	동안구 관양동 919	4,558	139	B2/15	착공	
46	금정역 3차 SK V1 TOWER	22.02.28	22.07.15	24.09	동안구 호계동 555-26	8,717	377	B2/10	착공	
47	인덕원 LDC 비즈타워	22.02.28	22.05.24	24.08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45 (관양동 954-11)	4,917	273	B3/10	착공	
48	인덕원역 AK 밸리 지식산업센터	22.04.25	22.09.19	25.2	동안구 평촌동 119	4,938	70	B2/15	착공	
49	안양스마트N 베네스트 워크	22.05.09	23.09.18	27.5	박달동 617-12	6,990	250	B4/14	착공	
50	DS TOWER 지식산업센터	23.06.19	23.10.18	24.10	동안구 호계동 1026-10	3,057	9	B1/4	착공	
51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23.06.01	24.01.30	27.4	동안구 흥안대로 81번길 77 (호계동 533-1)	15,084	250	B4/18	착공	
52	관양동 894번지 지식산업센터	23.11.07	24.04.20		동안구 시민대로 365번길 20 (관양동 894)	3,988	198	B1/14	착공	
착공 합계					8개소	52,249	1,566			
53	안양동 219-2 지식산업센터	22.07.29	미착공		만안구 시민대로 28 (안양동 219-2)	2,472	143	B4/11		
54	관양동 951-1 지식산업센터	22.09.29	미착공		동안구 관양동 951-1	1,287	66	B4/18		
55	관양동 933-1,2 지식산업센터	22.12.23	미착공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48-29 (관양동 933-1)	2,470	100	B3/13		
56	박달동 617-19 지식산업센터	23.05.17	미착공		만안구 박달동 617-19	7,896	385	B4/15	미준공	
미착공 합계					4개소	14,125	694			

출처: 안양시 분야별 정보(지식산업센터 현황)¹⁶



호계동 권역 지식산업센터(지식산업센터114, 2024.8.29. 기준)

1) 호계동 권역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는 안양시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안양시의 공업지역을 네 권역으로 구분했는데, 건립 예정 중인 박달동(안양 스마트앤 베네스트워크)을 제외한 세 권역을 중심으로 실제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한다. 호계동 권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총 13개로 안양국제유통단지(안양공구단지)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안양국제유통단지는 동안구 엘에스로에 위치하여 2000년 7월 1일 입점을 시작한 국내 최대의 산업용품 전문유통단지로 대지면적 11만 6848㎡, 건축 연면적 27만 8443㎡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이며, 산업기자재 34개 동, 지원동, 대형마트, 디오밸리(지식



디오벨리 신축공사 상량식



안양국제유통단지 조감도(안양국제유통단지 갤러리)

안양국제유통단지 전경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조감도

산업센터) 각각 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5년 5월 13일에 건축 허가를 취득했으며, 2001년 3월 15일에 대규모 점포 시장(안양국제유통단지) 개설 허가를 취득했다. 2003년 3월 12일에 산업기자재동, 지원동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9월 28일에는 아파트형공장 디오밸리 사용이 승인되었다. 안양국제유통단지 홈페이지¹⁷에서는 입점 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2546개 업체 중에 디오밸리에는 현재 196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디오밸리는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의 연면적 2만 평 규모이며, 40~120평형대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과 2005년에 대우건설이 디오밸리를 분양 중이라는 분양정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평당 분양가가 당시 280만~340만원 선으로 보여진다. 또한 분양가의 70%까지 장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취득등록세 면제, 그리고 재산세와 종토세가 5년간 50% 감면받는다라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18·19}

한편 현재 분양 중인 지식산업센터로는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²⁰가 있다. 이곳은 옛 ‘안양LG연구소’ 부지(호계동 533-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로 현재 DL 건설과 KT&G에서 분양 중이다. 안양국제유통단지 옆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18층(2개 동), 연면적 9만 9168㎡ 규모에 주차대수는 법정 대비 193%인 838대로 계획되어

있다. 교통은 여타 단지과 마찬가지로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GTX-C노선(예정)이 다니게 될 금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수대로·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과천봉담 도시화고속도로·제2경인고속도로(안양~성남)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인접 지역은 물론 서울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도 용이한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¹

이 단지에는 차량 통행이 용이하고 원활한 출입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일부) 등을 비롯해 최고 5.7m의 높은 층고 설계를 통해 개방감이 확보되며, 중소형 모듈 위주로 설계되어 입주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공간 구성이 가능한 가변형 호실 설계되었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35% 감면,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의 분양 조건을 제공한다.

2) 안양·호계동 권역 지식산업센터

안양·호계동 권역에는 10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으며, 안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유천팩토피아와 가장 규모가 큰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 등이 위치한다.

지식산업센터 중 가장 처음 준공된 유천팩토피아는 1993년 사용승인 후 30여 년이 지난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로 최근까지 안양에 랜드마크였고, 오래된 건물답게 튼튼히 지어져 수요가 꾸준하면서 임대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곳이다. 전용률이 67%로 최근 지어진 동서아이에스와 비교 시 전용면적당 비용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지상층은 분양 75평(전용 50평)으로 동일하고 노후화된 이미지로 최근의 지식산업센터와 경쟁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건축을 통해 변화를 주고자 준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재건축 설명회가 있었다.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2022년 준공)는 옛 동화약품 부지에 들어선 초대형 지식산업센터로 부지 면적 2만 4777.6㎡에 건축 연면적 21만 6284.98㎡, 생산시설 면적 18만 3887.31㎡로 유치 가능 업체 수가 1228개인 안양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식산업센터이다. 규모에 걸맞게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는 종합매물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아이에스비즈타워의 전체 호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매물을 검색할 수도 있다.

아이에스비즈타워는 지하 2층에 지상 28층으로 분양 당시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²² 업무·상업·주거를 아우르는 복합업무시설로 꾸며져 최상의 윈스톱 비즈니스 환경



유천팩토피아 기공식(1991)



유천팩토피아(2007)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 종합매물현황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



안양·호계동 권역 지식산업센터(지식산업센터114, 2024.8.29.)

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과 탁 트인 안양천을 조망할 수 있다. 단지는 최고 5.4m의 층고, 바닥 하중 1.2톤/㎡, 가변형 벽체 등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했다.

3) 평촌·관양동 권역 지식산업센터

평촌·관양동 권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총 26개로 네 개의 권역 중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오비즈타워(O'BIZ TOWER)는 오성제지가 기존 제조업을 폐지하고 분양 및 임대사업으로 전환²³하면서 옛 오성제지 부지(관양동 81번지 외 4필지)에 건립된 35층의 초고층 지식산업센터이다. 대지면적 1만 5047.00㎡, 건축 연면적 12만 4171.03㎡, 생산시설 면적 5만



평촌-관양동 권역 지식산업센터(지식산업센터114, (2024.8.29 기준))

1777㎡로 2014년 6월에 준공되었다. 오비즈타워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초고층으로 유치 가능 업체 수는 330개, 주차대수는 1165대(법정 주차대수의 185.81%)로 확인된다.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중 가장 높은 오비즈타워는 기준 용적률이 원래 300%였는데, 공장부지 중 면적 7491㎡를 도로, 소공원, 연결녹지로 기부채납 하여 용적률(626%)과 층고(35층)를 모두 상향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사업관리를 맡았던 피데스개발이 다른 지식산업센터와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 이런 전략을 추진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준공된 예로는 2025년 2월 완공되어 현재 분양 중인 인덕원역 AK밸리를 들 수 있다. 동안구 평촌동 119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3만 1314.28㎡ 규모로 조성되었다. 대지면적의 약 18%를 녹지공간으로 확보하고, 1층



오비즈타워



인덕원역 AK벨리 입지



인덕원역 AK벨리 예상도

산책로와 옥상정원을 조성해 친환경 설계를 표방했다. 입주사를 위한 앱(SLP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예약, 사무기기 렌탈, 세탁, 카셰어링 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의 이점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도보 약 10분) 외에, 향후 GTX-C, 월곶-판교선,



평촌·관양동 권역 지식산업센터 일대

인덕원-동탄선이 개통되면 사중 역세권의 이점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 주요 광역도로와도 인접하여 서울, 판교, 광명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 안양시가 추진하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지역으로, 복합환승센터 및 주거, 상업 시설 등이 들어서는 스마트타운 개발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향후 판교, 광고 테크노밸리와 연계되는 수도권 남부 지식산업 벨트의 중심에 위치하며, 주변의 안양 벤처밸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박달동 권역 지식산업센터

2020년 7월 10일 시행된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²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213호)」는 박달동 일원의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 안양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말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는 “지식 및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기술 혁신이 빠르며, 관련 산업에



박달스마트밸리



박달동 일대 공업지역

파급효과가 큰 정보통신(IT)·극미세기술(NT)·생명공학(BT)·문화산업(CT)·의료산업 및 이의 지원을 위한 업무·상업·주거 기능 등의 개별 산업 또는 이들 상호 간의 융복합을 통하



안양 스마트N베네스트워크 입지와 사업개요(안양스마트N베네스트워크 홈페이지)

여 조성하는 지구”로 일명 ‘박달스마트밸리’로 통칭하고 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328만㎡(군용지 299만㎡, 기타용지 29만㎡) 부지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참고로 박달스마트밸리는 제50탄약대대(인접한 공병 장비훈련장 및 사영장을 포함) 부지를 지하에 탄약고를 설치하고 기업과 아파트를 유치하는 기부 대 양여²⁵ 방식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은 물론 군사시설 보호와도 맞지 않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2024년 4월에 민간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 예정돼 있고, 2조200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박달동에 현재 분양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안양스마트N베네스트워크’가 있다. 단지는 박달스마트밸리 예정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건설사업이 시공하며, 제조형과 사무형 시설로 구성된다. 제조형은 최대 층고가 6m로 높고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 도입돼 물류 상하차 편의를 높인다. 사무형은 풀옵션 빌트인이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교통망으로는 금천구와 구로구에 가깝고, KTX광명역과 광명IC, 신안산선(예정), 월곶판교선(만안역 예정), 광명서울고속도로(예정) 등의 도로망을 갖추어 향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교통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²⁶

3.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운영 실태

안양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운영 실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는 없다.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황 파일에는 시행사·시공사, 승인일, 착공일(예정일), 완료일(예정일), 소재지, 용도지역,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생산시설 면적, 지원시설 면적, 유치 가능 업체 수, 층수, 동수, 공사진행(준공/착공), 준공연도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안양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네이버페이 부동산²⁷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물 현황에서는 다양한 매물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 ‘지식산업센터’분류가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에 있는 사무실과 공장/창고는 제외하고 현황을 파악했다. 아직 준공되지 않은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했다.

전체 매물 건수를 확인하고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황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치 가능 업체 수를 비교하여 공실률²⁸을 계산했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매매보다는 월세 매물이 더 많은 편이었다. 유치 가능 업체 수가 매우 적어서 모두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규모로 건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공실률이 가장 높은 지식산업센터는 규모가 적고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동일테크노타운 5차(38.5%)’와 ‘성일디지털타워(37.5%)’였다. 이와 유사하게 ‘동일테크노타운A(1차)’도 33.3%의 공실률이 산출되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들은 유치 가능 업체 수가 30개가 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지만 건물이 노후화되고, 이후 새로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많다 보니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매물 현황 및 공실률(2024년 8월 말 기준)

	지식산업센터명	유치 가능 업체 수	전체 매물 ²⁹ (건)	매매(건)	월세(건)	공실률
1	유천팍토피아	182	15	2	13	8.2
2	동일테크노타운 A(1차)	12	4	2	2	33.3
3	동일테크노타운 B(2차)	24	1	-	1	4.2
4	동일테크노타운 C(3차)	61	6	-	6	9.8
5	동일테크노타운 7차	45	4	1	3	8.9
6	동일테크노타운 5차	26	10	4	6	38.5
7	동영벤처스텔 3차	16	4	-	4	25.0
8	동영벤처스텔 5차	48	10	5	5	20.8

	지식산업센터명	유치 가능 업체 수	전체 매출 ²⁹ (건)	매매(건)	월세(건)	공실률
9	성일디지털타워	16	6	-	6	37.5
10	안양메가밸리	166	7	7	-	4.2
11	명지e스페이스	25	6	2	4	24.0
12	한국프라자	7	-	-	-	0.0
13	안양디오밸리	181	-	-	-	0.0
14	두산벤처다임	280	56	18	37(단기 1)	20.0
15	신원비전타워	73	11	5	6	15.1
16	관양두산벤처다임	49	2	1	1	4.1
17	안양IT밸리	80	24	14	10	30.0
18	인덕원성지스타워드	242	28	11	17	11.6
19	대릉테크노타운 15차	242	9	4	5	3.7
20	디지털엠피어 A동	35	2	1	1	5.7
21	디지털엠피어 B동	52	4	1	3	7.7
22	금강팬테리움IT타워	400	41	12	29	10.3
23	에이스평촌타워	110	10	2	8	9.1
24	LS엠트론(주)하이테크센터	8	-	-	-	0.0
25	평촌스마트베이	186	45	13	32	24.2
26	평촌오비즈타워	330	72	15	56(단기 1)	21.8
27	평촌디지털엠피어	288	42	10	32	14.6
28	아이에스비즈타워	302	74	22	52	24.5
29	두림아스카와(주)안양사옥	20	1	-	1	5.0
30	안양 SK V1센터	332	45	21	24	13.6
31	평촌역 하이필드	390	56	14	42	14.4
32	안양(호계)데시앙플렉스	234	43	18	25	18.4
33	스마트베이2차	63	4	2	1(단기 1)	6.3
34	K-비즈리움	147	27	4	23	18.4
35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범계	258	83	32	51	32.2
36	호계 금정역 SK V1 센터	342	48	19	29	14.0
37	안양2차 SK V1센터	297	64	21	42(단기 1)	21.5
38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평촌	256	74	42	32	28.9
39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	145	47	32	15	32.4
40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	1,228	383	201	180(단기 2)	31.2
41	금정역 2차 SK V1 TOWER	413	74	23	51	17.9
42	We19 지식산업센터	59	5	-	5	8.5
43	어반 플렉스 지식산업센터	60	5	4	1	8.3
44	인덕원역 더리브 디하우트 ³⁰	210	282	5	277	-
45	THE H TOWER 919 지식산업센터	139				

	지식산업센터명	유치 가능 업체 수	전체 매물 ²⁹ (건)	매매(건)	월세(건)	공실률
46	금정역 3차 SK V1 TOWER	377				
47	인덕원 LDC 비즈타워	273				
48	인덕원역 AK 벨리 지식산업센터	70				
49	박달동 하이테크 지식산업센터	250				
50	안양동 219-2 지식산업센터	143				

▲ 네이버페이 부동산 자료 가공(2024.8.20)

‘지식산업센터114’는 지식산업센터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전국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114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요 지역들의 지식산업센터 가격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안양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자료가 2023년 4월에 게시되었다. 2000년 초반 이전에 준공된 오래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평당 300만~500만원,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 이전에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는 평당 600만~900만원, 2018년 이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는 평당 1000만~1200만원 전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중 10개의 건물에 대한 가격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완만한 가격 안정세를 보이다 2021년에 급격히 상승하고, 2022년 중반기부터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 기준)는 총 1539개로 2020년 4월(1167개) 이후 362개 늘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안양시도 현재 56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는 2018년 이후 인허가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분양에 대한 위험이 커졌고, 분양이 완료된 후에도 임차인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당분간 가격 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빅카인즈³¹에 ‘공실률³²’을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2019년과 2024년에 두드러지게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공장과 달리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도 받지 않다 보니 부동산 호황기에 인기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우후죽순 분양됐다. 그런데 이처럼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공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무리하게 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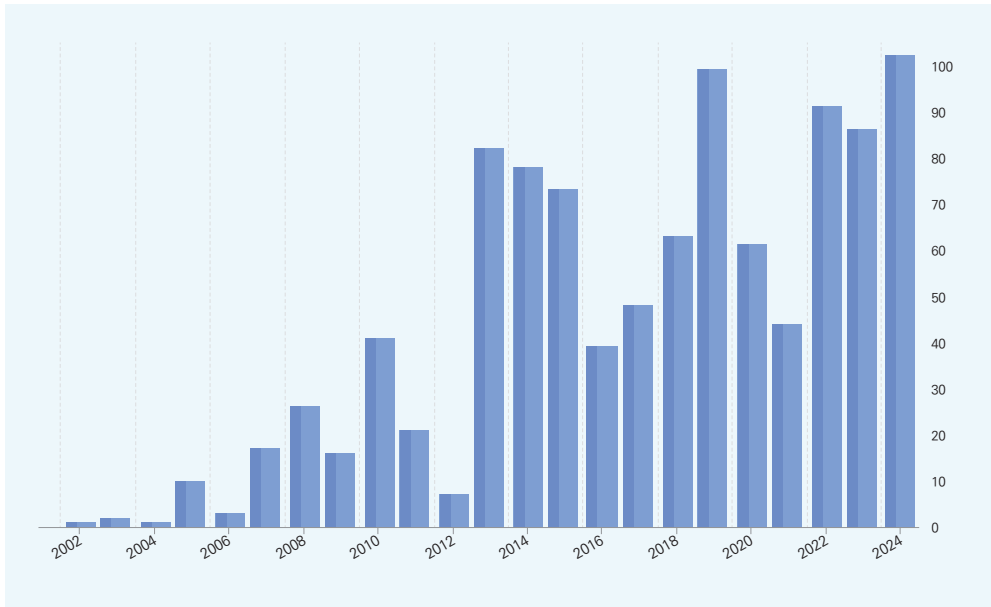
을 내 투자했다가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투자자들의 매물도 경매로 쏟아지고 있다³³고 한다. 2024년 8월 29일 뉴시스에도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경매 건수가 급증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지식산업센터는 집값이 급등했던 2020~2022년 주택 규제에 따른 풍선효



안양시 실거래가 추이(네이버 블로그, 지식산업센터114)

과, 주택에 비해 대출 등의 규제가 높지 않은 점,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공실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는 지식산업센터 빅데이터 플랫폼 ‘지식산업센터114’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올해 2분(2025년 5월 기준)기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 분기(223건) 대비 71%가 증가했다. 경매가 진행돼도 응찰자가 적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서울 62.0%, 경기 64.9%, 인천 62.3% 등 60%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2021년 유현아 외 3인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정책과제를 도출한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 분포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지식산업센터의 약 81%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개별 입지 형태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지원시설 면적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민간 및 공공 모두 임대보다 분양비율이 높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중소기업이었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인 안양시의 기업 특성과도 동일하다.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해당 권역별 공장의 신증설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예외 조항으로 인해 실제 지식산업센터가 별다른 관리 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데이터 및 통계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도 꼽고 있다.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은 물론 데이터 파악 자체가 전무후무한 실정인데, 지식산업센터 한 건물에 여러 내지 수십, 수백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분양, 임대 거래에 관한 데이터가 누적



공실률(아파트형공장 or 지식산업센터) 트렌드 분석(빅카인즈)

되는 창구가 존재하지 않아 시장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안양시의 지식산업센터 문제점을 직접 다룬 기사를 살펴보면 2005년 4월 19일 『경인일보』에 「[안양도시행정 점검] 1. 문제투성이 공업지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당시 2002년 이후 건축경기 붐을 타고 안양권역에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아파트형공장이 우후죽순 건립되고 있으나 미분양에 따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더 많은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은 무리수를 두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아파트형공장 5개가 준공되었고, 2002년에도 5개의 아파트형공장이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공사를 진행 중이라 모두 완공되면 안양에 무려 17개의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50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에도 동일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안양시에 현재 분양 중인 지식산업센터들은 서울에서 가깝고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낙관적이라는 기사들도 동시에 보도되고 있는데, 향후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당시 기사 중에는 벤처기업 관계자들의 의견도 담았다. 기업이 성장해 공장을 갖춰야 할 때쯤엔 공장을 지을 땅이 없어서 결국 기업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벤처기업을 많이 유치하더라도 안양시는 결국 ‘거처가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지금도 다

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안양시는 현재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지식산업센터는 그런 기업들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후 기업이 성장하고 확장될 시기가 되면 안양시 내부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이후 관리 차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註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법률 제 20234호 제2조 제13호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제4조의6
- 3 상공부는 1948년 7월 17일에 설치되어 상업·물자 행정·물가 행정·무역·광업·연료·수산·전기·공업·도량형 및 특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으로 1993년 3월 5일 동력자원부와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됨.
- 4 『국정정책 브리프』, 유현아·홍사흠·최예슬, 국토연구원, 2022.
- 5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6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정책과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유아현 외, 국토연구원, 2021.
- 7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지역경제 25호, 이원빈, 산업연구원, 2011.
- 8 이상균·오준걸, 『지식산업센터 배치유형과 외부공간구성 요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15.
- 9 고대은, 『업무·지원영역 구성 유형별 지식산업센터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2015년 이후의 서울, 경기도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10 안양시청, 분야별 정보(<https://www.anyang.go.kr>)
- 11 『서울신문』, 「굴뚝의 도시 안양, IT도시 변신」, 2008년 12월 17일(<https://www.seoul.co.kr>)
- 12 『아시아경제』, 「안양 사업체 총사자 꾸준히 증가…」(<https://www.asiae.co.kr>)
- 13 팩토리온(<https://www.factoryon.go.kr>)
- 14 안양시(<https://www.anyang.go.kr>)
- 15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현황(최종 수정 일자 2024.08.06.)을 살펴보면 현재 안양시에는 50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등록되어 있고, 현재 6개는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16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현황(<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405>)
- 17 참고로 안양국제유통단지 홈페이지는 2017년에 명감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되었고, 2022년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 1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4082201891>
- 19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0502061658561
- 20 <http://www.xn--oy2bp0c54bv3usiey5l.com/>
- 21 『n 뉴스』, 「위기에도 '디지털 엔지니어' 평촌 비즈밸리' 주목받는 이유」, 2024년 5월 24일.
- 22 『국토일보』, 안양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안양 아이에스비스타 워 센터럴' 2차 분양, 2020년 9월 10일(<https://www.ikld.kr>)
- 23 오성제지는 1979년 7월 25일 설립 후 골판지용 라이나원지의 제조와 판매를 해왔다. 2000년대 연평균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던 오성제지는 2010년 9월 30일로 제조업을 중단하고 오비스타워를 신축해 분양 및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정운섭, 2018)
- 24 2018년 조례 제정 당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박달테크노밸리)'에서 2019년에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개정.
- 25 군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을 국방부로부터 양여를 받는 방식.
- 26 『글로벌 이코노믹』, 「지식산업센터 '안양스마트네네스트 워크' 11월 분양」, 2023.11월 1일(<https://www.g-enews.com>)
- 27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모든 매물을 다루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른 매물 정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매물이 등록되어 있었다.
- 28 전체 매물 건수/유치 가능 업체 수*100
- 29 네이버페이 부동산에 '지식산업센터'만 선택하여 나온 매물 건수를 집계하여 작성했는데, 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과 '공장/창고' 항목은 제외된 건수임.
- 30 최근(2024년 3월) 사용승인이 나서 분양받은 첫 입주를 앞둔 월세 매물이 많음. 기존 유치 가능 업체수로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업체수가 유치 가능함. 공실률의 의미가 없어 제외함.
- 31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https://www.bigkinds.or.kr>)
- 32 상세 검색에서 '아파트형 공장' 또는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여 검색하도록 설정함.
- 33 『연합뉴스』, 「매물단지 된 지식산업센터…」, 2024년 2월 12일(<https://www.yna.co.kr>).

03 안양 산업생태계의 변화와 산업육성 정책

- 제1장 신도시 개발과 산업구조의 변화
- 제2장 안양 산업의 진흥을 위한 육성 정책
- 제3장 벤처기업의 지역 정착과 유형별 경영환경



1980년대 들어 안양시의 산업구조는 2차산업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 3차산업 늘어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으며, 1985년부터 3차산업 종사자가 2차산업 종사자를 넘어섰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2010년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안양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벤처사업 육성 및 첨단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경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1장

신도시 개발과 산업구조의 변화



김근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 안양시 산업구조 변화 양상

1) 도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안양은 20세기 초까지 서울 근교의 자연발생 촌락으로 농촌지역이었으나,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는 시흥군 서이면으로 인구는 약 3500명 정도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었다. 하지만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입지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여 1930년대부터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32년 조선직물주식회사 공장이 들어선 이래 1942년 고려석면, 1943년에 제일방직과 삼덕제지 같은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공업용수의 취득이 용이한 안양천변을 중심으로 1948년 금성방직 등 섬유, 제지, 기계, 금속, 화학 관련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안양지역은 철도교통의 중심지이면서 섬유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철도 개통과 공장 건립을 계기로 도시로 성장한 안양은 1945년 시흥군청이 안양면으로 이전하고 안양경찰서가 개소되면서 시흥군의 행정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1949년 인구가 약 2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안양읍으로 승격했다.

1950년대 전쟁으로 공장들이 대규모 피해를 겪기도 했지만, 1953년 태평방직 설립과 1960년대 한국특수제지 설립을 통해 지역경제 재건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1965년 현대양행, 1966년 금성사 등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 건립되어 산업구조가 기계·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변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구가 성장했는데, 1965년 약 5만 명에서 1970년대에는 약 9만 명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했다. 또한 1963년에 서면 박달리와 동면 안양리가 안양읍에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의 면적도



유엔한국재건단의 후원으로 안양의 삼덕제지공장은 전쟁 전의 생산량을 회복했다(1954, 국가기록원 제공)



유엔한국재건단의 후원으로 개·증축된 금성방직 공장(1954, 국가기록원 제공)

확장되었다. 1953년 시작된 제1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제2·3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안양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만안구 구시가지 공간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1965년에 이미 안양의 2차산업 인구율이 31.2%에 도달했지만, 1차산업 인구율은 계속 감소세를 보여 26.4%로 떨어졌다. 이처럼 1960년대 후반까지 서울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과 공업시설을 바탕으로 안양은 점차 도시화에 진입했다.

1970~1980년대에는 산업화와 인구 증가 현상이 지속되었고, 제5차~제8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시가지 형성이 계속되었다. 1972년 경수산업도로가 확장되고, 1974년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어 관악역 및 명학역을 이용한 지역 간 교통체계도 갖추어졌다. 안양시는 1973년 시로 승격되었으며, 당시 인구는 약 11만



1970년대 안양상공회의소 포스터



안양시 관내 기업체 소집교육(1977)

명으로 성장했다. 1970년대 이후 안양의 산업 구조가 가파른 속도로 재편되면서 공업 도시의 면모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1973년 시 승격 당시 2차산업의 인구율은 64%에 달했다. 안양은 서울의 제조업 기능을 양도받으면서 서울 영등포와 구로, 수원, 인천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경인 공업지역의 핵심 도시로 부상했다. 이 시기에는 저렴한 지가로 인해 넓은 용지 확보가 용이하고 원자재나 완제품 수송에 적합한 경부선 주변이나 경수 산업도로 주변에 많은 공장이 들어섰다. 특히 안양동과 호계동에 전체 제조업의 38.1%가 입지하여 공업벨트를 형성했다. 이 시기 안양시의 빠른 인구 증가는 서울 남부 공업 지구 및 인천 공업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 1973년의 시 승격, 1974년 경수산업도로 및 전철 개통으로 인한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 서울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인구 및 산업의 분산정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¹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안양의 산업구조가 재편되었다. 1980년대 들어 안양시의 산업구조는 2차산업 인구율이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 3차산업 인구율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으며, 1985년에 3차산업 인구율이 2차산업 인구율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1985년과 1995년의 2차산업 종사자는 각각 5만 명 선을 겨우 유지했고, 종사자 비율은 오히려 43.3%에서 32.8%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3차산업 종사자는 6만 3592명에서 10만 3716명으로 늘어났고, 비중 역시 54.7%에서 67.1%로 증가했다. 1979년 공업 배치법으로 인해 안양시에 더 이상 중화학공업의 신·증축이 허가되지 않았고, 안양천의 공업용수 공급 한계로 공장 시설의 확장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² 이렇게 안양시 발전의 주요 동력이었던 공업 기능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했다. 하지만 안양시의 도시산업 종사자율은 1995년 99.9%로 나타나 안양시의 도시적 기반 기능이 확충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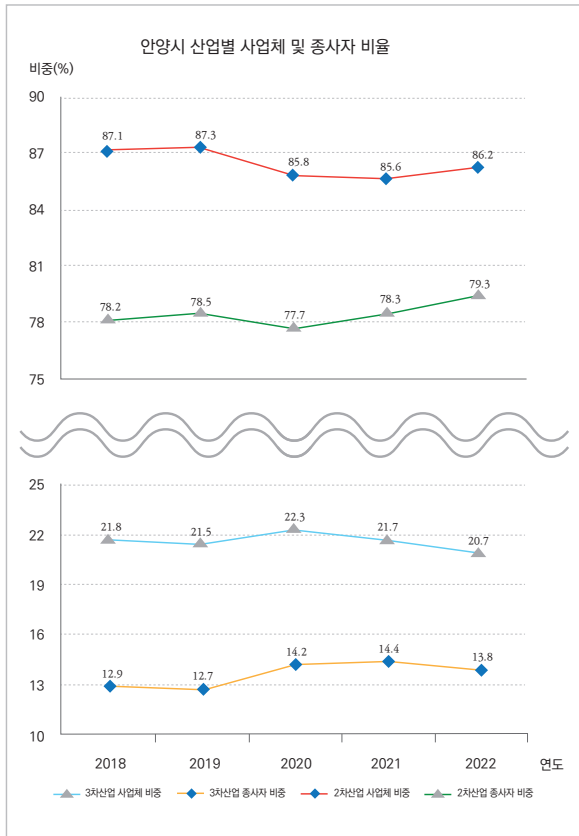
안양시는 안양역 중심의 기존 시가지 주변 지역 개발과 정비를 통해 도시 확장 및 관리를 했지만, 1980년대 말 주택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계획에 평촌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이전과 전혀 다른 도시화가 전개되었다. 평촌신도시는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서울시 등 대도시의 인구집중 가속화로 주택 문제 및 도시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서울 및 인접 도시 내 가용토지의 한계로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자 평촌을 비롯한 분당·일산·산본·중동 등 수도권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했다. 평촌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남쪽으로 20km 반경 내인 안양시에 위치하며, 주거 중심의 시가지로 개발하여 생활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장래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안양 대도시권의 새로운 중심 업무 지역으로 기능하도록 계획되었다. 즉 안양 대도시권의 신중심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중심 상업 업무 지역에 시청·시의회·교육청·경찰청·법원·검찰청 등의 공공 업무 기능을 유치했고, 지하철 평촌·범계역 인근에 한국석유공사·안양농협·건설공제조합·국토연구원·조선일보사 등을 입주시켜 행정타운을 형성했다. 지구 서쪽 지하철 범계역 인근에는 대규모 쇼핑단지과 은행·농협·신용보증기금 등이 입주하여 쇼핑금융타운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평촌지역에 인구 약 17만 명의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안양시의 인구 증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함과 더불어 공간적으로 급격히 팽창했고, 행정지구 역시 만안구와 동안구의 구청 제도가 도입되는 등 대도시 단계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의 빠른 보급으로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문화산업 등 다양한 지식산업이 새롭게 발달하면서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생산 규모가 연평균 20%씩 성장했고, 국내총생산에서의 비중이 1999년 10%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미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수도권 대표 공업도시였던 안양시는 「수

평촌신도시 중앙공원





비고: 1차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0%

도권정비계획법」 등의 법률적 제약으로 공장의 신·증설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발전의 한계에 직면했고, 주거밀집형 도시로 변모하면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변화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90년대 벤처 창업 붐이 일어나면서 안양지역에도 벤처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그 이유는 서울의 테헤란밸리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다수의 벤처기업이 좋은 기업 환경을 갖춘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안양시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적절한 지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안양시는 경제 환경의 변화와 벤처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 발전을

을 도모하고 미래 경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안양시는 1999년 「벤처기업 육성 조례」를 기초자치단체 처음으로 제정하고, 이를 전담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00년 11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공식 지정되었다. 1980년대 안양시에는 15개의 벤처기업이 설립되었고, 1990년에 매년 5개 내외 정도의 벤처기업이 신설되는 정도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 창업 지원 정책으로 벤처기업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1998년 36개이던 안양시의 벤처기업 수는 벤처밸리가 지정된 2000년 200개, 2001년 250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벤처 열풍이 식고 일부 부실 벤처기업의 퇴출로 2002년 안양시의 벤처기업 수는 215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건설한 벤처기업들이 다시 증가하면서 2006년에는 297개의 벤처기업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안양시의 2차산업 감소 및 3차산업 증가의 산업

구조 경향은 2010년 이후 더욱 심화했다. 안양시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비중이 0%대 이고, 2차산업 비중이 평균 13%인 반면, 3차산업 비중은 평균 87%로 매우 높은 3차산업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2018년 2차산업은 12.9%의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 비중은 21.8%였으나, 3차산업은 87.1%의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 비중은 78.2%로 증가했다. 2021년 2차산업은 14.4%의 비중을 차지하여 약간 증가했지만, 종사자 비율은 3차산업이 5만 4308개인 85.6%로 비중이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에 2차산업은 9059개인 13.8%로 다시 소폭 감소했으나, 3차산업은 5만 6656개인 86.2%로 소폭 증가했다.

2) 아파트형공장



호계동 공업지역(1988)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전체적인 안양지역의 총면적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 이용의 급격한 변화로 대지가 증가했다. 안양시는 안양역 중심의 기존 시가지 주변 지역 개발과 정비를 통한 도시 확장 및 관리를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1980년대 말 주택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에 대처하고자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

설계획에 평촌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가 전개되었다. 즉 평촌지역에 인구 약 17만 명의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공간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했고, 행정기구도 만안구와 동안구에 구청 제도가 도입되는 등 대도시 단계로 접어들면서 산업구조 역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공업지역 면적은 절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면적이나 대지면적 대비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유는 동일방직과 한국제지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업용지는 축소되고 기존 공장들이 이전한 자리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정책이 공해 유발 업소나 중소제조업들을 지방이나 공단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1960~1970년대 전통적 중소제조업이나 공해 유발 업소 등이 기존 부지에 머무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로 인하여 아파트형공장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안양시에 자리 잡은 아파트형공장 16개는 모두 굴뚝 공장이 이전한 자리에 들어섰다.

아파트형공장은 동일 건축물 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로 규정³되어 있으며, 아파트형공장 내 용도 구분은 산업시설(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과 지원시설(물류시설·보육시설·기숙사 등)로 구분된다. 아파트형공장 설립 주체는 민간

인덕원동 공업지역





동일테크노타운(2007)



안양메가밸리(2007)

건설업체, 국가·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공사 등 다양하다.⁴

안양시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체를 위하여 다수의 아파트형공장이 마련되어 있다. 안양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1992년 10월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옛 쌍용제지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7만 2000㎡ 규모로 들어선 유천팩토피아가 처음이었다. 그 후 동일테크노타운이 1995~1997년까지 4개 동의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수평적 토지 이용에 대한 대안으로 수직적 공간 확대를 통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안양메가밸리·평촌두산벤처다임 등 14개소에 982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특히 동안구 관양동의 동일테크노타운(4개 동)은 2002년 8월 중소기업청이 정보화 촉진 지역으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아파트형공장은 앞으로 수평적 토지 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집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토지 공간의 수직적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입지적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아파트형공장은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8년 기준 공업지역 내 노후 공장부지와 공장 이전 부지에 총 31개소의 민간 부문 지식산업센터를 유치 및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안양시는 이미 확보된 지식산업센터 건설 자금을 신규 대상 업체에 지원하여 중소 제조업체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산업인 IT 및 지식첨단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⁵

2024년 5월 기준 안양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총 56개의 지식산업센터 중 현재 44개소가 준공되어 총 부지는 34만 2433㎡에 총 7940개 기업이 입주 가능하다. 또한 8개소가 착공 중으로 총 5만 2249㎡에 1566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4개소가 미착공 상태로 1만 4125㎡ 부지에 총 694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규모이다.

3) 서비스업 비중 증가

서비스업이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타 경제주체나 경제객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무형의 경제재 생산활동을 의미한다.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명확히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통계생산·제공 관련 편제 방법에 따라 서비스업 분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통계 작성 및 정책 적용 과정에서 혼란 야기로 ① 국내 통계지표 확장성 및 정합성, ② 국제기구 등과의 비교성, ③ 부가가치 기준 주된 산업활동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업 통합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

로 16개 산업대분류(E, G~U)⁶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이 1차산업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이 2차산업으로 분류되며,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제외한 나머지 3차산업이 광의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안양시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구조 변화를 산업 종사자 비중을 통해 살펴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구조로 개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안양시의 1965년 종사자 기준 1차산업(농업·임업·어업)은 26.4%, 2차산업(광업·제조업·건설업)이 31.2%, 3차산업(서비스업)이 35.3%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1차 및 2차산업 비중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3차산업인 서비스업 비중은 증가했다. 1973년 1차산업은 7.1%, 2차산업 64.3%, 3차산업 28.6%로 2차산업 비중이 매우 높았다. 특히 1차산업 비중은 1980년 1.82%, 1985년 1.49%, 1995년 0.79%, 2000년 0.04%, 2005년 0.0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차산업의 점유 비중 역시 1973년 64.3%에서 1980년 45.3%, 1985년 43.6%, 1995년 38.4%, 2000년 25.1%, 2005년 19.7%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2차산업 비중의 감소는 1979년의「공업배치법」으로 인한 중화학공업의 신·증축 허가 금지, 도시화에 따른 산업용지 가격의 상승, 공업용수 및 상수도 부족 등 공업 입지 여건의 악화가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 이에 반해 안양시의 3차산업 비중은 1973년 28.6%에서 1980년 52.9%, 1985년 54.9%, 1995년 60.9%, 2000년 74.9%, 2005년 80.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안양시의 높은 서비스업 비중 경향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87%, 2020년 87%, 2021년 87%, 2022년 87%, 2023년 87%로 여전히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최근 5년 자료를 통해 안양시의 서비스업 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의 전체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019년 4만 1478개에서 2023년 6만 1814개로 약 49% 증가했다. 안양시의 서비스업 업종별 분포(산업대분류별)를 통해 업종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19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이 1만 1551개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그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7079개(17.1%), '운수 및 창고업이 4544개(1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4273개(10.2%) 순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이 1만 8734개(30.3%)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운수 및 창고업이 7767개(12.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두 업종의 특징은 사업체 비중보다 사업체 수의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7338개(11.9%)로 세 번째로 비중이 높았지만, 사업체 수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2019년 대비 2023년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정보통신업(861개 → 2314개), 건설업(1897개 → 3772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63개 → 1516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67개 → 3960개), 부동산업(2220개 → 3867개), 도매 및 소매업(1만 1551개 → 1만734개)으로 인구 증가와 더불어 벤처산업 및 사업구조 고도화 관련 업종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 변화 추이는 종사자 추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안양시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19년 26만 1491명에서 2023년 28만 2736명으로 약 8.1% 정도 증가했다. 2019년 종사자 수가 많은 업종 순서를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3만 9650명(1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만 5330명(11%), 숙박 및 음식점업 2만 3877명(10.5%), 건설업 2만 1332명(9.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만 62명(8.9%), 교육 서비스업 2만 24명(8.8%),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만 6021명(7.1%), 운수 및 창고업 1만 2708명(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3년 종사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4만 3797명(17.7%)으로 가장 많았으나 두 번째로 종사자가 많은 업종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만 892명(12.1%), 세 번째 업종은 건설업 2만 1828명(9.5%), 네 번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만 2947명(9.3%)으로 변화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2만 1828명(8.9%)으로 다섯 번째로 순위가 낮아졌으며, 여느 업종과 달리 종사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업체 수와 마찬가지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전체 2위로

평촌역 하이필드 지식산업센터(2024)



높은 비중을 보인다는 것은 벤처산업 및 사업구조 고도화와 관련된 업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1〉 안양시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추이(2019~2023)

(단위: 개, %)

산업대분류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0 (0.1)	1,042 (0.5)	68 (0.1)	957 (0.4)	75 (0.1)	1,328 (0.6)	77 (0.1)	1,288 (0.5)	79 (0.1)	1,226 (0.5)
건설업	1,897 (4.6)	21,332 (9.4)	3,948 (6.8)	24,033 (10.4)	3,974 (6.8)	23,635 (10.0)	3,884 (6.4)	22,707 (9.4)	3,772 (6.1)	23,504 (9.5)
도매 및 소매업	11,551 (27.8)	39,650 (17.5)	17,828 (30.6)	42,262 (18.3)	17,840 (30.6)	44,881 (19.0)	17,908 (29.6)	43,726 (18.1)	18,734 (30.3)	43,797 (17.84)
운수 및 창고업	4,544 (11.0)	12,708 (5.6)	6,520 (11.2)	12,307 (5.3)	6,189 (10.6)	11,660 (4.9)	7,607 (12.6)	12,937 (5.4)	7,767 (12.6)	14,045 (5.1)
숙박 및 음식점업	7,079 (17.1)	23,877 (10.5)	7,571 (13.0)	19,628 (8.5)	7,421 (12.7)	19,805 (8.4)	7,402 (12.2)	20,941 (8.7)	7,338 (11.9)	21,828 (8.8)
정보통신업	861 (2.1)	9,553 (4.2)	2,054 (3.5)	11,125 (4.8)	2,222 (3.8)	12,456 (5.3)	2,373 (3.9)	12,575 (5.2)	2,314 (3.7)	12,079 (4.9)
금융 및 보험업	553 (1.3)	8,888 (3.9)	741 (1.3)	7,651 (3.3)	725 (1.2)	7,920 (3.4)	693 (1.1)	7,769 (3.2)	695 (1.1)	7,804 (3.2)
부동산업	2,220 (5.4)	8,382 (3.7)	3,241 (5.6)	9,355 (4.0)	3,404 (5.8)	9,214 (3.9)	3,902 (6.4)	9,565 (4.0)	3,867 (6.3)	9,231 (3.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91 (5.3)	25,330 (11.2)	3,842 (6.6)	28,148 (12.2)	3,892 (6.7)	29,857 (12.6)	3,960 (6.5)	29,286 (12.1)	3,962 (6.4)	30,892 (12.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63 (1.8)	16,021 (7.1)	1,584 (2.7)	17,817 (7.7)	1,505 (2.6)	16,601 (7.0)	1,462 (2.4)	18,839 (7.8)	1,516 (2.5)	20,019 (8.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4 (0.2)	5,337 (2.4)	73 (0.1)	5,724 (2.5)	73 (0.1)	5,907 (2.5)	72 (0.1)	6,473 (2.7)	73 (0.1)	6,830 (2.8)
교육 서비스업	2,439 (5.9)	20,024 (8.8)	2,842 (4.9)	18,428 (8.0)	3,014 (5.2)	19,183 (8.1)	3,065 (5.1)	19,679 (8.2)	3,280 (5.3)	20,254 (8.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39 (4.0)	20,062 (8.9)	1,708 (2.9)	20,968 (9.1)	1,734 (3.0)	20,845 (8.8)	1,773 (2.9)	22,038 (9.1)	1,798 (2.9)	22,947 (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77 (3.3)	4,519 (2.0)	1,515 (2.6)	3,545 (1.5)	1,538 (2.6)	3,653 (1.5)	1,566 (2.6)	3,921 (1.6)	1,581 (2.6)	4,098 (1.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230 (10.2)	9,648 (4.3)	4,721 (8.1)	9,464 (4.1)	4,637 (8.0)	9,331 (3.9)	4,760 (7.9)	9,396 (3.9)	5,038 (8.1)	9,569 (3.9)
합계	41,478 (100)	226,373 (100)	58,256 (100)	231,412 (100)	58,243 (100)	236,276 (100)	60,504 (100)	241,140 (100)	61,814 (100)	246,659 (100)

출처: 2024 안양시 사회조사

2. 안양시 이전 공장 추이 및 대형 공장의 활용

안양시의 공업지역 정비 방안⁸을 통해 안양시에서 옮겨 간 공장들의 이전 추이 및 대형 공장 활용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안양시에서 이전한 대형 공장들을 중심으로 대형 공장부지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안양시에서 이전한 대형 공장들은 쌍용제지·조일제지·대한전선·크라운제과·오투기식품·동양섬유 등이며, 대부분 이러한 대형 공장들이 이전한 기존 부지는 공업지역으로 대부분 아파트형공장(현재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이 들어섰다. 하지만 일부 부지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도 했으며, 공원이나 박물관 등으로 보전된 지역도 있다.

대부분의 입주 기업들이 IT와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은, 상당한 고용 규모로 인해 지역경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안양에 이러한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들어선 배경에는 기존 굴뚝 공장의 이전으로 확보된 부지, 서울 강남과 고속도로로의 우수한 접근성,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풍부한 IT 분야 기술 인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안양시는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시 관내로 이전할 경우, 최대 30억원 범위 내에서 이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 아파트형공장 부지로 활용된 사례

기존 대형 공장들이 이전한 후 들어선 아파트형공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6년 안양7동 옛 쌍용제지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7만 2222㎡ 규모의 유천팩토피아가 들어섰다. 유천팩토피아는 안양 아파트형공장의 선구자로 사용 승인 후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안양의 랜드마크로 꾸준한 임대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노후화와 다양한 평수 부재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다음으로 호계동 금성통신 부지에 디오밸리가 들어섰다. 2005년 건설된 연면적 6만 5000㎡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디오밸리는 안양국제유통단지에 위치하며, 산업기자재동, 전문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같은 전문 유통업체 업무지원동 등으로 구성된 종합 공구단지로서 국내 산업용품 유통의 메카이다.

평촌동 삼화왕관 자리에는 두산벤처다임 연면적 3만㎡이 자리를 잡았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에 위치한 두산벤처다임은 2006년 3월 28일 사용 승인을 받



금성통신(1970년대)



국제유통단지내 상가



금성통신 부지에 들어선 국제유통단지

았으며 건축 규모는 연면적 3만㎡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이다.

안양7동 케임브리지 부지에 위치한 동영벤처스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99-32에 자리하며, 연면적 2만 2000㎡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이다.

관양2동 뉴욕제과 부지에는 안양메가밸리⁹가 들어섰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메가밸리에 위치한 이 건물은 2003년 5월 19일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건물 구조는 연면적 9만 2000㎡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아파트형공장이다. 현재 안양메가밸리에는 22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또 호계동 옛 조일제지 자리에는 삼성IT밸리가 안양시 호계동 금정역에 들어섰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주변에 위치한 삼성IT밸리는 5764㎡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2만 520㎡ 규모로 조성되었다. 당시 금정역 주변이 복합뉴타운으로 개발되면서 LS그룹 본사 및 계열사 등이 입주했다.

관양동 옛 동양섬유 자리에는 대륜테크노타운 15차가 조성되었다.¹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번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10만 1000㎡에 지하 3층, 지상 21층 규



안양 아이비에스비즈타워

모로 2025년 5월 기준 총 29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인근 크라운제과 부지에는 금강펜테리움IT타워¹¹가 2011년 12월 준공되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1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3만 2000㎡에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3230㎡이다.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구분은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다.

오랫동안 비어 있던 동화약품 안양공장은 2017년 8월 아이에스동서에 부지가 850억 원에 매각된 후 63빌딩의 1.5배 규모인 안양시 최대 규모의 복합업무시설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가 들어섰다.¹² 연면적 21만 6285㎡에 업무·상업·주거를 아우르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로 탄생했다. 아이에스비즈타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89번이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로 2022년 2월에 준공되었다.

2)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된 사례

대한전선 안양공장은 2011년 말 안양공장을 충남 당진으로 이전하면서 2011년 11월 5일 폐업했다. 대한전선 안양공장은 1970년대 초 건설되었으며, 대지 26만 272㎡(7만 8000평) 규모로 평촌 역세권에 인접해 있다. 대한전선이 떠난 부지에 안양시는 노후화된 공업지역



대한전선(1990년대)



대한전선 부지에 조성된 평촌스마트스퀘어

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서 연구 및 업무 도시로 육성하여 신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공장부지는 ‘평촌스마트스퀘어’라는 이름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돼 2016년 총 1463가구의 대단지인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와 연구개발(R&D)센터, 오피스타운, 복지시설 등이 들어섰다.

3) 문화공간으로 활용된 사례

유유산업 안양공장은 한국 현대 건축의 거장 김중업이 설계한 작품으로, 1950년대를 대표하는 산업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생산부 2층 양쪽 코너에 배치된 조각가 박종배의 ‘모자상 파이오니아’를 포함하여 2003년 안양시 건축문화상 축제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되며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안양시는 근대유산을 보존하고 매장유산과 조화롭게 활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리모델링을 거쳐 김중업건축박



유유산업 안양공장 부지에 조성된 안양박물관

물관을 개관했다. 현재 이 공간은 기존 공장 건물을 활용한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교육관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로 신축한 특별전시관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삼덕제지가 안양시에 기부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된 삼덕공원이 있으며, 기업 역사와 함께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목표로 조성하는 오투기기념관이 2028년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사례

과거 안양은 수많은 공장이 자리 잡은 수도권 대표적 공업도시였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장들이 외곽으로 이전했고, 공장 부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며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안양의 도시구조를 도심 재편성과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시켰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동일방직, 태평방직, 만도기계, 동아제약, 한국제지 등이 있다. 이러한 아파트 개발은 낙후되었던 공장지대를 쾌적한 주거 단지로 바꾸면서 도시환경을

태평방직 부지에 조성된 진흥아파트(1988)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급격한 개발로 인해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표 2〉 안양시 이전 대형 공장부지 활용 현황

활용 방안 분류	사업체명	위치	현재 모습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	쌍용제지	안양동	•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7만 2000㎡ 규모의 아파트형공장 유천팩토피아 입지
	금성통신	호계동	• 디오밸리(연면적 6만 5000㎡) 입지
	삼화왕관	평촌동	• 두산벤처다임(연면적 3만㎡)
	케임브리지	안양동	• 동영벤처스틸(연면적 2만 2000㎡)
	뉴욕제과	관양동	• 안양메가밸리(연면적 9만 2000㎡)
	조일제지	호계동	• 삼성IT밸리(연면적 2만 9000㎡)
	오뚜기	관양동	• 성지스타워드(연면적 5만 2000㎡)
	동양섬유	관양동	• 대릉테크노타운(연면적 10만 1000㎡)
	크라운제과	관양동	• 금강펜테리움 IT타워(연면적 13만 2000㎡)
	동화약품	안양동	• 안양 아이에스 비즈타워 센트럴(21만 6285㎡)
도시첨단산업단지	대한전선	관양동	•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25만 5333㎡) 조성
문화공간	오뚜기식품	평촌동	• 오뚜기기념관과 시민의 쉼터인 공원 건립(부지 2만 4456㎡, 지하 2층, 지상 5층) ¹³
	삼덕제지	안양동	• 삼덕공원 조성
	유유산업	석수동	• 김중업건축박물관 건립
아파트단지 조성	동아제약	석수동	• 연현마을 아파트단지
	동일방직	평촌동	• 인덕원센트럴푸르지오
	만도기계	박달동	• 한라비발디아파트
	한국제지	안양동	• 삼성래미안아파트
	태평방직	안양동	• 안양역푸르지오더샵(구 진흥아파트)

3. 안양시의 산업구조 고도화

1) 지식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고도화

안양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현재 819개의 벤처기업이 활동 중이며, 경기산업안양센터와 동안벤처센터 등 벤처기업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1년 11월에는 명학역에서 인덕원역, 관악로에 이르는 3km² 구간을 안양벤처벨리로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양시는 향후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을 토대로 한 축적된 기술력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21세기 첨단 벤처 도시의 메카로 도약하고자 한다.

안양시의 산업구조 전환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노동집약적 섬유·의복 산업에서 지식·기술집약적 첨단산업으로 점진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및 중소기업진흥자금 지원 정책으로 2025년 기준으로 800개 벤처기업이 안양시에 입주해 있다.

2)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안양시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기존 제조업체 공장부지를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이다.¹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요건은 ①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②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 입지의 집적화, ③ 벤처기업 전용 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특화된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표 3〉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요

단지명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서 연구·업무 도시 육성 •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글로벌경쟁력 제고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총면적	• 255,000㎡
조성기간	• 2012.04.~2016.06.(지정일: 2012.04.03.)
사업시행자	• ALD 제1차 PFV(주)
관리기관	• 안양시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15). 「2016 한국산업단지총람」; 안양시(2016.01.)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대표적인 사례로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를 들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지정·추진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이며, 2016년 12월 기준 건축물의 건축 및 입주 대부분 완료되었다. 초기에는 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입주가 제한되었으나 2016년 1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으로 해당 업종의 연구소 입주까지 허용되었다.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인 민간기업과 안양시가 추진한 사례이다. 안양시는 서울과 인접해 철도와 고속도로 등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이 집중된 지역적 특성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수요가 충분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확보를 통하여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어 입주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이러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의 목적은 노후화된 공업지역 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수도권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서 연구·업무 도시 육성,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이다.¹⁵

3) 기업집적단지 조성

안양시는 도시개발 진행 과정에서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첨단산업을 두루 유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양시의 기업집적단지로는 관양스마트타운과 석수스마트타운을 들 수 있다.

(1) 관양스마트타운

관양스마트타운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 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도시지원시설 개발 사업으로 관양동 1661~1667번지와 1755~1760번지 일원에 2만 7920㎡(8446평)에 조성되었다. 안양시는 과거 1960~1970년대에 공업도시로 성장했으나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편, 도시개발 완료에 따른 가용토지 부족으로 기업활동의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고,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성장한 기업들이 높은 지가로 인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안양시는 시의 세수 및 일자리 감소 등 도시경쟁력이 점차 저하되자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역량 있는 기업 유치와 사세 확장으로 사옥 이전을 모색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되었다.



관양스마트타운 내 이오테크닉스 R&D센터 기공식(2011)



관양스마트타운

이곳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유리하다. 즉 관악로 및 과천대로와 바로 연결되고,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5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서울과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우수한 인적 확보가 용이하다. 또한 주변이 관악산에 둘러싸여 쾌적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최적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관양스마트타운은 초기 조성 당시인 2021년 기준으로 “총 9개 동 중 6개 동에 입주 완료되었고, 3개 동은 아직 미입주 상태였다. 이후 일부 기업의 추가 입주나 이전 가능성이 있지만 2024년 기준 현재 입주 기업 수에 대한 최신 공식 통계는 공개되지 않

은 상황이다. 초기 입주 기업 중 첫 완공된 곳은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로, 2021년 9월에 입주했다. 당시 관양스마트타운에는 국내 대표 제약업체 중 하나인 (주)한독약품을 비롯하여 네오피텔리티(주), 유빈스(주), (주)코윈디에스티, (주)대흥기업 등 IT 중견기업들의 본사와 연구소가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이전해 왔다. 이처럼 관양스마트타운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당시 전망에 따르면 2582명의 직접 고용과 1만 102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었으며, 생산 유발 효과도 8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불어 지방세 수입도 4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시의 재정 여건 개선도 점쳐졌다. 이에 힘 안양시는 관양스마트타운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편의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석수스마트타운

석수스마트타운¹⁶은 고부가가치 잠재력을 지닌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광명역세권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으로, 면적은 5만 5356㎡(1만 6745평)



석수스마트타운(2018)

이며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았다. 이곳은 KTX 광명역사와 인접해 있고, 강남고속순환도로(시흥동~우면동)와 신안산선 전철이 개통되며 복합환승터미널이 건립되는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안양 석수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IT, BT, NT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업종 유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석수스마트타운은 총 19개소로 당시 입주 12개소, 공사 중 3개소, 미입주 4개소였다. 2012년 석수스마트타운에 입주한 16개 우량기업으로는 오스텨임플란트(주), 잘만테크(주), 티브이로직(주), 세계정밀(주), (주)에이치와이티씨, (주)스냅스, 오상자이엘(주), (주)에스제이글로벌, (주)웨이브텍, 한양계전(주), (주)청우메디칼, (주)금강씨엔텍, (주)대동테크라인, 비케이전자(주), (주)바이오써포트, (주)디쌤이 선정되었다.¹⁷ 석수스마트타운은 세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17개 우수기업이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며, 입주 완료 시 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만 4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비롯하여 지역에는 1조 8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고, 세액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¹⁸ 입주기업(미입주)은 오상자이엘(석수동 859-11)로 2020년 11월 26일 (주)조아라(웹툰 업체)에 부지를 매각했으며 세부 건축 계획은 없다. 입주기업(미입주)인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석수동 860-2) 역시 매각(공매)을 진행하고 있으나 세부 계획이 없는 상태이다. 입주기업은 (주)유림씨이젠, 세계정밀, 코모토모로 2022년 상반기 완공됐다.

(3) 박달스마트시티

안양시는 이러한 기업집적단지 조성 외에도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도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등 최신 기술들이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어 안양시 역시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시 운영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했다.

안양시는 2021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초로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 즉「안양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안양시의 각종 스마트도시 건설 및 서비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조감도

이에 ‘디지털 안양 특별자치시’를 선포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행복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¹⁹ 안양시는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박달스마트 시티 복합문화도시 조성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국유지의 효율적인 개발(국가·지역 간 상생발전), 군사시설의 현대화와 과학화이다.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군용지 299만㎡, 기타 용지 29만㎡) 부지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문화·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군 탄약시설을 지하화하여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시설을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달스마트시티의 주요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탄약대 지중화 지형·지질 적 가능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공약 이행 방안에 포함되었다. 이후 제3군수지원사령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2017년 11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의 현장 방문이 있었고, 2018년 1월 박달스마트시티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8

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방부 사전협의 및 설명이 총 11차례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3월 29일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 2018년 10월 안양시가 국방부에 탄약시설 집적화 이전 제안서를 제출했고, 그해 12월 안양시와 국방부의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었다.

2019년 3월 경기도 혁신산업정책관이 현장을 방문했고, 6월에는 안양시·국방부 공동협의체 제1차 회의와 상반기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다. 6월 25일에는 안양시가 「지하형 스마트 탄약고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7월에는 국방부·육군본부, 시설사용부대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 안양시는 2020년 6월까지 국방부 보완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2021년 2월 국방부시설본부에 합의각서(안)을 제출해 지난 4년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달스마트시티는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박달스마트사업 사업 출자 비율을 공사 50.1%, 삼성증권 컨소시엄 49.9% 등으로 추진했고, 사업 기간은 2033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총 3조 27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²⁰

註

- 1 안양시, 『안양시사』4, 2008, 133쪽.
- 2 안양시, 『안양시사』4, 2008, 61쪽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5.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
- 5 『안양시 시정백서』, 2018.
- 6 통계청 서비스업 분류: E(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G(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국제 및 외국기관)의 16개 산업대분류. 이 글에서는 데이터가 없는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15개 업종을 분석함.
- 7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2001.
-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양시 공업지역, 기업체 이전 부지 등의 계획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최충)」, 『제5장 기존 공업지역 정비 방안』, 2005.
- 9 안양메가밸리(http://www.megavalley.com/index/s1/s1_1.php)
- 10 대릉테크노타운15차 입주사업운영위원회(<http://www.dr15.co.kr/>)
- 11 금강주택 펜타리움(http://www.pentarium.kr/work/live_finish_view.asp?hPROJECT_ID=021)
- 12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타임머신/옛사진읽기」, 『안양7동에 자리했던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모습』, 2023.8.20.
- 13 『경기일보』, 「안양 오투기 카페공장 반세기 만에 시민 쉼터로 재탄생한다」, 2024년 8월 14일.
- 14 이성룡 외, 「경기도 도시첨단산업단지 확충 방안」, 경기연구원, 2017.
- 15 안양시 고시 제2019-23호,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 16 안양 석수스마트타운 옹지공급 및 추천대상자 선정 지침.
- 17 『중부일보』, 2021년 4월 17일.
- 18 『경기신문』, 2012년 12월 24일.
- 19 『경기신문』, 「안양시, '세계 속의 스마트도시로 비상'... 박달스마트시티-인덕원 콤팩트시티사업 순항」, 2024년 6월 18일.
- 20 『경기일보』, 「안양, 사업성 문제 '홀홀' 박달스마트시티 급몰살」, 2024년 4월 11일.

2장

안양 산업의 진흥을 위한 육성 정책



김근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 산업진흥 육성 정책

안양시는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집적화, 지역산업 특성화, 기업지원 네트워크화 등의 전략을 수립했으며, 3대 전략 산업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자·정보기기를 선정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SW산업 기술 고도화와 중소벤처기업 제품용 소프트웨어 육성에 중점을 두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IT산업 기반 활용과 영상물 제작 및 편집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전자·정보기기 분야에서는 제조형 IT산업 고도화와 유무선 통신기기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성장을 도모했다.

〈표 1〉 첨단산업육성계획 중 3대 전략산업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자·정보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 산업 고도화• 중소벤처기업 제품용 소프트웨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산업 기반 활용• 영상물 제작 및 편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형 IT산업 고도화• 유무선 통신기기 및 디스플레이 분야

출처: 안양산업진흥원(첨단산업육성계획)

안양시가 시행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¹은 자금 지원, 여성기업 지원, 경영 지원, 청년 지원, 기술개발 지원, 소공인 지원, 판로·수출 지원, 마케팅 지원, ICT 융합 지원, 일자리 지원, 사회적 경제 지원, 소상공인 지원, 기타 지원 등 매우 다양하다.

1) 자금 지원

안양시의 자금지원사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이차차액보전, 중소기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등이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이차차액보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안양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고에서 지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지원 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등 565개 업종으로,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에 대한 이차 차액 보전(1.0~2.5%)이다. 총 용자 규모는 1000억 원이다.

중소기업 특례 보증은 62억 원 규모로 보증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담보 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의 보증 규모는 13억 원(보증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으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사업 경력 5년 이내 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보증 기간은 3년 이내다.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의 보증 가능 규모는 30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안양시 소재 콘텐츠기업²⁾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이며, 용자 기간은 5년이다. 보증심사는 1억원 이하는 재무제표 심사를 생략하지만, 1억원 초과는 평가위원회 심의 후 심사한다.

2) 여성기업 지원



여성벤처기업연합회 창립총회(2023)

안양시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과 여성기업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양시 여성기업 지원사업은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이율 적용(0.5%), 우수기업 선정 시 심사 가점 부여, 제품 수의 계약 가능 금액(5000만 원 이하), 안양산업진흥원 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와

입주기업 선정 평가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이다.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 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공공구매, 기타 여성기업지원(우대) 제도에 참여할 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해준다. 신청 및 발급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담당한다.

3) 경영 지원

경영 지원을 위해 기업환경 개선 사업,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안양시 유망기업 네트워크 지원, 안양시 유망기업 기술 교류회, 산학관 협력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소방시설, 노동·작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재원 비율은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이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여 노동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해 정주 환경과 근무 편의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을 유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월세)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원 규모는 노동자 15명이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의 목적은 노후·열악한 휴게 환경을 개선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등으로, 지원 규모는 2400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발굴과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사업 관리, 노사협력 증진, 지역의 고용 및 노동안전 처리, 지역 고용 및 노·사·민·정 소통 주관, 노사민정협의회 의제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대상자는 사용자와 노동자이며, 위치는 안양노동복지회관 3층이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목적은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 유치를 통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고용 창출로, 대상은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입주기업 20개 사이며, 지원 내용은 사무공간 지원, 경영 지원, 사업화 지원, 기술 개발, 인증, 마케팅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이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의 목적은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 창업자 발굴 및 교육·보육 등 창업 활동 지원으로 대상은 만 40세 이상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ICT, SW) 등 기술 예비 창업자이며, 지원 규모는 지정석 18개, 자유석 2개로 총 20개 석이다. 지원 내용은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One-Stop(발굴·교육·공간 지원·보육) 형태의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시 유망기업 네트워크 지원의 목적은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갖춘 관내 유망기업 대상 기업 간 성과 공유 및 협업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상은 유망창업 인증기업 및 관내·외 중소·벤처 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유망기업 조찬 간담회(연 2회 개최), 유망기업 성과보고회(연 1회 개최)이다.

안양시 유망기업 기술교류회는 미래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관내 유망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및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유망창업 인증기업 및 관내외 중소·벤처 기업으로, 지원 내용은 명강사 초청, 최신기술 및 산업 트렌드 소개, 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 및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초청을 통한 기술이전 논의, 기업별 기술개발 현황 공유 및 협업 과제 도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리프레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신기술 아이템 발굴이다.

산학관 협력 협의회 운영의 목적은 특성화고 및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우수사례 공유·확산과 취업 연계 및 공동 협업사업 발굴이다. 대상은 안양시 관내 특성화고·대학·교육지원청 등 산학 협력 관계자이며, 운영 횟수는 상·하반기 총 4회이다. 지원 내용은 공모사업(정부 프로젝트 공모사업 발굴 및 산학관 연계) 응모, 네트워크(관내 특성화고 및 대학교 등 12개 교육기관 협의회 운영), 구인·구직 연계(특성화고 및 대학과 기업 간 구인·구직 정보 공유), 우수기업 소개 및 기관별 정책 제안 청취 등이다.

4) 청년 지원

안양시는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오피스(청년창업 공간 운영), 청년창업 공모대전, 청년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 청년창업펀드 2호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오피스는 창업 초기 청년기업 자생력 강화 및 관내 창업지원 생태계 완성을 목적으로, 대상은 관내외 예비 창업자이다. 지원 내용은 가상 오피스(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및

라운지 공용좌석 사용), 라운지 멤버십(청년오피스 라운지 사용, 창업 여건 인프라 제공), 멘토링(창업 애로사항 솔루션을 위한 상시 전문 멘토링 운영), 네트워킹(정기적 간담회 및 교류 행사를 통한 네트워킹 등 Co-working 환경 조성)이다.

청년창업 공모대전의 목적은 청년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및 아이템 공모를 통해 우수 청년기업 발굴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연계이다. 대상은 예비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으로, 주요 내용은 최신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가 특강, 창업 해커톤(시상), 스타트업 데모데이(시상), 우수 청년기업 제품 전시 및 체험존이다.



청년오피스 운영 모집(2018)

청년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은 청년오피스⇒액셀러레이팅⇒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창업 성장 생태계 2단계로, 가능성 있는 창업기업 대상 보육 및 밀착 지원으로 성장 가속화가 목적이다. 대상은 창업 5년 이하인 관내(예비) 청년 창업기업으로, 지원 내용은 무료 입주 및 네트워킹 지원(사무실 입주 지원), 전문 코칭(초기기업 사업화 전략 및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집중 성장 지원), 자금 지원(우수기업 사업화 자금 직접 지원(2000만원) 및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투자 기회 제공)이다.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의 목적은 청년기업의 사업화 경쟁력 확보 및 본격적인 사업 성장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대상은 창업 7년 이하인 관내(예비) 청년창업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10개 사 내외이며, 지원 내용은 창업 실전 교육(창업 관련 40시간 이상 기초 집체교육),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이다.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은 창업기업의 시작부터 액셀러레이팅 이후 고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이 목적이다. 대상은 창업 7년 이하의 관내외 고성장 청년 창업기업으로, 지원 규모는 5개 사 내외 지원이다. 지원 내용은 공간 지원(관내 입주 시설 임대료 일부 지원), 사업화 지원금 지원(기업당 2500만원 내외 기술개발 비용 지원), 투자유치 프로그램(1:1 IR 집중 컨설팅, 데모데이 개최, 투자자 미팅 등)이다.

청년창업펀드 2호 운영의 목적은 청년창업기업 초기 기업에 적합한 투자금을 제공하여 도전적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기간은 2023~2031년, 투자 4년, 회수 3년)으로, 대상은 안양시 소재 또는 1년 내 안양시로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스마트안양

마련권

1:1 컨설팅

청년-직업계 고교생을 위한

진로 토크쇼

2025 안양시

청년안정 일자리 박람회

AI 직업

직업 고충상담

LET'S GO!

트레디저 진로

퍼스널 컬러

취업이든, 창업이든 성공하자!

2025. 9. 24. (수)
14:00 - 17:00
안양아트센터

참가기업 50개사 (특수기업 40개 | 중소기업 10개)

진로토크쇼
 직업계고 졸업생과의 함께하는 진로토크쇼
 "남다른 스토리가 청년의 선택"
 ① 14:00-15:00 ② 수리움

취업세미나
 AI파스서, AI면접 플랫폼 체험, MBTI성격유형검사
 미스남얼퍼 컨설팅, 지문진료방역, 프래디저 상담
 노무상담, 입사서류 컨설팅, 이에서 사관할당
 크로마키 취업지원, 스토레스 육상 등

문의 : 안양시청
 문의 : 안양시청 (031-3245-4111~4)

2025 안양시 청년안정 일자리 박람회

청년 창업·초기 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기업별 1억~5억 원 투자, 정기 IR 프로그램 지원, 사후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 지원(글로벌 AC 연계 성장 지원, TIPS 추가 지원 연계)이다.

5) 기술개발 지원

안양시 유망기업 육성 지원, 에이스안양 육성 지원사업, 중소기업 시작품 제작 지원 등이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속한다.

6) 판로·수출 지원

안양시는 기업들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전시상담회 개별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중소기업 수출보험, 해외 공동관 참관(참가)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전시상담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은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유망 전시 전문 상담회 개별 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관내 국내 중소·벤처 기업, 관내 제조업 또는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융합업을 업종으로 하는 해외 중소·벤처 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11개 사 내외 지원(국내), 4개 사 내외 지원(해외)이다. 국내 지원은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사업체에 기본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제품 홍보물 제작 등 업체당 최대 300만을 지원하며, 해외 지원은 기본 부스 임차료, 시설 장치비, 운송료, 통역비를 업체당 최대 450만 원 지원해준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의 목적은 관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통상 촉진단을 선발 및 파견하여 해외시장 선점과 수출 역량 확충 기회 제공으로, 대상은 관내 중소·벤처 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5개 사 내외이다. 지원 내용은 관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관심 지역 조사, 관심 지역 바이어 발굴을 통한 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실시, 사후 마케팅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바이어 관심 유도 및 계약 연계, 상담 주선, 통역, 차량·상담장 임차, 현지 마케팅 등 지원, 해외 공동관 참가를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이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의 목적은 해외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무역관을 활용한 현지 지사 역할 수행으로, 대상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0개 사 내외이다. 지원 내용은 단계별 판로 개척 지원금

(기업당 최대 200만 원), 시장조사·수출 거래처 발굴 등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협업 지원이다.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를 위한 수출보험, 수출 신용 보증 지원으로, 대상은 관내 본점 또는 공장 소재 중소·벤처 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 수출 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기업당 최대 100만 원 지원)이다.

해외 공동관 참관(참가)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내의 공동관 참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대상은 관내 중소·벤처 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8개 사 내외(연 1회)이다. 지원 내용은 부스 임차료, 시설 장치비, 편도운송료, 통역료 등이며, 참가 및 참관단 구성을 통한 킬링콘텐츠 및 글로벌 제품 개발 아이디어 획득, 글로벌 바이어 현장 대면 및 의견 청취 기회 제공, 로컬 브랜드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현지 마케팅 눈높이 설정, 해외 공동관 참가를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이다.

7) 마케팅 지원

토틸 마케팅 지원,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입주기업 바우처(육성) 지원 등이 마케팅 지원사업에 해당한다.

토틸 마케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여 안양시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관내 제조, IT,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지식산업군의 중소·벤처 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6개 사 내외이다. 지원 내용은 기업당 2000만 원 내외 맞춤형 자금 지원(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신문·잡지·유튜브 등 마케팅 활동 지원, 제품 카탈로그 및 기업 소개서 등 홍보물 제작 지원, 특허권 및 인증 등 무형자산 취득 지원)이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입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매출 증대가 목적으로, 대상은 관내 중소·벤처 기업 중 ①온라인 쇼핑몰 판매가 가능한 완제품 보유 기업, ②통신판매업 신고증 보유 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20개 사 내외이며, 지원 내용은 쿠팡·위메프 등을 통한 입점 및 판매, 제품 사진 촬영 및 플랫폼 등록 상세 페이지 제작, 온라인 플랫폼 내 안양 공동관 운영, 유튜브·쇼호스트 섭외, 동영상 제작 등이다.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기업 보유 핵심기술의 권리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이 목적이다. 대상은 관내 중소·벤처 기업 중 전년도 접수 마감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 완료 기업(공동 출원의 경우 지원 불가)이며, 지원 규모는 50건 내외(연간 2회 모집)이다. 지원 내용은 특허출원 비용의 80% 지원(단, 상표·디자인 100% 지원), 법인 명의(법인기업) 출원 및 기업 대표자 명의(개인 기업) 출원 지원이다. 선택 1의 경우 해외 특허에 해당하며 개별국 및 PCT, 최대 400만원/건, 선택 2는 국내 특허로 실용신안 최대 100만원·건, 디자인·상표 최대 30만원/건을 지원한다.

입주기업 바우처(육성) 지원사업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따라 전용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으로, 대상은 입주기업(안양산업진흥원 본원/창업) 중 2년 이상 입주기업으로, 지원 규모는 6개 사 내외이다. 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내외 바우처 자금 지원(공간 지원, 개발 지원, 홍보 지원, 명패 지급)이다.

8) ICT융합 지원

ICT 융복합 컨소시엄형 솔루션 개발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지역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디지털 콘텐츠 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ICT 융복합 컨소시엄형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기업(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로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대상은 관내 중소·벤처 기업 중 법인기업으로서 ①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분야 업종 기업, ② 2개 이상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중 주관 기업으로 대규모 기술 또는 솔루션 개발 및 예정 중인 기업(기술거래 활동 및 공동개발 등 참여 필수, 용역 계약 등은 컨소시엄 불포함)이다. 지원 규모는 1개 컨소시엄 내외로, 지원 내용은 솔루션 개발비 지원으로 컨소시엄당 최대 지원금액은 9700만 원(최대 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총개발비의 50% 지원)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지역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사업 기술력을 갖춘 관내 기업의 핵심 소프트웨어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품목 기술 개발 및 고도화 지원이 목적이다. 대상은 관내 빅데이터, 바이오, 에너지, XR, AI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 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5개 사 내외이다. 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2500만 원 내외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최대 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총개발비의 50% 지원)이다.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사업 국내 디지털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대상 기업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 및 5G테스트랩 등 인프라 제공을 통한 콘텐츠 중견기업 육성이 목적이다. 대상은 VR, AR, 5G,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콘텐츠(앱, 플랫폼 등)를 제작·공급하는 콘텐츠 기업(설립 3년 이상)이며, 운영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다. 지원 내용은 안양창업지원센터 내 1~2층, 4~6층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내 입주 공간 지원(기본 2년, 최대 4년)이다.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상 융합경제 메타버스 유망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한 관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및 확산하는 것이 목적으로, 대상은 안양시 소재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관련 중소·벤처 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4개 사이다. 지원 내용은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개발을 위한 인프라 지원,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및 고도화 비용 지원(2개 사), 메타버스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2개 사), 기존 콘텐츠 IP의 메타버스 전환 소요 비용 지원이다.

9) 일자리 지원

안양시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운영, 좋은 일자리 발굴단 운영, 기업체 인사 담당자 대상 온라인 특강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의 목적은 전문 직업상담사가 인재를 찾는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하여 관내 기업과 시민들의 일자리 안정이다. 장소는 안양시청 2층 일자리센터, 만안구·동안구청, 22개 행정복지센터이고, 대상은 구인 기업 또는 구직자이며, 지원 내용은 구인 매칭 서비스로 수요자 중심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구인 기업 맞춤형 인재 알선이다.

취업박람회 운영 사업은 관내 우수기업과 구직자 매칭으로 1:1 현장 면접,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운영 횟수: 연 4회)하는 것이 목적으로, 참여 업체 수는 대규모인 경우 30~50개 내외, 소규모인 경우 5~20개 내외이다. 지원 내용은 채용관 운영, 부대행사관(AI/VR 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컨설팅, 퍼스널 컬러 진단 등), 고용정책관(고용 관련 유관 기관 고용정책 홍보 및 상담 등),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박람회 참여 기업 공고 게시(일주일 전 사전 게시) 등이다. 구비서류는 구인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박람회 참가신청서이고, 구직자는 워크넷 구직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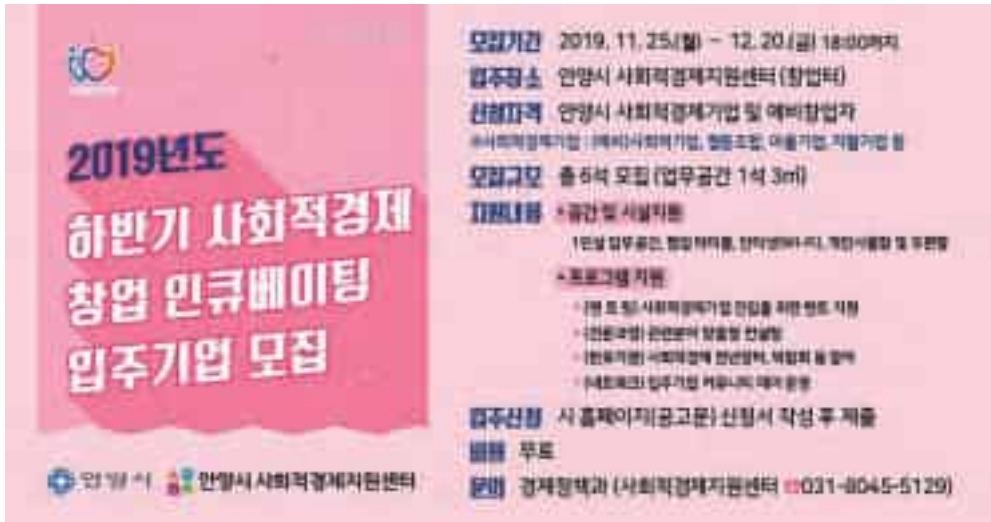


안양시 취업박람회(2019)

력서·자기소개서이다.

좋은 일자리 발굴단 운영 사업의 목적은 관내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일자리 센터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채용 정보와 기업 정보를 파악하고, 기업에 도움이 될 기업 지원 정보와 채용 지원 정보 제공이다. 대상은 관내외 기업으로, 지원 내용은 히든 기업정보 발굴(관내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담당 면담을 통해 우수한 기업정보 발굴 및 홍보 실시), 히든 채용정보 발굴(좋은 일자리 채용 정보를 확인하여 적합자 추천 중점 관리, 일자리 관련 기업 지원 정보 제공 및 채용 대행 서비스 안내)이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대상 온라인 특강 운영 안양시 관내 중소 구인 기업 대상 채용 모집 과정부터 근로계약 체결과 수습에 이르기까지 인사 채용 담당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법 등 인사담당자 대상 노동법 특강 실시(상·하반기 연 2회)가 목적이다. 대상은 관내 기업 인사업무 담당자이고, 지원 내용은 안양 관내 구인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노동법 온라인 특강, 인사·노무 관련 질의응답, 일자리 관련 기업지원 정보 제공 및 채용 대행 서비스 안내이다.



사회경제적 창업 인큐베이팅 입주기업 모집(2019)

10)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의 목적은 사회 가치 시장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토대 마련이고, 대상은 (예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이며, 내용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재정 지원, 판로 지원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대상은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및 업체(단체)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장소가 안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층)이고, 지원 내용은 경기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진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 창업 인큐베이터 및 공유오피스 운영, 협동조합 설립 교육·컨설팅 등 사회적경제 청소년 교육, 사회적기업 창업(설립) 상담,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판로 지원 및 연계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SNS 활용 홍보이다.

11) 소상공인 지원

안양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이차차액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등용문 운영,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안양시 상권 바우처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보증 규모는 150억 원,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이내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장(점포)이 안양시 관내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제의 업종: 불법도박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 제한 업종)로, 보증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이다.

소상공인 이차차액보전금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고,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2000만원 이내, 이자 보전은 연 2%로 5년간(햇살론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이고, 접수기관은 새마을금고(9개소), 새안양신협(3개소), 미래신협(2개소)이며, 보증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이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사업의 사업 기간은 공고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지원 규모는 100개 사 내외, 지원 한도는 업체당 300만 원 이내(공급가액의 80%, 자부담 20%)이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 소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매출액, 종사자수)로, 지원 내용은 옥외 간판 교체, 홍보물 제작, 상품 배열 및 내부 인테리어 개선, POS 경비 지원 등 점포 환경 개선 등이다.

안양시 상권 활성화센터 운영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기간: 2024년 1~12월)로, 대상은 안양시 소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며, 장소는 안양시청 7층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이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상권분석 및 상담,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등용문,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안양시 상권 바우처 사업이다.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 사업은 수요자 중심 집중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 안정화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도모가 목적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대상은 안양시 소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골목상권 활성화 원탁토론회(2017)

이고, 지원 규모는 컨설팅 60명 중 창업자 지원(사업화) 6명이다. 지원 내용은 일반경영·일반기술 분야 컨설턴트의 1:1 맞춤 컨설팅 운영, 컨설팅 분야(상권분석, 경영, 유통·물류, 마케팅, 디자인, 상품개발, 행정, 기타 등), 컨설팅 수혜자 중 우수자 선발평가를 통한 창업자 지원(사업화) 6명(창업 6개월 이내 300만 원 4명, 신규창업 또는 재창업 1000만 원 2명), 아이템 개발, 상표개발, 시설 구축, 홍보(광고), 지적재산권, 기타 등이다.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등용문 운영 사업의 목적은 안양시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시책 마련과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계획수립을 통한 만족도 제고(기간: 2024년 1~12월)이다. 대상은 안양시 소재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로, 지원 규모는 교육생 80여 명(분기별 20명)이다. 지원 내용은 교육 기수별 모집 및 운영, 교육 내용(사업계획서, 상권분석, 노무·세무 지식 습득 등 향후 창업 운영 시 필요한 내용 구성, 필요시 현장 교육, 집합교육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으로 (예비)창업자 역량 강화 도모이다.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은 관내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기간: 2024년 1~12월)가 목적이다. 대상은 골목상권 공동체(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 구성 단체), 골목형 상점가(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의 면

적에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이다. 지원 내용은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내용(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상권특화, 환경 개선 등 도·시비 공모를 통한 사업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원 내용(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 및 국·도·시비 공모를 통한 사업 지원)이다.

안양시 상권 바우처 사업의 목적은 골목상권 조직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과 지속가능 발전 도모(기간: 2024년 1~12월)이다. 대상은 안양시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이며, 지원 규모는 안양시 골목상권 10개소(신규 골목상권 조직화 시 추가 지원)로, 사업 내용은 사업지원 바우처(공동마케팅, 상권특화, 경영자문) 내용 중 상권별 필요에 맞게 단체별 신청하면 된다.

12) 기타

안양시는 이 외에도 AI 활용 온라인마케팅 역량 강화 멘토링, 인사·노무 전문가 컨설팅, 새일여성 인턴 지원금제도, 안양형 여성 친화 기업 인증·협약, 가족 친화 인증제도, 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이행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AI 활용 온라인마케팅 역량 강화 멘토링 사업의 목적은 기업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멘토링 제공으로 재직 여성의 직무역량 강화 및 안정된 고용유지 지원, 기업에 온라인마케팅 컨설팅 제공이다. 기간은 매년 2~10월까지(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로, 대상은 온라인마케팅 직무 담당 재직 여성 2명 이상(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지원 규모는 15개 기업(1개 기업/4회 멘토링 지원)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기업의 재직 여성 2명 이상에게 총 4회차에 걸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의 멘토링 실시이다.

인사·노무 전문가 컨설팅사업의 목적은 기업에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법적 분쟁 사전 예방 및 최소화, 법령 개정에 대처하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 유지, 직장문화 개선 지원이다. 기간은 매년 2월부터 10월까지(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이고, 대상은 인사·노무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지원 규모는 12개 기업(1개 기업/3회 컨설팅 지원)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 및 인사 담당자에게 공인노무사의 3단계 컨설팅을 실시한다.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제도는 경력 보유 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하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로, 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채용

한 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1000명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43개 기업(1개 기업/기업 320만 원, 인턴 60만 원 지원)이다.

안양형 여성 친화 기업 인증·협약의 목적은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육아휴직제도 사용 시 인사고과 불이익 등 성차별적 관행 개선,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 및 근무환경 조성 등 기업의 성평등 기업문화 조성(기간: 2024년 6~10월)이다. 대상 기업은 관내 신고된 기업체 중 기업경영 2년 이상, 기업체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20% 이상 기업이며,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 회사 내규 내 모성보호제도 지침 마련 등을 실시한다. 지원 내용은 안양형 여성 친화 기업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 차액 보전을 우대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가점 부여,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체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내 새일여성인턴 연계/인사 노무 컨설팅/재직자 디지털마케팅 직무역량 강화 멘토링 지원 등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³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기간: 2024년 4~6월)로, 대상은 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이며, 심사기관은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인증 주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인증 기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신규 기준 70점 이상(신규 중소기업 6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을 부여한다. 신청 방법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가족친화 인증→가족친화 인증 신청→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및 제도 활용 실적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이행 정책 목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용 용자 및 무상 지원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활성화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고용보험료 체납 사항 없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 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이고, 지원 내용은 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부동산 관련 세제 지원, 개별소비세 면제,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등이다.

2. 산학연계 방안

안양시는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대림대학교, 연성대학교, 안양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산학연계를 통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 대림대학교 창의창업교육센터

대림대학교 창의창업교육센터⁴는 재학생 대상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12년 4월 설립되었다. 안양시는 2017년 안양시 대학창업플러스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대림대학교 창의창업교육센터를 선정했다. 2018년에는 창업 지원실을 운영했으며, 대림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하여 시제품을 18건 제작했다. 대림대학교 창의창업교육센터는 정규과정과 비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림대학교 창의융합 전공동아리 오리엔테이션(2023, 대림대학교 창의창업교육센터)

〈표 2〉 대림대학교 창의창업교육센터 교육활동

정규과정	산학 융합 교육지수관리	산학연계 교육	전공 특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교과목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멘토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 기반 비정규 과정 연계
비정규 과정	아이디어내보	도전해봄	만들어봄	이루어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창의 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 융합 전공동아리 • 창의 융합 특강 • 창의 융합, 창업 경진대회 • 전공 역량 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멘토링 네트워크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 챌린지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경진대회 • 작품 전시 • 사업자등록 • 특허 출원

출처: 대림대학교 창의창업교육센터 홈페이지

이곳에서는 창의 융합 전공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창의력, 협업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정규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정규 활동으로 보완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기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아가 지역 중심의 창업 지원을 통해 지식 기반 창조 직업 분야로의 진출 경로를 마련하고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새로운 주제의 창의적 솔루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내 창의적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성을 촉진하고 구체화하고 있다. 스타트업 챌린지 대회를 통해 재학생에게 창의적 발상을 자극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창업 프로세스 교육을 통해 우수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진대회를 제공하고 있다. 창의 융합 특강 및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시장 트렌드와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나눔으로써 학생들의 창업 의식을 고취하고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성공적인 창업가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가정신을 배울 기회를 갖도록 한다. 챌린지캠프는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전 창업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통합적 기업가 능력을 배양하는 단계적 양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림테크페어 전시를 통해 매년 창의 융합 전공 동아리별로 우수작품 1개를 전시하며, 스타트업 챌린지 경진대회 우수작품 아이템 시제품 전시 및 판매도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실전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연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연성대학교 국제학사 1~2층에 위치한다. 보육실 수는 12실로 보육실, 회의실, 휴게실, 스튜디오(제품 촬영), 메이커 스페이스 등을 갖추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디자인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비즈니스모델 전략 수립 지원, 판로 개척 지원, 특허 지원, 정부 R&D 사업 지원, 투자 연계 등이다. 입주 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전자·전기·통신 분야 우대)이며, 입주 기간은 1년(기간 종료 시 심사를 거쳐 1년씩 재계약 가능)이다.



연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프로젝트500타워 15층에 위치한다. 보육실 수는 13실로 주요 시설에는 보육실, 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산·학·연 연계사업 지원, 정부 R&D사업 지원, 투자유치 지원, 수출 지원 등을 지원한다. 입주 대상은 뷰티&헬스, ICT 분야 벤처기업의 2년 미만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이다. 2023년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⁵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자 및 기술집약형 예비 창업자로, 특허 및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우대 및 예비 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입주 조건은 입주보증금으로 보육료 1년 치를 선납해야 하며, 입주보육료는 평당 3만원/월(VAT 포함), 건물관리비 별도이다. 입주 공간 모집 규모는 사무형 공간 30.3㎡(10평), 33.6㎡(11평), 49.9㎡(15평) 중 선택할 수 있고, 관리비는 25만~35만 원 선(전화비 및 인터넷 개인 부담)이며, 입주 기간은 6개월 이상~3년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까지 입주 가능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연장 희망 시 연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표 3〉 입주 기업 지원 내용

구분	지원사항	내용
시설 및 교육지원	일반시설/사무지원	- 사무실 제공 - 회의실 - 보안시스템(SECOM) 지원
	교육훈련	- 각종 창업관련 교육기회 제공 - 기술·경영 세미나 개최
사업화 지원	단계별 사업화에 따른 자금 지원	- 기술 컨설팅 지원 - 경영·회계 컨설팅 지원 - 마케팅 지원 -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 국내외 박람회 지원 -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성장 지원	정부지원 사업 연계	-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 연계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 연계	- 본교 교수 R&D 관련 DB 제공 및 연계 -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프로그램 연계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상시모집

모집대상 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모집일정



신청접수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kukhwa@anyang.ac.kr)
- 문의처: 031-465-3006

센터소재지



- 안양대학교 입주공간: 안양시 만안구 신태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 대신관 1층 (101호~103호)
-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1 PROJECT 500 TOWER 15층



안양대학교 | 창업보육센터

3. 산업육성 지원시설

1)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산업진흥원⁶은 안양시 소재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과학기술 및 콘텐츠 등 첨단 지식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구조 고도화를 목적으로 2002년 11월에 설립된 안양시 공공기관이다.

안양산업진흥원의 조직도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원장과 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경정부·산업진흥부·기업육성부·창업성장부·ICT융합센터·소공인지원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안양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기술개발 지원, 지식재산 및 품질인증 지원, 마케팅 및 국내외 판로 확보,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안양청년창업펀드 운영, 입주시설 운영,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ICT 및 지역 SW산업 육성이다.

안양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영 및 네트워크 지원,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지재권 및 인증 지원, ICT융합 지원, 소공인지원센터 등 매우 다양하며, 다음 표와 같이 각 주요 사업별로 다양한 세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4〉 안양산업진흥원 주요 사업

경영 및 네트워크 지원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산학과 협력 협의회 운영 기업 CEO 신년교류회 중소기업 CEO 세미나 개최 안양시 유망기업 네트워크 안양시 유망기업 기술교류회	안양시 유망기업 육성 에이스안양 육성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재권 및 인증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도털사업화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공동관 참가(참관) 지원 온라인 수출 화상 상담회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활용 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중소기업 수출보험
청년 창업 지원	소공인지원센터	ICT융합 지원
안양청년창업펀드 운용 청년 창업 공간 운영(청년오피스) 안양 청년 창업 공모 대전 청년 창업기업 브랜드 개발 제작 지원 청년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청년 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청년 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	소공인지원센터 장비 대여 사업 신청	컨소시엄형 솔루션 개발 지원 지역 전략 SW 개발 지원 R&D 성과검증 지원 스마트 공정혁신 기반 구축 지원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출처: 안양산업진흥원(주요 사업 정리)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 신청도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사업별로 접수 기간에 맞춰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

안양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기업입주시설과 창업지원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은 안양산업진흥원의 기업입주시설을 중심으로 한다. 대표적인 벤처기업집적시설로는 안양산업진흥원 본원(경기산업안양센터)과 동안벤처센터, 안양창업지원센터, 청년오피스 등이 있다. 창업지원시설에는 만안청년오피스(프로젝트500타워, 16층), 동안청년오피스(안양창업지원센터 4층),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안양창업지원센터 9층), 중장년기술창업센터(안양창업지원센터 9층)가 있다. 주요 기업입주시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기산업안양센터(안양산업진흥원 본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48번길 25(관양동 1591-9)
주요시설	• 재단사무실, 중회의실, 체력단련실, 샤워장, 수면실, 전시장, 공용장비실, 교육실, 식당
입주 기간	• 기본 2년(최대 6년) • 기본 입주 기간 종료 시 심사를 거쳐 2년 1회 연장, 1년 2회 연장
입주부담금	• 임대료 : 현금(월 20,510원/3.3㎡) • 예치금 : 250,000원/3.3㎡ • 관리비 : 실비 정산
현재 입주사	총 42개사 입주

(2) 안양창업지원센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관양동 1744번지)
주요시설	• 동안청년오피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대강당, 회의실, 샤워실, 어린이집, 편의점
입주 기간	• 기본 2년(최대 6년) • 기본 입주 기간 종료 시 심사를 거쳐 2년 1회 연장
입주부담금	• 임대료 : 현금(월 12,700원/3.3㎡, 4층 기준층 기준) • 예치금 : 250,000원/3.3㎡ • 관리비 : 실비 정산
현재 입주사	총 45개사 입주

(3) 동안벤처센터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관양두산벤처다임 내) (관양동 1307-37)
주요 시설	• 회의실, 세미나실
입주 기간	• 기본 2년(최대 6년) • 기본 입주 기간 종료 시 심사를 거쳐 2년 1회 연장, 1년 2회 연장
입주부담금	• 임대료 : 현금(월 15,400원/3.3㎡) • 예치금 : 170,000원/3.3㎡ • 관리비 : 실비 정산
현재 입주사	현재 9개 사 입주

(4) 청년오피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프로젝트500타워 16층(안양동 676-1번지)
주요시설	• (오피스) 2~5인 입주 10개 실, 회의실, 공용키친, 휴게실 등 • (라운지) 자유 50석, 공용키친, 무료 무선인터넷, 유료 복합기 등
입주 대상	• (오피스 멤버십) 예비창업팀 및 사업 경력 5년 이하 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 • 임대료, 관리비 등 무료
입주 기간	• (오피스 멤버십) 기본 약 1년(최대 2년), 심사 후 최대 2년 1회 연장 3개 사

청년오피스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프로젝트500타워 16층(안양동 676-1번지)에 위치하며,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큐베이팅은 성공의 꿈을 꾸는 청년 기업가, 창의적인 생각과 창작물을 나누고자 하는 창작자,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이 만나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으로 오피스 라운지를 제공한다.

오피스 멤버십의 대상은 청년 기업가 및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 입주실 10개를 지원하며, 공고 공지 사항을 참조하여 지원하면 된다. 라운지 멤버십의 대상은 청년 사업가·예비 창업자·기타 프리랜서 등이고, 자유석 30석을 제공하며 분기별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지원하면 된다.

청년오피스 액셀러레이팅은 (예비)청년 창업자의 국내외의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동안·만안센터 입주 20개 기업과 프로그램에 따라 외부에도 오픈하고 있으며,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비즈니스 클래스,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에는 직접 자금 지원과 성장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입주 혜택 추가 지원(최대 2년)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절차는 공고 발표 → 참가자 선발 → 기업 진단 → 공간·자금·멘토링·네트워킹 제공 →성과 평가 →졸업의 단계로 진행된다.

註

-
- | | |
|---|--|
| 1 「안양시 2024 기업지원사업 안내」, 'Section 03', 안양시 기업지원 사업 정리, 2024. | 4 대림대학교 창의창업교육센터(https://dept.daelim.ac.kr) |
| 2 콘텐츠기업: 출판산업, 음악·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산업, 방송산업, 게임산업, 광고산업, 캐릭터산업, 정보서비스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 | 5 K- STARTUP 홈페이지(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deadline.do?schM=view&pbancSn=163760) |
| 3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 탄력적 근무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 6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aba.or.kr/) |

3장

벤처기업의 지역 정착과 유형별 경영환경



김근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 안양시 벤처기업 유형 분류

1) 벤처기업의 정의와 구분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첨단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며, 크게 벤처투자 유형·연구개발 유형·혁신성장 유형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벤처 확인 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여기에 예비벤처 유형을 추가하여 총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¹

벤처투자 유형의 기준은 중소기업으로서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투자받고, 해당 투자금액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전문 평가기관으로 평가 사항은 요건 검증이다.

연구개발 유형은 중소기업이면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 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 전담 부서 중 최소 하나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 요청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전문 평가기관으로, 요건 검증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한다.

혁신성장 유형은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등이 전문 평가기관으로 참여하며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기술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예비벤처 유형은 기준 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 확인 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자이다. 전문 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고, 평가 사항은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이다.

안양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수도권 공업 억제 정책으로 역내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산업공동화 현상을 겪었고, 평촌신도시 개발로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변모하면서 자족도시로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첨단벤처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² 1999년부터 안양시는 벤처육성조례 제정,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 안양벤처밸리 선포 등을 통해 관내 입주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작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평촌IT센터, 만안벤처센터, 안양메가밸리, 안양K센터 등 다양한 벤처 기반 시설을 꾸준히 확충했다.

2000년 11월, 안양시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명학역-범계역-평촌역-인덕원역에 이르는 3km²(90만 7000평) 지역을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로 지정받아 안양 벤처밸리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벤처 집적시설과 아파트형공장을 확장했다. 안양 벤처밸리는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안양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힘입어 전국 벤처밸리 중 가장 중요한 벤처 요충지로 자리 잡았다. 이는 안양이 수도권 남부 도시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서울 및 수도권 공업지역(테헤란밸리·구로공단·시화공단·평택포승공단)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관련 업체들과의 연계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이 통과하여 전국 주요 도시와 김포·인천 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다.

안양시는 벤처밸리 입주 업체들에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세 감면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병역특례업체 추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우대 등 각종 정책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했다. 안양벤처밸리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창업보육센터 같은 산업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벤처밸리(안양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³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안양벤처밸리는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일대에 걸쳐 3.17 km²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촉진지구 면적 기준으로 전국에서 6위에 해당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 따라 취득세 50%와 재산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2000년 11월 3일 최초 지정된 이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되었고, 2009년 9월 17일에 추가 지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여러 차례 추가 지정을 받았으며, 2018년 5월 23일과 2022년 8월 22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단, 조건은 기술보증기금 등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한정된다. 2022년 8월에는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0.225km²)가 추가로 조성되었고, 안양벤처밸리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안양벤처밸리에는 총 44개소에 기업이 입주해 있다.

2) 안양시 벤처기업 인증 유형별 현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안양시에서도 벤처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했다. 안양시 벤처기업은 1998년 36개에서 벤처밸리가 지정된 2000년에 200개, 2001년에는 250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전국적

인 벤처 열풍이 시들해지고 일부 부실 벤처기업의 토태로 인해 안양시의 벤처기업 수는 2002년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건설한 벤처기업이 늘면서 2006년에는 297개로 증가했다.⁴ 2012년 안양시 벤처기업 현황⁵을 보면 총 667개의 벤처기업 중 기술 보증·대출 기업이 588개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연구개발기업은 61개(9.1%), 벤처투자기업은 18개(2.8%)로 나타났다. 2013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전체 711개 벤처기업 중 기술 보증·대출 기업이 627개로 전체 88%를 차지하는 반면, 연구개발기업은 63개로 9%, 벤처투자기업은 21개로 3%의 비중을 차지했다. 즉 2010년대 초반 해도 안양시의 벤처기업은 기술 보증·대출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구개발기업과 벤처투자기업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안양시의 벤처기업 현황은 크게 변화했다. 전체 800개의 벤처기업 중 예비 벤처기업이 519개로 전체 벤처기업 비중의 64.9%를 차지했고, 연구개발기업이 198개로 전체의 24.8%를, 벤처투자기업이 82개로 10.3%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연구개발기업 수가 약 3배, 벤처투자기업은 약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최근 10여 년간 안양시 벤처기업 유형에서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표 1〉 안양시 벤처기업 인증 유형별 현황 비교

(단위: 개소)

연도	구분	계	벤처투자	연구개발	예비벤처	혁신성장
2022	업체수	800	82	198	519	1
	비율(%)	100	10.3	24.8	64.9	0.1
연도	구분	계	벤처투자	연구개발	예비벤처	기술 보증·대출기업
2013	업체수	711	21	63	0	627
	비율(%)	100	3	9	-	88
2012	업체수	667	18	61	0	588
	비율(%)	100	2.8	9.1	-	88.1

출처: 안양시(분야별 정보, 벤처기업 현황 종합)⁶

벤처기업확인기관 종합관리시스템의 벤처기업 명단을 통해 2024년 안양시 벤처기업 인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안양시의 전체 벤처기업 수는 777개로 이 중 혁신성장기업이 500개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연구개발기업이 175개로 22.7%, 벤처투자기업이 97개로 1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기관 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벤처기업 인증 유형별 현황 집계 시 예비 벤처기업이

혁신성장기업에 포함되어 있다. 2022년과 비교해도 벤처투자기업이 82개에서 97개로, 연구개발기업이 198개에서 175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2024년 안양시 벤처기업 인증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벤처투자	연구개발	예비벤처	혁신성장
2024	업체수	772	97	175	0	500
	비율(%)	100	12.6	22.7	0	64.7

출처: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벤처기업 명단, 2024.07)⁷

최근 4년간 안양시의 벤처기업 인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보고서 자료를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벤처기업의 인증 유형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대출기업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의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벤처기업 유형 분류 기준에 따르고 있다. 기술평가보증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고,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며,⁸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를 받은 기업이다. 기술평가보증 승인만으로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하다. 기술평가대출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⁹(대출 가능 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하고, ②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기술 평가보증기업 기준과 동일)이며, ③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를 받은 기업이다. 즉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서는 벤처기업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안양시의 벤처기업 인증 유형별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안양시 벤처기업 인증유형별 현황

(단위: 개, %)

연도	구분	계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⁰
2022	업체수 (비중)	270 (100)	11 (4.1)	141 (52.2)	17 (6.3)	39 (14.4)	62 (23)
2021	업체수 (비중)	68 (100)	2 (2.9)	50 (73.5)	5 (7.4)	11 (16.2)	
2020	업체수 (비중)	83 (100)		59 (71.1)	4 (4.8)	20 (24.1)	
2019	업체수 (비중)	49 (100)	4 (8.2)	33 (67.3)	2 (4.1)	10 (20.4)	

출처: 공공데이터포털(중소벤처기업부_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보고서)

최근 4년간의 안양시 벤처기업 인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총 벤처기업 수는 49개로 이 중 기술평가보증기업이 33개로 67.3%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연구개발기업이 10개로 20.4%, 기술평가대출기업이 4개로 8.2%, 벤처투자기업이 2개로 4.1%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총 벤처기업 수가 83개로 2019년 대비 69.4% 증가했고, 특히 기술평가보증기업과 연구개발기업 수가 대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2019년과 마찬가지로 기술평가보증기업이 59개로 전체 71.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그다음으로 연구개발기업이 20개로 24.1%, 벤처투자기업이 4개로 4.8%를 차지하고 있었다. 2021년에는 총 벤처기업 수가 68개로 2020년에 비해 약 18.1% 감소했다. 기술평가보증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이 감소했는데, 특히 연구개발기업은 2020년 대비 50% 감소율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유형별로는 기술평가보증기업이 50개로 전체의 73.5%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연구개발기업이 11개로 16.2%, 벤처투자기업이 5개로 7.4%, 기술평가대출기업이 2개로 2.9% 순이었다. 2022년에는 총 벤처기업 수가 270개로 2021년 대비 약 297.1% 증가했다. 특히 기술평가보증기업이 2021년 대비 91개 증가했고, 연구개발기업도 28개, 벤처투자기업도 12개, 기술평가대출기업도 9개 증가했다.

또한 벤처기업 유형 분류 개편 후 신설된 혁신성장기업이 2022년 62개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형별로는 기술평가보증기업이 141개로 전체 52.2%를 차지했고, 혁신성장기업이 62개로 23%를 차지했으며, 연구개발기업 39개(14.4%), 벤처투자기업 17개(6.3%), 기술평가대출기업 11개(4.1%)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볼 때 안양시의 벤처기업은 2021년까지는 벤처기업이 다소 적었으나, 벤처기업 인증 유형이 개편된

2022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 유형별로는 기술평가보증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혁신성장기업과 연구개발기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양한 인증 유형별 벤처기업이 기업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2006년 10월 기준 벤처기업 업종별 구분을 통하여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¹¹ 전체 297개 중 41.1%인 122개가 정보통신 관련 업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기·전자 업체가 18.6%(85개), 기계금속업체가 12.8%(38개), 의료정밀업체 4.4%(13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보고서(벤처기업협회)¹²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안양시의 벤처기업 업종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안양시 벤처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연도	에너지/ 화학/ 정밀	의료/ 제약	컴퓨터/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기기/ 방송기기	기계/ 자동차/ 금속	음식료/ 섬유/ 비금속/ 기타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IT기반 서비스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도소매/ 연구개발 서비스/ 기타 서비스	기타	합계
2022						158 (58.5)		59 (21.9)	46 (17%)	7 (2.6)	270 (100)
2021	8 (11.8)	8 (12.3)	7 (10.3)	14 (20.6)	2 (2.9)	1 (1.5)	4 (5.9)	9 (13.2)	9 (13.2)	6 (8.8)	68 (100)
2020	5 (6.0)	5 (6.0)	12 (14.5)	27 (32.5)	4 (4.8)	5 (6.0)	10 (12.1)	7 (8.4)	6 (7.2)	2 (2.4)	83 (100)
2019	2 (4.1)	3 (6.1)	9 (18.4)	8 (16.3)	4 (8.2)	3 (6.1)	6 (12.2)	7 (14.3)	7 (14.3)		49 (100)

안양시 벤처기업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에는 총 49개의 벤처기업 중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업종이 18.4%인 9개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에너지·화학·정밀이 4.1%(2개)로 가장 낮았다.

2020년에는 총 83개로 2019년 대비 69.4% 증가하여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2019년에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던 통신기기·방송기기 업종

이 32.5%(27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19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업종이 14.5%(12개)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기타가 2.4%(2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21년에는 총 벤처기업 수가 68개로 2020년 대비 18.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통신기기·방송기기 업종이 20.6%(1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정보통신·방송서비스와 도소매·연구개발 서비스·기타 서비스가 각 13.2%(9개)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 2020년과 차이를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에너지·화학·정밀과 의료·제약업종이 12.3%(8개),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업종이 10.3%(7개), 기타가 8.8%(6개),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 서비스가 5.9%(4개), 기계·자동차·금속이 2.9%(2개),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 제조업종이 1.5%(1개) 순이었다.

2022년에는 전체 벤처기업 수가 270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업종이 58.5%(15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업종이 21.9%(59개), 도소매·연구개발 서비스·기타 서비스가 17%(46개), 기타 2.6%(7개) 순이었다. 2022년의 경우 벤처기업 유형 개편으로 인해 전체 벤처기업이 이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세부 업종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2. ICT 산업 지원정책과 현황

1)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는 2012년 개소한 스마트콘텐츠센터가 2019년 명칭을 변경하여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안양창업지원센터 내 1~2층, 4~6층에 위치하며, 총 5개 층에 전용면적 2310㎡ 규모로 입주 공간은 총 27개이다. 센터의 주요 시설로 1층에는 콘텐츠 기획과 개발을 위해 다양한 VR기기 및 디지털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전시존에서는 우수 콘텐츠 기업의 제품과 5G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태블릿PC·웨어러블·VR/AR 등 다양한 테스트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고, 테스트랩에서는 제조사별, OS별로 다양한 기기 테스트와 대여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2층에는 콘텐츠 개발사들을 위한 테스트실이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기기 대여와 테스트가 가능하다. 4층에는 10인 미만을 위한 소회의실 3개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입주기업 성공사례 발표(2023)

와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 1개가 마련되어 있으며, 4층부터 6층까지 각 층마다 2개의 휴게실을 갖추고 있다.

〈표 6〉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 공간

형태	전용면적(㎡)	적정 인력	개수
입주공간 B타입	40 ~ 60 (12~18평)	6~10인	16
입주공간 C타입	60 ~ 85 (18~26평)	10~20인	11
합계			27

출처: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입주기업의 공실 발생 시 센터 홈페이지나 NIPA 홈페이지에 공고해 추가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내부 관리지침에 따라 연 2회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입주기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정기 및 수시 교류를 통해 입주기업의 의견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기간은 최대 4년(기본 2년 및 추가 2년 연장 입주 가능)이며, 5G 디지털콘텐츠 테스트랩, OA기기, 각종 회의실 등의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부 지원으로는 임대료 전액 지원(단, 관리비는 입주기업 전액 자부담),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허브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는 디지털콘텐츠 허브 활성화 지원사업,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 강화, 디지털콘텐츠기업 콘텐츠 브랜딩, 디지털콘텐츠기업 전문성 강화 사



5G 디지털콘텐츠 테스트랩

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허브 활성화 지원사업은 성장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내실 있는 디지털 콘텐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아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허브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요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콘텐츠 기업 성장강화사업은 국내 중소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는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디지털콘텐츠 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 및 졸업 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콘텐츠 기업 콘텐츠 브랜딩사업은 국내외 PR,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목



디지털 콘텐츠 허브 활성화 지원사업 체계

표로 하며,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입주 및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콘텐츠기업 전문성 강화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입주기업과 회원사,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며,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 및 졸업 기업과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세 가지 지원사업의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7〉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사업별 주요 프로그램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 강화	디지털콘텐츠기업 콘텐츠 브랜딩	디지털콘텐츠기업 전문성 강화
기업별 BM 수립 및 사업전략 컨설팅 지원 코디네이터 멘토링 운영 원포인트 IR 멘토링 운영 경영, 회계, 법률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국내외 언론 PR 홍보 기획기사 인터뷰 및 홍보 콘텐츠 홍보영상 제작 지원 SNS 기사단 운영 및 홍보	IR 피칭데이 개최 및 운영 입주기업 네트워킹 입주기업 전문 교육프로그램 코칭라운드데이블 운영

출처: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2) 안양시 ICT 기업 현황

안양시의 ICT 기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ICT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ICT 기업 분야를 선정했다. 통계청의 정보통신기술 산업분류에 따르면 ICT 산업의 는 ICT 관련 제조업, 도매업, 수리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통신, 프로그래밍, SI, 자료처리 및 포털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ICT 실태조사에서 ICT 산업 분야는 정보통신 방송기기 분야(전자부품·컴퓨터 및 주변기기·통신 및 방송기기·영상 및 음향기기·정보통신 응용 기반 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분야(통신서비스·방송서비스·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패키지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IT서비스·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제작)이다. 다만, 이 조사에서는 광역 단위 조사라는 한계로 안양시의 ICT 기업 현황 자료를 얻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산업 소분류에 따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과 정보통신업(J-58~63) 분야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를 통해 안양시의 ICT 기업 현황¹³⁾을 분석했다.

최근 안양시의 ICT 사업 현황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체 현황 및 종사자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안양시의 ICT 사업체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ICT 사업체 수는 1303개였고, 2018년 1329개, 2019년 1388개로 증가폭이 매우 완만함을 알 수 있다.

〈표 8〉 ICT 산업 범위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

ICT 통계 포털의 ICT 산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ICT 산업 해당 분야		
ICT 산업별(1)	ICT 산업별(2)	ICT 산업별(3)	ICT 산업별(1)	ICT 산업별(2)	ICT 산업별(3)
정보통신 방송 기기	전자부품	반도체	C.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평판디스플레이			262. 전자부품 제조업
		센서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전자관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수동부품			265. 영상과 음향기기 제조업
		PCB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접속부품			
	기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 기	컴퓨터	58.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통신기기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방송용 장비			592. 오디오 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영상 및 음향기기	영상기기	60. 방송업	601. 라디오 방송업	
		음향기기			602. 텔레비전 방송업
		기타 영상음향 기기			
	정보통신 응용 기반 기기	가정용전기기가	61. 우편 및 통신업	612. 전기 통신업	
		사무용기기			
		의료용 기기			
		측정제어분석기기			
		전기장비			
	기타 정보통신 응용 기반 기기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J.정보통신업	63. 정보서비스업	
		무선통신서비스			
		통신 재판매 및 중개 서비스			
	방송서비스	지상파 방송서비스			
		유료 방송서비스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기타 방송서비스			
정보서비스	정보인프라 서비스				
	정보 매개 및 제공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패키지소프트웨어	시스템소프트웨어	639. 기타 정보서비스업		
		응용소프트웨어			
	게임소프트웨어				
		IT서비스		IT 컨설팅 및 시스템개발	
				IT시스템 관리 및 지원 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개발· 제작	기타 IT서비스			
		출판			
		영상			
음악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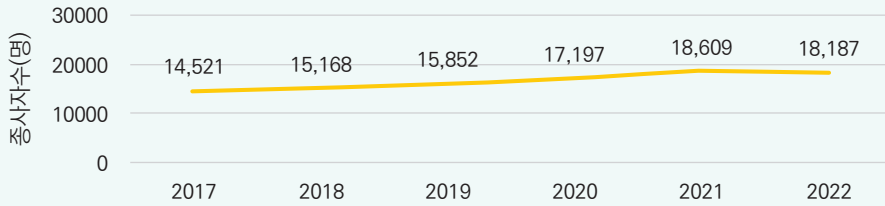
스마트도시통합센터(2024)

하지만 2020년 2696개로 전년 대비 94.2%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2876개로 전년 대비 6.7% 성장했고, 2022년에는 3048개로 전년 대비 6%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안양시의 ICT 사업체는 2020년을 기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후 연평균 6%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안양시의 ICT 종사자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만 4521명 규모에서 2018년 1만 5168명, 2019년 1만 5852명으로 매년 4.5%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ICT 사업체 수가 급증했던 2020년 ICT 종사자 수 역시 1만 7197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고, 2021년에는 1만 8609명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만 8187명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ICT 사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ICT 종사자 수는 2022년에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

안양시 ICT 종사자 현황 추이



다음으로 최근 6년간의 ICT 업종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2017년 ICT 업종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이 394개로 3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뒤를 전자부품 제조업이 244개(18.7%),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 225개(17.3%),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217개(16.7%) 순으로 이어졌다. 종사자 수에서도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이 3846명으로 26.5%를 차지하며 선두를 유지했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은 2933명(20.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2415명(16.6%)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의 2241명(15.4%)보다 많은 종사자 수를 기록했다.



인덕원 공업지역

2018년 ICT 업종별 사업체 수는 2017년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이 424개로 31.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이 270개(20.3%),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 222개(16.7%),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187개(14.1%)를 차지했다. 특이한 점은 전자부품 제조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소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종사자 수 역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이 4323명(31.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 3021명(19.9%), 전자부품 제조업이 2560명(16.9%),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2030명(13.4%)을 기록했다.

2019년 ICT 업종별 사업체 수도 전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이 438개로 31.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다음으로 전자부품 제조업이 272개(19.6%),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220개(15.9%),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 216개(15.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종사자 수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4498명(28.4%)으로 가장 높았고,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 3093명(19.5%), 전자부품 제조업이 2698명(17.0%),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199명(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안양시의 ICT 사업체 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1031개로 전년 대비 135.4% 증가하며 전체 비중 역시 38.2%를 차지했다.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515개로 전년 대비 134.1% 증가하여 19.1%의 비중을 보였다. 세 번째로는 전자부품 제조업이 336개로 전년 대비 23.5% 증가하며 12.5%를 차지했고,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 272개로 전년 대비 25.9% 증가하여 16%의 비중을 나타냈다. 종사자 수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5542명(3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2876명(16.7%), 전자부품 제조업이 2804명(16.3%),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 2753명(16%)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 역시 2020년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1096개로 38.1%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536개로 18.6%를 기록했다. 세 번째는 전자부품 제조업 352개로 12.2%를 차지했고,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 281개로 9.8%의 비중을 보였다. 종사자 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6432명으로 38.1%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

〈표 9〉 안양시 ICT 사업체 현황 추이

(단위: 개, %)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업 체수	종사 자수	사업 체수	종사 자수	사업 체수	종사 자수	사업 체수	종사 자수	사업 체수	종사 자수	사업 체수	종사 자수
반도체 제조업	25 (1.9)	369 (2.5)	23 (1.7)	216 (1.4)	30 (2.2)	721 (4.5)	89 (3.3)	838 (4.9)	92 (3.2)	823 (4.4)	93 (3.1)	698 (3.8)
전자부품 제조업	244 (18.7)	2,241 (15.4)	270 (20.3)	2,560 (16.9)	272 (19.6)	2,698 (17.0)	336 (12.5)	2,804 (16.3)	352 (12.2)	2,895 (15.6)	359 (11.8)	2,615 (14.4)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38 (2.9)	340 (2.3)	46 (3.5)	375 (2.5)	49 (3.5)	354 (2.2)	73 (2.7)	384 (2.2)	79 (2.7)	421 (2.3)	77 (2.5)	389 (2.1)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25 (17.3)	2,933 (20.2)	222 (16.7)	3,021 (19.9)	216 (15.6)	3,093 (19.5)	272 (10.1)	2,753 (16.0)	281 (9.8)	2,893 (15.5)	286 (9.4)	2,748 (15.1)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36 (2.8)	605 (4.2)	34 (2.6)	450 (3.0)	32 (2.3)	295 (1.9)	47 (1.7)	271 (1.6)	42 (1.5)	274 (1.5)	43 (1.4)	290 (1.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 (0.1)	9 (0.1)	1 (0.1)	9 (0.1)	1 (0.1)	9 (0.1)	2 (0.1)	12 (0.1)	2 (0.1)	10 (0.1)	3 (0.1)	22 (0.1)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394 (30.2)	3,846 (26.5)	424 (31.9)	4,323 (28.5)	438 (31.6)	4,498 (28.4)	1,031 (38.2)	5,542 (32.2)	1,096 (38.1)	6,432 (34.6)	1,202 (39.4)	6,419 (35.3)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32 (2.5)	315 (2.2)	32 (2.4)	289 (1.9)	40 (2.9)	281 (1.8)	129 (4.8)	299 (1.7)	182 (6.3)	385 (2.1)	212 (7.0)	441 (2.4)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13 (1.0)	20 (0.1)	16 (1.2)	31 (0.2)	18 (1.3)	34 (0.2)	36 (1.3)	56 (0.3)	41 (1.4)	70 (0.4)	42 (1.4)	58 (0.3)
라디오 방송업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텔레비전 방송업	8 (0.6)	52 (0.4)	4 (0.3)	38 (0.3)	3 (0.2)	25 (0.2)	7 (0.3)	15 (0.1)	8 (0.3)	15 (0.1)	8 (0.3)	10 (0.1)
전기 통신업	23 (1.8)	1,030 (7.1)	24 (1.8)	1,179 (7.8)	21 (1.5)	1,040 (6.6)	31 (1.1)	615 (3.6)	30 (1.0)	621 (3.3)	29 (1.0)	523 (2.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17 (16.7)	2,415 (16.6)	187 (14.1)	2,030 (13.4)	220 (15.9)	2,199 (13.9)	515 (19.1)	2,876 (16.7)	536 (18.6)	3,114 (16.7)	548 (18.0)	3,324 (18.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25 (1.9)	103 (0.7)	22 (1.7)	392 (2.6)	23 (1.7)	360 (2.3)	50 (1.9)	356 (2.1)	36 (1.3)	92 (0.5)	54 (1.8)	161 (0.9)
기타 정보서비스업	22 (1.7)	243 (1.7)	24 (1.8)	255 (1.7)	25 (1.8)	245 (1.5)	78 (2.9)	376 (2.2)	99 (3.4)	564 (3.0)	92 (3.0)	489 (2.7)
합계	1,303 (100)	14,521 (100)	1,329 (100)	15,168 (100)	1,388 (100)	15,852 (100)	2,696 (100)	17,197 (100)	2,876 (100)	18,609 (100)	3,048 (100)	18,187 (100)

리업이 3114명으로 16.7%, 전자부품 제조업이 2895명으로 15.6%,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 2893명으로 15.5%의 순서를 보였다.

2022년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1202개로 39.4%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548개로 18.0%를 기록했다. 전자부품 제조업은 359개로 11.8%,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 286개로 9.4%를 보였다. 종사자 수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6419명으로 39.4%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3324명으로 18.3%,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이 2748명으로 15.1%, 전자부품 제조업이 2615명으로 14.4%를 나타냈다.

최근 6년간의 안양시 ICT 산업 현황 살펴보면, 안양시 ICT산업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이 전체의 35% 비중을 차지하며, 2020년에 두 배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종사자 수 역시 2019년까지는 4500명 정도였으나, 2020년 5542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에는 6419명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2019년까지는 전자부품 제조업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비중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았으나, 2020년 이후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종이 사업체 수뿐만 아니라 종사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안양시 ICT산업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안양시의 ICT산업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안양시의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안양시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안양시 공업지역, 기업체이전부지 등의 계획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2005.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현대 산업근거지 조사보고서, 20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ICT 실태조사, .(2023)..
- 국현민, 「평촌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안양시의 도시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6.
- 김건수, 「수도권 도시의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경환 외, 「청년창업활성화 방안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 신중헌, 「수도권 위성도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생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10.
- 안양문화원, 「만안의 기억」, 아침미디어, 2012.
- 안양시, 「2005 안양벤처밸리」, 2005.
- 안양시, 「2006년도 정보화사업계획」, 2005.
- 안양시,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2005.
- 안양시, 「2006 안양벤처밸리」, 2006.
- 안양시, 「시정백서 2018」, 2018.
- 안양시, 「2018 안양통계연보」, 2019
- 안양시, 「안양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 2019.
- 안양시, 「안양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2019
- 안양시, 「2024 기업지원사업 안내」, 2023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3_성장 발전하는 안양』, 2008.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_4 살기 좋은 환경도시 안양』, 2008.
- 이성룡 외, 「경기도 도시첨단산업단지 확충 방안」, 경기연구원, 2017.
- 이은호, 「안양시의 성장과 도시구조의 변화」,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주)에이치앤컨설팅,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2019.
- (주)정책과평가, 「안양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 연구조사」, 2013.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양시 공업지역, 기업체 이전 부지 등의 계획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최종)」
‘제5장 기존 공업지역 정비 방안’, 2005.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6 한국산업단지총람』, 2015.
- 대림대학교 창의창업교육센터(<https://dept.daelim.ac.kr>)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
 안양산업진흥원(<https://www.aba.or.kr/>)
 연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https://dept.yeonsung.ac.kr>)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s://ngoanyang.or.kr>)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http://www.dccenter.kr>)
 안양시(<https://www.anyang.go.kr>)
 안양청년광장(<https://www.anyang.go.kr>)

안양시 2016~2022년 기준 통계연보
 안양시 2016~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결과
 통계청 2016~2020 벤처기업실태조사
 통계청 2018~2022 안양시 산업체 현황 및 구성비

註

- 1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 2 『경인일보』, 「주목받는 안양시의 벤처산업」, 2003월 9월 16일 .
<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400>
- 3 안양시, 『안양시사』3, 2008, 688쪽.
- 4 안양시 벤처기업 현황(2012.10, 2013.04)
<https://www.aca.or.kr/bbs/boardView.do?id=386&bldx=1128&page=1&menuId=858&bc=0>
- 5 벤처기업 현황 종합(<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402>)
- 6 벤처기업명단(<https://www.smes.go.kr>)
- 7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것,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 기준을 4000만 원으로 하고,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 금액 또는 대출 가능 금액 포함)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에는 2호의 기준 미적용)
- 8 무담보 신용 대출자금은 창업기업지원 자금,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신성장 기반 자금 중 신성장 기반 자금(일반), 기초 제조기업 성장 자금, 고성장(가젤형) 기업 전용 자금, 투융자 복합금융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이다.
- 9 개편 후 신설(2022년)
- 10 안양시, 『안양시사』3, 2008, 벤처기업 현황
- 11 중소벤처기업부_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보고서(벤처기업협회) (<https://www.data.go.kr>)
- 12 안양시 2017~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 결과

집필(가나다순)

김근식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박천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황주성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기획총괄

김지석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구본태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자료정리

설혜영, 김정서

편집

구본태, 박소영

교정·교열

박소영, 이우석, 김지석

안양시사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흥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15-7

ISBN 979-11-94861-09-6 (세트)

